

예수 마음으로

2010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예수마을 통권 13호 목차

예수마을 통권 13호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Contents

	김중훈 담임목사 .3				
월삭기도회	윤승진 부목사 5	봉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병준 실버클럽회원 48		
하나님의 위로	정은숙 전도사 6	봉사하는 삶	홍덕원 실버클럽회원 49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자라는		존경하는 김중훈 목사님께	정재영 실버클럽회원 50		
유치부 친구들	김송기 전도사 7	Yale Academy	크리스틴김 51		
함께 여호와를 알아가는		Yale Academy Hickville 신문에..	52		
중등부	김데이빗 전도사 8				
보화를 발견하는 새해	조유경 사모 9	고혈압에 대하여	오현섭 장로 53		
예일공동체로 부르심을..	강세훈 전도사 11	응급시엔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종서 집사 55		
17주년 기념예배와 임직식화보	편집부 12	에덴의 동산에서 (시)	최지선 집사 57		
		화관을 쓴 신부에게 (편지)	김수옥 집사 58		
하나님 사랑합니다	박기식 집사 15	사랑은 내가 먼저	김준택 장로 59		
신앙생활 다시해야 할 것 같아	심도현 집사 16	등산의 위력	성태섭 장로 61		
치료하시는 하나님	김지애 집사 17	추수감사 찬양제를 돌아보며	김주상 권사 69		
하나님은 왜	최주영 집사 19	팔팔 (26/26)	이근만 집사 70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고양숙 집사 21	나의 새로운 결심	한상근 집사 71		
인도하시는 하나님	김순영 집사 22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옥경 사모 72		
제자훈련의 설레임	박복임 집사 23	영화 미션을 보고	조태성 집사 74		
예일의 새가족이 되기까지	유성민 집사 24	황무지 같고 헤쳐	김태수 집사 76		
		나의 기도	홍찰리 집사 77		
		예정된 일	이진배 집사 80		
		어머니의 구원	박지혜 집사 85		
		여호수아 리더십 이야기	김은희 집사 87		
		변장된 축복	최형석 집사 89		
		하나님이 주신 사랑	황희진 성도 91		
		교만과 거만을 버리고	김영진 집사 94		
니카라과에서 보낸 편지	김인선 목사 25	4 (/)	편집부 96		
주님을 기다리며	박인호 선교사 26				
볼리비아에서 온 편지	윤도근 선교사 30				
나눔의 집짓기	이윤미 집사 31				
도미니카 선교일지	단기선교팀 33				
Work Camp를 다녀와서	John Lee 36				
제3예수마을을 사랑하는 이유	한기하 장로 37				
성전 꽃꽂이에 대하여	김영애 집사 38				
찬양대 총무로 섬기면서	박재우 집사 40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					
드라마 평가회	드라마사역부 40				
열심보다는 인내하는 목장	김정업 집사 42				
찬양대의 기도	조성식 집사 44				

임미라 집사



담임목사 김 종 훈

예수님이 거니시는 곳이 예수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 예수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있는 곳이 예수 마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있는 곳이 예수 마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예수 마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 향기 풍기는 곳이 예수 마을입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치유를 받으신 분들이 더 많은 해였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 중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기뻐하며 저에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어느 해보다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 내려가며 치유하시는 환상,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우리 교회를 높여 주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안고 계시는 환상 등등.

저는 환상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보이시는 하나의 방법임을 분명히 믿습니다(골 2:28; 행 2:17).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마귀의 시험이 있음도 알기에 이런 환상은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환상의 내용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런 믿음 때문이어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본 환상은 전부 성경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제일하신 교회가 이런 복을 받는 것이라면, 이제 더욱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임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기 때문입니다(약 4:10; 뵤전 5:6).

여기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드리는 여인의 마음으로 “예수 마을”을 펴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향기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백자 컬럼
창립 17주년 기념예배와 임직식
교육
선교
섬김
예일아카데미 봉사프로그램
의료
예수마를 한마당



월삭기도회



윤승진 부목사

우리 교회는 지난 9월부터 월삭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월삭’이란 새 달이 시작되는 때 1일을 의미합니다. 월삭기도회는 매월 첫 날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달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지난 한 달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주어진 새 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월삭 기도회의 근거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 시내 산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 갈 것을 약속합니다. 친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과 교제할 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맛 볼 수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따르면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인 제사법(예배)을 주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시기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매일드리는 예배)로, 안식일 제사(주일예배)로, 월삭제사(월삭예배)로, 절기 제사(절기예배)로 그 백성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민28). 월삭에는 속죄제와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민28:11-15, 민10:10). 지난 달 지은 죄를 피로 깨끗이 씻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며 살 것을 다짐하며 번제를 드립니다.

자신의 비틀어진 것과 모난 것을 모두 고운 가루와 같이 갈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 것을 갈망하며

소제를 더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화목제를 드립니다. 특별히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는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나팔을 불어 우리의 헌신과 기쁨과 감사의 간절한 심정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복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월삭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사랑을 나팔 불며 전하라는 것입니다. 월삭마다 마지막 날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를 생각하며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삶을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월삭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날 모이게 되면 매달 모이는 요일이 틀려지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첫 번째 금요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이후 월삭기도회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각 예수마을에서 순번을 정하여 인도, 기도, 찬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월삭기도회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와 감사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새로운 달에도 우리를 다시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천국을 맛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매 월삭기도회에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쌓아 가고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는 예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그날이 가까워 오는 이때에 우리 모두 더욱 열심을 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써 전하는 나팔수가 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



고등부 정은숙 전도사

커피 한 잔을 들고 고등부 예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성경 공부를 막 끝낸 많은 아이들이 고등부 예배실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회는 한 달에 한번 중등부와 고등부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년부와 교실 사용을 번갈아 하는 관계로 예배드리기 전에 성경공부를 먼저 합니다. 고등부 예배실에는 한국어반 학생들이 아직 성경공부를 하고 있어 다들 기다리고 있는가봅니다.

7학년 꼬마가 장난을 치다 저와 부딪혀 들고 있던 커피가 그만 제 손등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때 옆에 서있던 10학년 남학생 하나가 허겁지겁 제 손등에 흐른 커피를 자신의 손으로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행여나 뜨거운 커피에 제 손이 데일까 하여 한 순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다 식은 상태였지만 그것을 알 길이 없는 이 학생은 제 손을 붙잡고 정신없이 커피를 털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커피 다 식었어.” 하고 말해주자 그 학생은 머쓱하니 제 손을 놓고 화장실로 손을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찡하는 감동이 제 온몸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개구쟁이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학생입니다. 늘 밝고 명랑하지만 장난기 때문에 제게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행여 주책없이 또 눈물을 보일까 저는 서둘러 예배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전 울보이니까요.

그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제 손에 오래 오래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아이의 손을 통해 제 마음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유난히 힘이 나서 선교훈련 다 마치고 집으로 향할 때까지 저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는 유치부 친구들



유치부 김승기 전도사

을 한해 유치부에서 가장 중요한 program으로 여기고 힘을 모았던 것은 <성경읽기 기도하기>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유치부를 맡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더 많은 아이들이 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 함께 같은 성경으로 같은 본문의 내용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모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의 도전을 드렸습니다. P. T. A. 모임에서 말씀을 드리고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 <두란노 어린이 그림성경>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면서 예쁘게 sticker를 붙여오는 친구들을 대할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거의 다 했는데 며칠을 못했어요.” 하며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에서도 저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읽기 기도하기>를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고 졸라댄다는 우리 아이들은 분명 하나님이 아름답게 키우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예쁜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게 담겨 그들이 살면서 필요할 때 삶 가운데 말씀으로 적용하여 힘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반듯하게 자라 주기를 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치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님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이들이 보는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디모데를,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디모데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의 아름다운 믿음이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에게 전해지더니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전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에게 내려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대물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믿음의 대물림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물림은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정착하면서 살았던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 주었던 땅으로 창세기 21:33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곳은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들을 양보하고 우물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을 때에 브엘세바로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에게서 또한 브엘세바는 야곱의 태어난 곳으로 그가 에서와의 장자권 문제로 삼촌의 집으로 쫓겨 가게 되었을 때, 그는 브엘세바를 등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벧엘에서 하나님을 향해 언젠가 다시 고향땅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고향 땅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로 그의 육체의 고향임과 동시에 영적인 고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해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를 방문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들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았던 곳에서 그들의 아들은 위로를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앞으로 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어찌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의 집에서 아름답게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서 믿음의 대물림이 각 가정마다 아름답게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아름답게 세우신 예일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대물림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중등부



중등부 김성국 전도사

중등부 사역을 맡은 지 어느덧 여섯 달이 되어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깔깔 대고 웃고 장난치고 이리 저리 몰려다니고... 아직도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다분 합니다. 한편 굵고 진지한 목소리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며 고개를 하늘로 들어 몸을 흔들며 찬양에 몰두한

성숙해진 모습을 볼 때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형성해 가며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숙해 가기 위해 내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혼란한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갖도록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가 깨닫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물가에 아이들을 내놓은 것 같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매일 우리는 세상이라는 물가에 아이들을 내어 놓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도록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며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인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하여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또한 주일 마다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하시며 말씀을 요리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영의 양식을 먹여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기 위해 말씀 쓰기 읽기 그리고 외우기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서신서 한권을

쓰는 project를 마쳤습니다. 순종하며 project를 마친 9명의 학생들이 좋은 상품을 받았습니다. 상품을 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참 기뻐했습니다. 토요일 마다 일주일 동안 읽은 말씀을 점검하는 성경 카드에 자기가 읽은 장수들을 지워 갑니다. 매주 최고의 다독 자에게 작은 상품을 주어 말씀을 읽는 기쁨도 맛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장도 읽지 못한 학생들도 적용 부분에 꼭 말씀을 읽을 것을 다짐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한 주에 한 요절을 외우게 하는데 앞 다투어 먼저 외우겠다고 “I am done!” 하고 손을 들며 저를 기다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이 벅칩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 엄청난 다니엘 project를 마친 학생도 두 명이나 있고 또 다른 두 명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은 주말에 교회에서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주일 내내 각 가정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좋은 학업 성적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종류의 특기 교육을 시키기에 바빠 움직이며 아이들을 최고로 키우기 위해 우리는 노력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능력 있는 탁월한 사람들로 키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실력자들로 세워 질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대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낳고 또 낳는 영적 산실이 되길 소원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 할 때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새해



조유경 사모

우리는 가끔 지하철역이나 맨하탄 5th Avenue를 지나가다 보면 많은 무명 음악가들이 각종 악기를 가지고 나와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칼리비안 드럼부터 시작해서 여러 타악기와 바이올린 현악기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요. 심지어 42가 Subway station에는 시끄러운 트레인소리에도 불구하고 종종 기가 막힌 바이올린과 비올라 연주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리의 악사가 워싱턴 전철역에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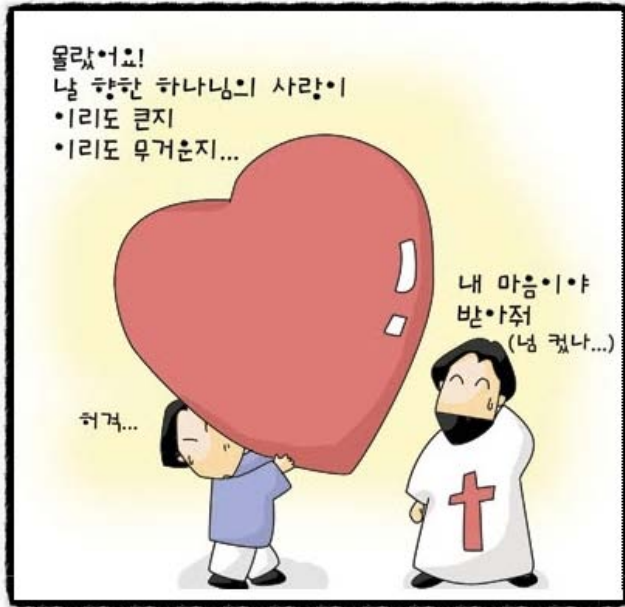
2007년 1월 12일 금요일 러시아워인 오전 7시 51분, 청바지와 긴소매셔츠 차림에 Washington National Team 야구 모자를 눌러 쓴 한 청년이 바하 작곡의 샤콘 D단조를 위시해서 총 6곡을 45분 동안 연주했습니다. 그가 연주를 하는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그의 걸을 지나갔지요. 그러나 바이올린을 켜는 청년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연주를 시작한지 3분쯤 되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그를 응시하며 걸음을 천천히 걸어오다가 멈추고 서서 잠시 듣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분 후 어느 여인이 1달러 지폐를 한 장 던져주고 멈춰 서지도 않은 채 지나갔습니다. 몇 분 후, 한 남자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음악을 듣다가 손목시계를 보더니 놀라면서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10분 후 세 살짜리 남자아이가 청년 앞에 멈추어 서자 아이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청년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멈추자 이번엔 더 세계 팔을 잡아끌고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서너 명의 아이들이 그를 보기 위해 가던 걸음을 멈추었으나 예외 없이 부모들에 의해 끌려 가버렸습니다.

청년은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 그 이후로 불과 6명의 사람들만이 멈춰 서서 조금 듣다가 가버렸고 20명의 사람들이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가 끝났을 때 아무도 박수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사람들이 던져 준 총 \$32를 챙겨서 그 자리를 떠났지만 아무도 그가 자리를 뜬다는 것을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350만 달러짜리 1713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였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Joshua Bell 이었지요. 그가 전철역에서 연주하기 삼일 전 Joshua Bell은 Boston's Symphony Hall에서 만석이 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의자 한 석당 \$100 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매진되었던 것입니다. Joshua Bell이 전철역에서 연주할 때 1097명의 사람들이 그를 스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7명의 사람들만이 멈추어 서서 그의 연주를 들었고 그 중에 오직 한명만이 이 연주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실화는 Washington Post 지가 마련한 사람들의 인지능력과 취향, 그리고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한 사회적 실험이었습니다. Joshua Bell의 똑같은 연주를 하나는 무료로, 또 다른 하나는 무려 \$100이나 주고 봐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 전철역에서 누군가가 그를 발견하고 “와! Joshua Bell 이다.” 하고 크게 소리쳤다면 그 장소는 삼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가 되어 혼잡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유명한 연주자가 거금 350만 불의 훌륭한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더라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일찌감치 와서 자리 잡고 그의 연주를 들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기치 않았던 장소에서 상식을 깬 연주를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귀로 직접 멋진 연주를 듣는 데도 불구하고 가려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토록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켜는 음악조차 바로 옆에서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다른 귀한 것들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며 놓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론 평범 속의 진리를 우리는 외면하기도 하고 정말 귀한 일,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일을 제일 나중에 하려고 제쳐놓기도 합니다.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것을 알면 그 땅을 사려고 모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땅을 알면 조용히 가서 자기 소유가 되도록 만들지요.

바야흐로 2011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차게 새로운 이 한 해를 살려고 뭔가를 계획도 하시고 마음에 결심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보화를 알아보는 것, 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크게 임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일공동체로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강세훈 전도사

할렐루야!

강세훈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일 공동체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벌써 오래전 부터 알아왔던 것처럼
안아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따뜻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도 그저 지나치심 없이 반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곳이 혹시 고향이
아니었나 하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늘 목사가 되겠다는 단 한가지 소원으로 살았습니다.

늘 당당하게 나는 커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시고 부르셨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꿈을 드렸고
그렇만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잘나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
걸음을 지키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인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후회만이 남는다 하시던 한 어르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도 항상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걸음걸음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또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말이 앞서지 않아야 하는데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꿈을 복되게 하셔서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일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더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자라나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예일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열심으로 신앙 생활 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일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일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든든하고 좋은 사역자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큰 쉼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저희 가정도 끊임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 창립 17주년 기념예배와 임직식



임직자 일동과 참가 목회자들

2010년 5월 16일 오후 5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창립 17주년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가졌다. 이 예배를 통해 안수집사 12명과 시무권사 16명이 임직을 받았다. 창립 17주년 감사예배에는 한국에 파견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선교사의 증손자인 요한 언더우드 3세 목사가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감사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어진 임직식에서는 임직하는 28명의 임직자들에게 참가한 목회자들이 베푸는 안수식이 거행되었다. 권면의 말씀과 답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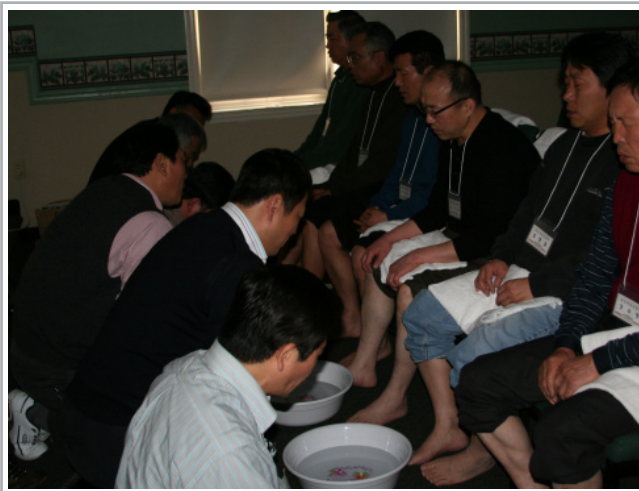
언더우드 3세 목사님과 말씀을 통역하는 김종훈 담임목사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굳건한 기둥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직원자 전인치유 수련회에서 목사님의 권면



임직식 전경



세족식을 하는 피택 안수집사들



안수를 준비하는 목사님들과 피택권사들



세족식을 하는 피택 권사들



임직자 대표에게 임직패 수여



취임 안수집사들



휠체어에서 안수받는 임직권사



집사 안수식



권사 안수식



2001년에 한국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권사의 취임



임직 권사들을 대표해서



101 제자훈련 **하나님 사랑합니다**



박기식 집사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옮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101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최고의 지식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예일장로교회에 처음 발걸음 한 때가 작년 8월경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되어가는군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한 저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계신다는 소중함을 잊은 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늘 하는 생활습관처럼 어떠한 기쁨도, 주님을 향한 마음도 없었던 저에게 101 제자훈련을 하면서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조금씩 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들어오심을 느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속으로 “하나님을 늦게 만났으니 열심히 믿고 봉사도 많이 해야지” 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01 제자훈련을 하면서 문득 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내 생각, 내 주관에 따라 하나님을 내 멋대로 섬겨왔구나” 하는 생각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왜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전에는 주님의 소중함을 알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가? 나의 이번 제자훈련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저를 항상 미소를 띠시며 사랑으로 가르쳐주시는 조태성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해주셨고, 또한 주님이 계획하신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1 제자훈련을 통해 매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고, 예전엔 그냥 짜증내거나 투덜거렸던 일들도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냥 웃어넘기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이제야 다시 깨달은 것이 이 곳 예일장로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긍정적인 생각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과 같이 미지근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겠지요.

101 성경 공부를 통해 그 동안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운 것을 행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기 보다는 ‘나만 예수님 만나면 되지, 나만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라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시며, 내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자랑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기쁨이신 주님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만 사랑을 고백했던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훈련과 공부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하며,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뉘어줬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성경공부를 하면서 또 한 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처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제목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고, 제 삶을 늘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에 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며, 제 아내에게는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웬지 쑥스러워 잘하지 못하던 “하나님 사랑합니다.” 를 이제는 매일 표현합니다. 주님은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01 제자훈련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해야 할것 같아**



심도현 집사

‘아빠, 저 예일 장로 교회로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주어진 질문에 한동안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가족이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아직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래, 그런데 지금까지 잘 다니던 교회에서

왜 떠나려고 하니?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예일장로교회니?’ 조금 정신을 차리자마자 연발총처럼 14살 어린 딸아이에게 이것저것 따지듯이 쏘아 붙였다. ‘아빠, 죄송해요. 우선 아빠, 엄마는 교회를 못 떠나잖아요. 하지만 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 신앙을 더 자라게 하고 싶어요. 지금 이 교회는 저의 그런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예일장로교회는 우리 집에서 비록 거리는 멀지만, 너무나 좋으시고 훌륭한 전도사님이 계셔서 많은 학생들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고,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 한대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아빠 허락해 주세요.’

아이의 답변은 너무나 냉철하고도 분명했다. 지금도 반짝이는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어지간해서는 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나로서도 어떻게 아이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고작 역정을 내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너 마음대로 해라. 대신 난 절대로 아침마다 너 교회로 못 데려다 준다. 그것만 명심해!”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준비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서 들쭉하고, 곱고 바르게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잔잔히 물결친다. 절대로 차로 데려다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나 자신도 많이 변했나 보다. 대학 SAT 준비하랴, 선교 훈련을 받느라 애쓰는 아이가 안쓰러워 때때로 아내와 함께 밤늦은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예일 장로교회에 한 발짝씩 들여 놓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찾아 왔다. 어느 때처럼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아이가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아내가 찾아보겠다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내도

나오질 않는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연속해서 휴대폰의 단축 버튼을 눌러대기 시작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아내와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 어떤 위엄과 심각함이 그 모습 속에 배어 있었다. ‘도대체 뭐하고 있다가 이제 온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보통 때라면, 투덜거리는 나를 보면서 뭐라도 한 마디를 쏘아 붙였을 아내인데, 아무런 말이 없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보인다. 아니 눈물이 고여 있어서 금방이라도 주르륵 흘러 버릴 것 같았다.

‘자기야,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 우리는 껌데기로만 크리스천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 아무 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들이,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영어로 또는 알 수 없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면서, 아내도 바깥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나온 것 이었다. 집으로 오는 한 20여분 동안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느끼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예일 장로교회의 새 가족이 되게한 이야기의 전모이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 마치 아주 오래 전에 이미 다녔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좋다. 더욱이 이제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좋다. 아이들과 함께 같은 교회의 사정들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찬양하며 울동할 수 있어서 좋다. 주변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우리 가정의 기도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다. 너무나 좋으신 목사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갈 수 있어서 좋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의 성호를 목청껏 찬양할 수 있어서 좋고,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더불어 할 수 있어서 좋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지만, 함께하는 동안 신나게, 정말 기쁘게 내 자신을 키워 가고 싶다. 내 아이의 바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곧게 펴서 푸른 잎사귀와 맛있는 열매를 내고, 그 울창한 그늘 숲 아래 나처럼 지치고 의지할 곳 없는 영혼들이 마음껏 쉬게 하고 싶다.



101 제자훈련 치료하시는 하나님



김지애 집사

먼저 저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공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에게 있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둔 세 자녀의 엄마입니다. 큰딸은 아토피가 없었으나 둘째딸 다인리와 셋째인 아들 효근이가 생후 100일 이후로 아토피로 크게 고생하고 있던 중에 김영애 집사님의 인도로 예일장로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셋째인 아들은 얼굴이 가려워서 자기 손으로 얼굴을 긁으면 얼굴에 진물이 나고 피가 날 정도로 심해서 교회에 오면 모든 교인들이 보고 안타까워할 정도였습니다. 가려워서 긁으면 더 상처가 심해질까 봐 신생아처럼 손과 몸을 꼼꼼 묶은 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이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꼼꼼 묶여있는 효근이를 보고 안쓰러워 우시면서 효근이 손을 풀어주시면 효근이는 얼굴이 가려워서 긁고 그러면 피가 나고 저는 다시 묶고, 부모님은 아이가 묶어놓으면 자라지 못한다면서 다시 풀어주시고, 아이는 다시 긁고, 손을 풀어주시는 부모님과 그 손을 묶는 어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둘째 다인리는 얼굴에는 아토피가 없었지만 몸에 아토피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는 30분마다 깨서 긁고 울고 저는 못 긁게 하느라고 그 손을 잡고 다인리는 그 손을 뿌리치고 피가 나도록 긁고, 울 때마다 로션과 약을 바르고 가려운 부분을 얼음찜질 해주었지만 아이는 괴로움에 괴성을 지르고 밤마다 심하게 울었습니다. 하루에 2-3 시간밖에 잠을 못자는 다인리는 몸이 심히 마르면서 성격도 예민해져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밤마다 괴성을 지르는 다인리를 보시고 밤마다 보혈찬송을 부르라고 하셨고, 목사님 심방을 꼭 받으라 하셔서 심방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안수기도를 받았고 7선교회에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은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셨기에 그곳에도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6개월 만에 하나님은 효근이와 다인리의 아토피를 치료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효근이와 다인리가 뽀송뽀송한 얼굴과 몸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묶어놓으면 안 자란다면 효근이는 그 누구 보다 더 크고 튼튼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4장 5,6절) 이 말씀은 저의 가족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랑을 체험한 저희 부부에게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공부의 기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지만 그 믿음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상태였습니다.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교사로 봉사했지만 늘 하는 습관처럼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일장로교회에 와보니 교인들이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혜 집사님과 함께 시작한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 아이를 재운 후 조용히 일어나 제자양육 숙제를 하며 육아를 핑계로 오랫동안 놓았던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렵기만 하던 성경말씀이 꿀 송이처럼 달며 어느 베스트셀러책보다 재미있어 그 내용이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속 깊이 느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그 심정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쫓간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면서 예일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에 제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안쓰럽고 불쌍하게 생각되며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70세이신 저희 친정아버지가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 협심증 수술을 받으셨고 이번에 또 병원에 가셨는데 심장의 나빠진 부분이 수술하기에는 위험한 부분이라 손을 댈 수 없다고 병원 측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기도를 응답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세상이라는 험난한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 배의 키를 잡고 운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며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많았으나 이제는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 기쁨을 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하나님의 비밀한 약속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직업에 있었는데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을 전도할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하고 힘이 없어 늘 넘어지기 쉬우나 하나님께



101 제자훈련 **하나님은 왜 저를 미국으로 인도하셨을까?**



최주영 자매

어렸을 때는 누구나 막연하게 한번쯤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꿈꿔 본 적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단 한번도 이 부분을 놓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거나 기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배우자 기도를 했을 때도 이와 관련된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계획과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미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미국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적응도 채 하기 전에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출장을 가서 주말에서야 집에 돌아오는 일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운전도 할 수 없고 차도 없었으며 정말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눈뜨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잠을 청해야 하는 것이 너무 외롭고 그럴수록 한국에 대한 향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미국으로 인도하셨을까?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보고 원망도 해보고 한국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사정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미국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지인의 이야기도 그 때는 저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 “내가 한국에서 믿음생활을 잘 못했단 말인가?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말아야” 하는 생각으로 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노력하는 중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광야생활이 힘들어서 다시 애굽의 종살이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매너리즘과 지칠대로 지쳐 잠시나마 쉬고 싶었던 한국에서의 직장생활과 각박한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며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하는 제 모습과 너무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너무 감사가 없었구나” 미국에 오기 직전 하나님께서 미국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조금해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생각하니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후 영어를 배우러 학교도 다니기 시작하고 면허도 취득하고 운전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곳 생활에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옮겨주셨는데, 특별히 한국에서부터 성경공부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은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잠시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 사실상 이번 제자훈련을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몇 주 늦게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교회다니는 새신자의 마음으로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첫 성경공부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매주마다 주일설교 요약, 성경구절 암송, 성경읽기, QT 그리고 연습 등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이었지만 어느새 그 모든 것들이 습관처럼 자리하여 저에게 조그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속성,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도의 삶 등이 성경말씀으로 통하여 체계적으로 머리 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 제자훈련 전에는 성경말씀으로 읽으면서도 딴 생각도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읽을 때가 많았으며, 성경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기도나 감정에 더 치중했던 모습이 자칫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성경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온전히 말씀을 깨달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깊고 넓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큰 변화는 말씀을 읽거나, 설교말씀을 듣고 단지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대일 제자훈련 성경공부 시간마다 목사님께서 항상 적용한 예를 들게 하셨는데, 이제 좋은 습관이 되어 QT 또는 성경을 읽고 난 후 깨달은 말씀에 대해 적용하고 또한 적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미국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보다 깊고 넓게 교제하기 원하셔서 미국으로 부르셨음을 깨닫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교만했으며, 하나님



교육

은 저에게 과분한 축복을 주심에도 감사하지 않았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영적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제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으며,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고도 주말에는 어김없이 밖에 나가 바쁘게 생활해야지만 활력을 느꼈던 한국 생활을 접게 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워야만 마음이 편안하며 그 계획대로 되어야만 하는 강박관념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심으로 제 힘과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단조로우면서도 소소한 일상을 통해 여유로운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훈련의 마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QT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통한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 제자훈련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고양숙 집사

우선 나에게 훈련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중에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어 훈련을 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쓰면서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 나는 훈련에 대한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했었고 막연하게 해야 할 의무로만 받아 들였었습니다.

나름대로 모태신앙인으로서 오랜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201제자훈련을 통해 영적인 훈련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게 되어 내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에 대해 알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훈련 받은 집사님들과 교회 공동체에서의 따뜻한 우정을 느끼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정이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매주 훈련이 끝날 때 마다 서로의 기도제목을 내어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역시 201 제자훈련의 기도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 한 주 큐티를 묵상하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이제까지 나를 고집하고 갈등하던 내 자아는 사라지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특히 매주 주어진 필독독서를 읽으면서 내가 믿음생활에서 부딪히고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답을 보는 것 같이 쉽게 풀려져서 내 마음이 시원하고 뻥 하고 뚫리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놀라운 책들이었고, 나의 믿음의 내면을 들여다 보게 해주고 단단하게 다져주는 정말로 귀중한 책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이상 머뭇거리고 방황하지 말고 자유로의 길을 밝히 비춰주고 인도해주는 등대와 같은 201 제자훈련을 꼭 받도록 믿음의 친구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훈련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숙히 박혀있는 쓴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훈련중에 목사님께 자녀와의 갈등으로 내가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노엽게 만든 것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을때 목사님께서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마음에 담은 상처에 대해 대화하고, 기도하고, 쓴 뿌리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자녀들을 불러 놓고 그동안 자녀들에게 엄마라는 이름으로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이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도 울면서 마음에 담아놓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노여움의 쓴 뿌리를 제거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족 모두를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전보다 자녀들을 더욱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들과 더 가까워 지게 되어서 나에게 감사가 살아나고 기쁨과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지 2년 반이 된 지금 201 제자훈련을 통해 나의 믿음과 인격을 더욱 성숙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외롭고 험난한 미국 생활이지만 믿음의 형제들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자신감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같은 마음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주님 성전에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01 제자훈련 인도하시는 하나님



김순영 집사

먼저 201 제자훈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태신앙으로 평탄하게 살아왔던 우리부부에게 미국에서의 삶과 신앙생활은 척박하고 메마름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에서 절실함을 느껴갈 때 쯤 하나님은 우리부부를 예일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새 가족 교육을 시작으로 101 그리고 201을 마치며 숨 가쁘게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니 우리 부부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짧았던 13주 동안의 목사님과 성도님들과의 교제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황폐한 나의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었고, 부족하고 연약한 곳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쁘다 바쁘다 하지만 우리 생활가운데 참 많은 시간들이 그냥 낭비되고 흘러버렸음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 앞에 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교요약을 위해 운전할 때마다 듣던 목사님의 설교말씀은 나의 삶에 생수와 같은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아무리 여러번 들어도 질리지 않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훈련을 통하여 달라진 점은 일기쓰기와 기도노트입니다. 훈련을 받던 중 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쓰기 시작한 일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되었고, 기도노트를 적으면서 여러가지 기도제목들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게 되어 나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교육을 마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우리부부는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이번 훈련을 통하여 모태신앙의 미지근함을 던져버리고

변화하자고 매번 다짐을 하였습니다.

큐티시간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의 삶에 반영하고 적용하는 훈련은 어렵지만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고,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해지라고 한 말이 나에게 하는 말로 다가왔으며, 시편 37편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201을 마치며 시원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과제물과 늦은 저녁까지 받은 교육, 추수감사절 행사 등으로 저녁시간을 아이들과 더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한 감도 있지만, 같이 13주간 공부한 동기생들은 어느덧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목사님의 비전은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201 제자훈련 제자훈련의 설레임

박복임 집사

101제자훈련을 마친 후 곧 있을 201제자훈련이 기다려졌습니다.

지금껏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었기에 101제자훈련의 감동이 201제자훈련의 설레임으로 다가왔습니다.

201훈련을 마치신 많은 분들이 숙제가 많다고 부담을 주었지만 201을 하는 동안 숙제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도전이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첫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주 부터 시작된 내적, 외적, 단체훈련을 통한 교육이 시작되면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묵상, 기도, 금식, 학습의 내적훈련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훈련을 받는 집사님들의 상한 마음의 치유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던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갈망할 때 마다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웃으셨던 것입니다.

단순성, 홀로있기, 복종, 섬김의 외적훈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일깨워준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파인애플은 무엇인지 깨달았던, 하나 하나 세밀하게 일깨워 소책자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셨던 집사님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야기를 항상 세심하게 들으시고 조언해주시고, 귀한 말씀들로 채워주셨던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 예배, 인도, 축전의 단체훈련을 통하여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자세와, “하나님께 굽주린 예배자” 책을 통하여서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201 교재가 점점 얇아질수록 안타까움이 몰려왔습니다. 201제자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난

어떠하였을까? 유치원생에 머물 수 밖에 없는 나의 믿음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시켜준 고맙고도 감사한 201훈련...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을 통하여 받은 훈련이 지속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 가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 **예일의 새가족이 되기까지..**



유성민 집사

참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라는 주님의 집은 어디나 똑같다며 어느 교회이건 열심히 믿음 생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이민생활을 한지 훌쩍 10년이 지나면서 나도 어느새인가 나에게 맞는, 아니 더 나아가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를 찾고 있으니 말이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방송 봉사를 하며 작지만 나름대로 선교라 생각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인 쌍둥이(예진,은혜)의 주일학교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사실 저번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학생수나 시스템에서 많이 부족한 상태라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신념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그즈음 쌍둥이들은 언어 쪽과 행동 발달 쪽으로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유치원 과정도 2년째 다니고 있던 터라 쌍둥이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며 교회에서라도 또래 아이들과 많이 이야기하며 부딪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던 때였다. 또 기도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만이 올바른 선택입니까? 저만의 욕심이 되지 않게 지혜를 주세요...” 사실 이 시간 고백컨데 나의 지나온 삶은 정말 주님의 계획대로 기도의 응답대로 채워졌음을 고백한다.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에 휩쓸려 나쁜 짓을 하고 다닐 때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심을 특히 요즘 예일교회를 다니면서 늘 감사함으로 생활한다.

신혜선 집사(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교회를 찾기도 했다. 하지만 그냥 한번 가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곁에 갈 때까지 함께하는 교회를 찾자고 약속했다. 먼저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정보지를 통해 한 주에 한 교회씩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7월초 주일날 어느 모 교회 11시 대예배에 늦어서

11시 30분에 시작하는 예일 교회를 그 날 알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나는 저번 교회에서 하던 일들을 인수인계 하던 터라 같이 아내와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 날 주일 저녁 아내는 첫 날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아이들도 너무 맘에 든다고 해서 사실 난 가보지도 않고 맘속으로 예일교회로 결정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뛰시며 끝까지 솜사탕을 만들어 주시는 집사님들의 모습들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아무튼 저번 교회의 인수인계가 끝나고 8월에 들어서 맛 본 예일의 첫 인상은 한마디로 살아있었다. 모든 교인들의 표정이 살아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가 살아 있었고, 목사님의 말씀 또한 살아 있었다. 그런 분위기속에 서 있는 나 스스로도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다. 그런 분위기와 기분들이 자연스럽게 목장예배나 선교회에 적응하게 된 것 같다. 5주간 계속되었던 새 신자 교육도 기다려졌고 여러 가지 교회행사도 기다려졌다. 특히 새 신자 교육 마지막에 이루어졌던 종강파티도 그 옛날(?) 고 3 수험생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를 할 때처럼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느낌까지 받은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심방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일인 이 교회에서 주님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한다. 또 새 신자 종강파티에서 고백했듯이 주님이 맡겨주신 4명의 아이도 주님을 위한 도구로 쓰여 질 수 있게 열심히 키울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기도한다. 또한 이 글을 통해 감사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고백하건데 새 신자 교육 때도 선교회에서도 또 목장예배에서도 어디서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적응하게 도와준 박용훈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목장모임 때에도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형제같이 아껴주신 김종수 집사님 내외분과 김영자 권사님께 진정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난 오늘도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예일 성도들 모두가 있을 것을 기도한다.



Mission Nicaragua

Volume 1, Issue 6

November 2010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롬 10 장 13 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은혜와 감사속에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없는 이 곳 니카라과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들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지난 11 월초 영민이가 학교 차량진입 금지 구역에 진입한 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약간의 찰과상과 부은 것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16 일에는 남들은 20 번이 넘게 드나들며 속을 썩인다는 영주권을 선교사 중 가장 속성으로 받았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또 기도해 주신 응답이라 여기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저의 첫 사역으로 니카라과 장로교회 어린이 찬양대를 36 명의 어린이들로 조직하여 현재 주 2 회씩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언어문제는 김연희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지도하여 내년 2 월 마사야 전도대회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발인 차량문제도 예일 교회의 기도와 사랑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일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잔금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추워지는 12 월에도 주님의 사랑안에서 따뜻한 계절되시기를 기도드리며 니카라과의 사랑을 전합니다.

2010 년 11 월 30 일

니카라과에서 선교사 김인선, 신유선, 하민, 영민드림

Email : revkimisun@gmail.com

기도제목

- 1 저희 가족의 건강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 2 언어 훈련이 잘 될수 있도록, 지혜가 충만하도록
- 3 어린이 찬양대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잘 준비되도록
- 4 자동차 구입후 부족한 잔금이 채워지도록



주님을 기다리며..

필리핀 박인호 선교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혹시, 성경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없는 목사님, 성경이 없는 교회 어르신들, 성경이 없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 성경이 없는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소위 개신교의 태동을 주도했던 1500년대 초, ‘마틴루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당시 소위 귀족층과 성직자들만이 소유하고 읽었던 라틴어 성경을 그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성직자들의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됨으로 오늘 날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습니까? 약 130여 년 전 심한 박해로 인하여 조선 땅에 복음 전파가 어려울 때,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주 미미하게 ‘중국어 성경’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John Ross를 통해서 조선 땅이 아닌 만주에서 한글로 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1446년에 창제 되었지만, 400여년 이상을 거의 죽은 글자처럼 양반들은 사용하지 않고 평민들에게 미미하게 사용되어 왔었는데, 이러한 한글로 마침내 성경이 처음 번역되어 모든 이들이 쉽게 배우고,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어느 선교 역사에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한글 성경을 통해 일어납니다. 선교사가 아닌 한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조선인들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최초 교회인 소래 교회가 황해도 장연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한글 성경을 따라서 얼어붙은 우리 대한민국이 깨어나고, 100여년이 흘러 마침내 오늘날 저희 손에도 한글로 된 성경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한글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물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기억되지만, ‘한글 성경 번역’ 이야말로 한글이 비로소 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한글 성경이

아닌 영어 성경만 있다면 어떠할까요? 물론 한글보다 영어가 더 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민 오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 살면서 언어의 불편함이 어떤 것인지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익숙한 영어와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저희의 모국어인 한글로 된 성경, 즉 저희 영혼 깊은 곳을 두드리는 저희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저희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까닭은 아마도 우리 글로 된 성경을 든든히 붙잡고 있음인 줄 믿습니다.

통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전 세계 약 225개의 나라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을 포함해서 약 2,600여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민족이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축복받은 나라도 있지만, 한 나라에 표준어가 있어도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나라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가 약 1,100여개 된다고 하니, 아직도 약 1,500여개의 언어가 성경 번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계산하면 현재 약 4억 명이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한 저희 부부는 플로리다 주에 있는 ‘위클리프 (Wycliffe) 성경 번역 선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 기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기 위하여 1942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600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아직도 약 6,000여명의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 성경 번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에서는 성경 번역을 위하여 우선 언어학을 공부한 선교사들을 특정 지역에 파송하여 현지인들과 오랫동안 똑같이 생활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조사하고



기도가 모아지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서서히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책을 쓴다든지 번역을 하여 출간을 하면, 작자라든지 번역자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러분의 성경에 번역자의 이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전혀 남지 않는 일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이라는 사역이 단순하게 번역하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번역을 위해서 글이 없는 그 곳 사람들에게 세종대왕과 같이 ‘글’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든 글을 그들이 읽고, 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주민들과 언어를 배우고, 글을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같이 공부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자를 양육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도 세웁니다. 학교도 세웁니다. 그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의 필요에 따라 진료를 위한 병원도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일로 모든 일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한글 성경이 그래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성경을 수정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비로소 성경과 함께 한 언어에 속한 주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언어마다 역사와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 언어가 담고 있는 깊은 배경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 이라고 말씀 하시죠. ‘떡’이라는 평범한 단어가 사용 되는데 KJV는 ‘Bread’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read는 ‘빵’ 입니다. 그런데 130여 년 전 조선에는 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서 빵과 흡사한 의미와 역할을 조선인에게 하는 ‘떡’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빵’이나 ‘떡’이라는 단어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 중요한 표현인 ‘생명의 떡’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언어에는 ‘떡’ 대신 그 부족에게 유사한 의미의 역할을 하는 ‘고구마’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다고 합니다. 즉 ‘생명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고구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그 부족의 언어뿐만 아니라 깊은 생활 습성과, 생각까지도 이해해야만 번역다운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단시간에 한 개인의 특출한 능력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다양한 선교사들의 절대적인 헌신과

저희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등지에서 성경이 그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로 아직도 번역이 안 된 종족들을 품고 다양한 선교사들이 연합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7,107개의 섬으로 된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아등에 비행기 또는 배로 가장 단 거리로 출입이 가능한 ‘민다나오’라는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는 저희가 목적하는 지역과 가까운 반면에, 필리핀에서는 유일하게 오랜 역사를 두고 이슬람교가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독특한 곳이어서 매우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이슬람교도들이 필리핀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군과 이슬람 자치 군대와 전쟁이 계속되는 곳이고, 또한 외국인을 납치하여 세계의 주목을 끌며, 몸값을 받아내는 일을 너무 쉽게 저지르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비록 민다나오라는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행동반경은 아주 근 거리에 불과할 정도로 모두들 조심을 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선교

이러한 곳에 성경 번역을 위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파송된 다양한 선교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의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설립하고,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 자격을 갖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 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건축 전문 선교사도 있습니다. 열악한 교통 상황 속에서 선교지의 출입을 용이 하도록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교통 행정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자료를 선교지 가까이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전문 사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사역처럼 성경 번역 및 제반 모든 일들을 Computer로 신속하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IT 담당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번역을 위하여 참으로 다양한 선교사들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주님 앞에 헌신된 선교사들이고, 이러한 헌신이 모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사역은 ‘동원 사역’ 이라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동원 사역’ 이 계속해서 뒷받침 되지 않으면 현지 선교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담당하는 사역이 지역적으로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한 가지도 빼 놓을 수 없는 꼭 필요한 사역들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 22:7)라고 말씀 하십니다. 올림픽 단거리 세계 최고 기록자인 자마이카의 ‘볼트’ 는 100m 를 10초 이내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 ‘볼트’ 라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갈게요.’ 라고 말했다면, 무엇인가 빨리 서둘러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 (벧후 3:8) 이십니다. 가장 빨리 달린다는 볼트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천년이 하루 같으신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박하게 오시리라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될 때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 모두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하며,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동역자이며,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임인 줄 믿습니다.

130여 년 전에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John Ross 가 지금과 같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한글로 된 성경을 읽게 될 것이라고는 그 당시에는 아마 미처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한글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 안에서 이렇게 변화 될 줄도 미처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성경 번역 사역은 단시간 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정말 길고 인내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주의 백성들이 주 앞으로 돌아 올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 헌신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일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저희가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 합니다. 특별히 이 외딴 곳에서 세상적인 염려로 인하여 뒤를 돌아보기가 쉽지만,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만 바라 볼 수 있게 해



자녀

- * 믿음이 더욱 더 성숙해 지도록
- * 학업과 진학을 위하여
- *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박인호선교사로 쓰셔서 현금시간에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예일 교회가 여러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언어로 번역이 되어 세상 끝까지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더 힘 있게 사용되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현지 사역을 위한 기도 요청

성령 충만을 위하여

- *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 *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도록

IT 사역

- * 지혜가 충만하도록
- *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하나가 되도록
- * Computer System이 잘 운용되도록

Local 사역

- *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섬기도록
- *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도록
- * New Spirit Program이 확장 되도록

후원자

- * 기도의 동역자가 채워 지도록
- * 후원금이 채워지도록

현지 생활

- * 차량 구입을 위하여
- * 현지 언어 습득을 위하여
- *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볼리비아의 미래를 위한 어린이 선교를 하면서

윤도근 선교사

할렐루야!

고산 선교지(4,000m)에서 22년차의 선교 사역은 뉴욕 예일 장로 교회의 김종훈목사님, 당회원들, 해외 선교 부장님, 어린이 구제 선교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로써 맺혀진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볼리비아의 겨울 날씨가 지나가고 봄철로 접어들면서 따뜻한 기운을 나타내며, 예보 모탈레스 대통령이 고국을 방문하면서 고국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저희 고산 선교지의 인디오 원주민 선교 사역도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교육관 건축이 이제 마지막으로 4층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의 인상과 인부들의 불상사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금년 안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9월부터 어린이 구제 선교가 잉카 선교회의 후원으로 331명(소망 117명, 생수 148명, 예루살렘 66명)의 어린이들을, 국제 선교부의 후원으로 691명(임마누엘 271명, 생수 291명, 소망 129명)의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볼리비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군사들로써 잘 양육 되어가고 있으며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7월 18일 생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창립 18주년, 생수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를 300여 원주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아름답게 치를 수 있습니다. 8월 22일에는 소망 교회에서 350여 원주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소망 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예배후 성경 고사 대회를 마치고 선물도 나누어 주었으며, 개 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친교를 아름답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7월 30일 임마누엘 장로회 신학교 2학기 개강 예배를 네 분의 교수들과 15명의 신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소망 교회에서 잘 드렸으며, 신학교 건축(3층 계획) 허기가

시청에서 나오는 대로 시작하고자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가운 소식은 동역 선교사로 사역할 최광주목사님 부부가 성은 교회에서 9월 26일 파송 예배를 드리고 10월 19일에 이곳 고산 선교지를 향하여 오기 전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음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린 최광주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선교 후원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동역자님들과 교회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더욱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고산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와 사랑의 후원으로 함께 하시는 뉴욕 예일 장로교회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도 제목

- 1) 어린이 구제 선교(총 1022명, 1인당 \$15후원/월)의 끊임없는 성장을 위하여
- 2) 임마누엘 장로회 신학교 건축(3층 계획, 각 층당 \$15,000 예산)을 위하여
- 3) 윤지열(만31세)군의 장래를 위하여

고산 선교지에서

윤도근, 박향림 선교사, 지열 드림.





나눔의 집짓기(Work Camp)를 다녀와서



이윤미 집사

아아 벌써 신록이 푸르른 여름이 다가온다. 오늘이 6월초이고 나눔의 집짓기 캠프는 왜 하필 7월 4일 이라던가 했는데, 날짜가 왜 이리도 잘 가는가! ...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 여름을 눈앞에 두고 어디를 가나? 아이들도 없이 일주일 동안의 조용하고 많은 시간들, 이 좋은 날들을 잘 챙겨서 휴식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나눔의 집짓기날 일정을 며칠 앞두고 개인사정으로 못 간다고 정전도사님께 말씀도 드리고... 생각만해도 참 행복하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정이 가까울수록 마음 한쪽에서는 초조하고 잘못하다 들킨 사람처럼 심장도 뛰며 여하튼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나를 위해 공범자를 만들기로 하고, 큰아들 영환이와 의논하면서 엄마 생각은 왜 내가 집짓는데 가야 하는지 또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나누기 위험이라는 이유도 부적절하며 정확한 목적을 못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올여름은 불참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안가도 괜찮을거라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가기전 일주일 전에 전도사님한테 말씀할 것을 결정하고 대화를 마쳤다. (그럼 그렇지 아들도 내편인데 하면서 내마음 한 칸이 흐뭇해진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날인 주일, 교회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8:1-13이다. 99마리의 양과 한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 또 험한 산과 계곡을 넘어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신다. 나의 귀와 마음이 솔깃하여 진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영혼이 WORK CAMP에서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메시지가 가슴에 새겨진다. 하나님은 전날들의 나의 생각과 내가 쏟아냈던 말들을 몽땅 다 엿듣고 계셨던 것이다.

이런 어찌나! 하나님께 다 들켰으니 오히려 더 잘됐지. 참석해야 할 목적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남은 한달을 준비하게 하신다. 참 재미있고 흥분이 된다.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주의 일을 이루실지 기대와 소망이 내안에 그득히 차고 넘친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고요한 음성으로 들려 주시며 주의 자녀인 나로 인해 나와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실족치 않게 하시려고 급하신 마음으로 당장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어리석은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셨다. 감사함과 회개의 기도가 저 아래 깊은 곳에서 부터 가슴 뜨겁게 올려났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드러야겠다는 전율이 나의 온 몸을 치받고 올라간다. 예배당

안의 주님의 십자가는 더욱 더 빛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큰아들 영환이에게 다시 WORK CAMP에 가야하며 하나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다는 것, 엄마가 너무나 경솔했고 어리석은 자였으며 나와 너의 영혼 구원 받은 것을 나누기 위해 가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얘기했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남은 시간 때우기 위해 봉사하러 가는것이 아니고, 또 편안히 살아서 남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있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엄마와 너를 주님의 증인 삼으실려고 보내신다고 얘기했다. 영환이가 이해하는지 고개를 끄덕인다. 확실한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너무나도 세밀한것까지도 들으시니까 항상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라고 서로에게 일러준다. 준비된 구원 받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곳 WORK CAMP, 드디어 도착 하였다. 도착한 주일날 저녁부터 찬양과 예배가 있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돌아온 탕자' 다. 월요일은 돌아온 탕자가 자기자신(SELF)이며, 화요일은 친구(FRIENDS)들이며, 수요일은 가족(FAMILY)이었다. 목요일은 믿음 (FAITH)에 대해, 마지막날 금요일은 FUTURE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 주일날 예배후 참가자들에게 월요일부터 나가서 봉사할 일터와 일할 성도들(학생 4-5, 어른 1-2)를 미리 정하여준 표를 보고 새로운 사람들(CREW)을 만나서 얘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전년도에는 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고역이고 너무나도 싫었는데 올해는 나도 모르게 호기심과 관심과 기대속에 새 CREW를 만남이 두렵지도 싫지도 않고 빨리 만나서 그들의 말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분명 이 마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것임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렸다. 다음날 월요일 부터 화씨 100를 웃도는 날씨임에도 하나도 덥지도 않았다. 페인트 칠하기 위해 스크래치하고, 능숙한 공중 서커스 단원처럼 높은 사닥다리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올라가야 하는 나의 고민을 같은 크류 (CREW)들은 모른다. 나의 팀은 나 혼자만이 어른이고 대학생 한 명과 9학년 10학년 11학년 그리고 12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어른인 나는 팀장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두개 밖에 없는 눈을 크게 뜨고 머리카락 숫자 만큼의 안테나를 사방으로 세워 놓고 신경을 써야 했다.

월요일이 가고 화요일, 수요일이 가는 동안 집 고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를 지난후에 생각이 나기 시작하였으며 어! ‘잃어버린 양’ 이 어디있지? 하면서 눈과 정신이 번득 뜨이게 되어 예배장소를 둘러보았다. 또 우리팀이 고쳐 주는 집주인 할머니와 할머니의 집을 궁금증과 함께 방문하시는 분들(무료집수리를 혜택받는 특권이 신기하여 방문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살펴 보았다. 우리교회 학생들은 당연히 모두 구원 받았고, 같이 간 팀들도 다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갈텐데... 도대체 어디있지 하면서 고개를 두리번 거리며 속소에 와서도 찾았지만 조용하기만 했다.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 아침이 되어도 ‘잃어버린 양’ 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묵묵히 오늘은 소식이 있었지 하면서 작아지기 시작하는 기대와 함께 인내심을 갖고 일터로 향했다. 우리팀은 할머니집을 별 어려움 없이 쉽게 고쳐갔고 누가 시키고 지시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학생들이 마음과 손발이 척척 맞아 일의 진행이 매우 순조로웠다. 10학년인 한 여학생이 유난히 열심을 갖고 불평없이 일을 하는데 고맙기 그지 없다. 팀의 다른 대원들도 협동하여 일을 하지만, 이 여학생은 15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을 알아서 찾아하는 다른 학생들의 할 일을 그릇치거나 못 하도록 방해하는 것 없이 열심히 일하는 행동이 나의 눈에 띄어 유심히 보게되고 칭찬과 격려가 절로 나왔다. 참 고마운 학생이네 하면서 오전 내내 집고치기를 하고 점심 시간이 되어 햄과 치즈, 썰어진 상추와 토마토를 빵에 넣어 맛—있는(^) 샌드위치를 각자가 만들어 먹었다. 영락없이 오늘도 화씨 100도의 날씨에 식곤증으로 인해 모두가 파절임이 되어 각자 편한 공간들을 찾아서 나름대로 30분의 휴식을 취한다. 어른인 나는 조금이라도 깨어서 학생들을 돌보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집을 고치기 시작하니 나흘째 되는 무더운 날이라 그런지 나도 나른해지고 늘어지기 일보직전이었다.

내일은 금요일, 내일이면 모든 일을 끝내고 헤어지는데, 하루만 더 보면 우리는 각자 살던 곳으로 가는데... 누구든지 식곤증에 빠지지 않은 학생이 있어서 얘기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그 10학년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다. 무거운 입을 열어 가족상황을 이야기한 후 집에 돌아가면 엄마를 모시고 자기 친구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를 다닐거라고 이 여학생이 말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 냉수마찰을 한듯 내 몸의 모든 신경이 파다닥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러면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냐고 질문하니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 다만 친구 따라서 놀러 교회에 갔다가 WORK CAMP에 오게 되었고 오히려 목사님의 딸인 친구는 봉사하러 못 왔지만 본인은 와서 집도 짓고 말씀도 듣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집을 고치는데 참석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한다. 오! 주여 이학생이었습니까? 그 준비된 영혼,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제 눈 앞에 있는 이 여학생, 일주일을 같이 지내며 일하던 저 여학생,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을 바로 제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더 보게 하시려고, 저로 하여금 분명한 확증을 갖게 하시려고 인도하셨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엇부터 생각하고 말해야 좋을지 순간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영혼 앞에서 주님께로 한발짝 더 인도하기 위해 초청을 하여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했다.

곧바로 이 학생을 초청하여 주님께서는 네가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하시며 너와 너의 가족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후 같이 열차 안고 기도했다. 또 너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다고 말해 주었다. 한달전 우리 목사님의 마태복음 18:1-13절의 한마리의 잃어버린양을 찾으셔서 무척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메시지가 바로 너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너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목요일 저녁집회에는 믿음 (FAITH) 이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연관된 사진을 보여 주었다. 많은 사진들 중에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을 찾으셔서 양쪽 어깨위에 둘러메고 즐거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는데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 사진까지 준비시키셨을까? 다시 한번 나를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한없이 고마울 뿐이었다.

우리 모두는 집 고쳐주기를 잘 완성하고 금요일 밤(콜로라도 주에서 운전하고 왔음)에 하산하였다. 아름다운 WORK CAMP는 우리교회 학생에게도, 다른 모두들에게도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을 갖게 하고 다시 내년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각자가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 크신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도미니카 단기선교일지

도미니카 단기선교팀

8월 2일 월요일

오전 3시 모두 교회 주차장에 모였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지만 모든 이들의 눈은 어느 때보다 더 빛나는 것 같았다. 어두운 주차장을 환히 비출 정도로... 모든 단기선교대원들이 도착하자 목사님께서 서로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하셨다. 34명의 팀원들과 그들을 배웅하러 온 가족들, 또 공항으로 운전해 주실 집사님들이 새벽 3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렸다. 공항에 도착한 후 문제 하나 없이 모든 짐을 부칠 수 있었다. 피곤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유효기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여권이었지만 제니스도 아무 문제없이 티켓팅 할 수 있었다. 오전 6시 공항 대기실에서 모닝커피와 맥도날드 에그머핀으로 간단히 아침식사를 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오전 7시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함과 동시에 피곤한 대원들은 눈을 감고 쉬기 시작했다. 3시간 정도만 가면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하게 된다는 기장의 말을 듣고는 나도 눈을 감았다. 10시 50분 정도에 산토 도밍고 공항에 도착해 모두 문제없이 짐을 찾고 나오니, 한요한 선교사님께서 자상하고 따뜻한 웃음으로 우리 모두를 반겨주셨다. 대절된 버스에 모든 짐을 싣고 바로 해변에 있는 곳에서 점심(도미니칸 특별식)을 들고 절벽 밑으로 보이는 파랗다 못해 청록색의 바다를 보며 모두 ‘와, 멋있다’를 외쳤다. 식사 후 한 시간 정도 운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묵을 숙소에 도착해 48개의 집을 유스그룹과 장년 팀이 함께 따으로 흠뻑 젖으며 2층으로 옮겼다. 그 후에는 각 사역별로 나뉘어 집을 정리하고 내일부터 시작할 사역을 돌아보고 연습하고 의논하면서 오후시간을 보냈다. 어느 사역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서로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때면 유스그룹이 기타반주에 맞춰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지내는 숙소를 울리고, 퍼져 그 음악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대해 물어보고 격려도 해주기도 했다.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어느덧 저녁때가 되어 식사준비를 마친 후, 바로 식사기도 하기 전에 전기가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다.

저녁 8시 저널시간으로 6개조로 나뉘어 모임을 가졌다. 스페니쉬 찬양을 하고 목사님의 인도로 첫 날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진지하게 열심히 쓰고

서로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숙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다. 9시 정도에 전기가 고쳐지고 물이 나오기 시작해 모두들 감사했다.

8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 반에 다시 식당으로 모였다. 로마서 1:14-20을 묵상하며 함께 큐티하고 나눔과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도미니카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되기를 모두 기도드렸다. 식사 후 모두 정성껏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도미니카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한다는 피넛버터와 젤리 샌드위치를 유스그룹 멤버들이 일일이 하나씩 만들었다.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그들의 손길이 아름다웠다.

오전 9시 오늘 첫 사역지로 가지고 갈 집을 다 실은 후 밧데이를 향해 떠났다. 도미니칸 의사 두 분이 함께 사역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못 오게 되어서 다른 한 분이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 버스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어느 누구하나 불평이 없었고, 유스그룹 멤버들은 서로 게임도 하면서 친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의사가 도착하자마자 함께 바스카 밧데이에 도착하니, 사용하기로 한 작은 학교 건물이 자물쇠로 잠겨있었다. 속히 신학생 미셀과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다른 장소에서 구원, 의료, 선물 스테이션을 셋업할 수 있었다. 유스팀의 인도로 찬양과 팬터마임을 시작해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나누어 주었다.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후 작은 선물과 선글라스를 들고 각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지와 함께 주며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다. 네 그룹으로 나누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유스그룹과 장년 팀들은 그들이 사는 형편을 보며 겸손해질 수 밖에 없었다. 오후 1시 반 부터는 그 밧데이 주민들을 현지 의사가 진찰하고 오현섭 장로님과 권미자 집사님 그리고 김미혜양으로 구성된 메디컬 팀이 일일이 약을 나누어 주었다.

밧데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3불 정도 이기 때문에 병원에 간다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또 이곳은



선교

약도 귀하고 그마저도 가짜도 많다고 한다. 안경사역팀으로 온 환자들은 조종희 장로님과 네 집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측정해 안경과 돋보기를 나누어 주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짧은 스페니쉬어 실력과 손발을 쓰는 바디랭귀지로 소통하면서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집사님들의 모습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도 향기로운 모습이었다. 숙소로 돌아와 권사님과 선교사 사모님이 만들어 주신 카레와 밀반찬으로 맛있게 저녁식사를 했다. 저널시간을 갖는 동안 한 노인 어른이 자신이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한테 주며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다고 하며 선글라스 하나 받은 것으로도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모두들 은혜를 받았다. 그 어렵고 힘들고 없는 환경 속에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어른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다.

8월 4일 수요일

오전 6시 반에 로마서 5:12-21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은 배우칼 밧데이로 1시간 20분 정도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이 밧데이는 선교사님께서 미리 방문하셔서 우리 선교 팀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곳이다.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의사와 안경사역을 하게 되니 더 마음이 간절하다. 배우칼 밧데이에 버스가 도착하자 마을 학교에 모여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있는 것을 보았다. 모두들 너무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어 우리는 이 밧데이 사람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다른 밧데이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중에 선교사님을 통해 알고 보니, 이들은 우리를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입고 우리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교회에 갈 때면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간다고 한다. 그들의 마음에 감격했고, 우리 선교 팀을 그렇게 맞아 주는 그들이 고마웠다.

도착한지 15분 만에 준비를 다한 유스팀이 구원사역을 시작했다. 찬양과 팬터마임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었고 유스팀과 몇몇 집사님들이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렸다. 이렇게 4번 복음전파를 하였고 200여명의 밧데이 사람들이 의사와 안경 스테이션을 방문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신 환자를 정성 다해,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집사님들. 떠나보내기 전에 각 사람에게 꼭 어울릴만한 옷을 나누어 주시는 집사님, “Jesus Te Ama!”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며 문까지 배웅하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대원들 모두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이 소중스러웠다. 모든 사역을 마친 후 3그룹으로 나뉘어 노방전도를 했다. 각 가정을 방문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해간 선글라스와 여름샌달, 학용품과 액세서리들을 나누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드렸다.

어느 한 밧데이 여자 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였다. 우리 선교 팀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드리는데 그 모습에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았다. 그 밧데이교회의 목사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부탁하셨고, 김종훈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선교대원들이 기도하는 중에 짧은 시간이지만 강한 성령을 체험했다고 간증하셨다. 밧데이를 떠나기 전 어느 한 노인은 우리 선교 팀이 이곳에 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며 꼭 다시 와 달라고 여섯 번이나 간절히 부탁을 하기도 했다. 선교 팀의 한 집사님과 목사님이 그 곳에 있는 열매를 드시고 그 독성으로 탈이 나기도 했지만, 모든 선교 팀의 관심과 기도덕분으로 감사하게 두 분 모두 빨리 회복하셨다.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서도 모두들 무사히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감사했고 모든 선교팀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담고 잠을 청했다. 처음으로 선교하는 곳이라 사역을 먼저 해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었다. 노방전도 중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서 약과 안경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며 반갑게 그들 집안으로 맞아주었다.

8월 5일 목요일

큐티의 본문은 로마서 6:6-13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서원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다. 마가리타 밧데이로 어느 날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향했다. 도착 즉시 그 곳의 교회는 의과, 안경, 선물 스테이션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구원사역은 교회 옆에서 하기로 하고 천막 2개를 쳐서 그늘을 만들고 흙이 고르지 않은 곳은 집사님들과 밧데이 사람들이 함께 고르게 했다. 곧 40여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찬양과 팬터마임, 구원의 초청으로 이어졌다.

이 곳 아이들은 선교사님께서 훈련한 신학생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한 곳이라, 아이들이 찬양도 크게 하고 열심히 듣기도 하였다. 3차례에 걸쳐 구원사역을 하고 오늘은 어른들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2명의 의사들과 바쁘게 손을 움직여 약을



처방해주신 의료팀은 앓을 시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정성껏 돌봐주었다. 안경팀의 조종희 장로님, 정수영 집사님, 박재우 집사님, 최형석 집사님, 강혜숙 집사님은 안경과 돋보기를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이 꼭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 모두를 축복해주었다. 특히 처음 안경사역을 담당하신 최형석 집사님의 놀랍고 뛰어난 기술은 이번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잠깐 시간이 나서 휴식을 할 때는 마가리타 사우나에 왔다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오늘 사역한 곳은 무척 더운 곳이다. 양철로 된 지붕은 열을 받아 바깥보다 20도 정도 더 더운 것 같았다. 그래도 눈 하나 찡그리는 사람 없이 모두 웃으며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소중하였다. 선물사역에서 하루 종일 서서 수고하신 지재홍 집사님과 스타일에 맞추어 옷을 골라주시는 김필중 집사님, 밧데이 아이들을 직접 안으시고 예쁜 옷을 입혀주시는 최정희 집사님의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한다. 일일이 각 스테이션을 돌아보시며 총 관리를 맡아주신 윤희주 장로님은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온유하게 섬기시는 마음으로 지휘하시는 모습이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30여 가구를 4조로 나누어 노방전도를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그들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기꺼이 함께 기도하였다. 각 집을 방문하며 선물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축도해주는 목사님, 어느 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느 한 분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이제부터는 나가겠다고 하는 분, 며칠 전 천사가 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꿈을 꾸셨다는 밧데이 목사님의 장모님 등 많은 분들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었다. 오후 6시경 숙소로 도착해 저녁을 하고 주방을 담당하신 팀원이 준비한 매운탕으로 맛있게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 후 목사님과 유스그룹을 포함한 모든 대원들은 ‘찌놀라’ 라고 하는 도미니카 열대열매 먹기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8월 6일 금요일

로마서 8:26-28의 큐티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간절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아침 식사 후 해변을 향해 버스가 달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바위를 깎으며 생긴 미네랄이 많은 바다라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 수영한 후 많이 나왔다고 한다. 청초록의 푸른 바다와 고운 모래사장 위에서 수중축구도하고 달리기 경주, 피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두 집사님께서 제공해주신 통닭을 먹으며 감사했다. 그 곳을 떠나기 전 도미니카 아이들과 함께 피구를 하시던 세 집사님의 모습은 참으로 천진난만하였다. 세 장로님께서 사랑으로 제공하신 저녁을 먹으러 간 곳에서 국제 핸드볼 경기를 하기위해 도미니카에 온 한국 팀을 만나기도 했다. 어찌나 반갑던지 서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며 응원을 했다. 그 잠깐 동안의 만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 팀을 위해 기도하시겠다는 집사님도 계셨다. 다음날 오후 6시 러시아 팀과 경기하는 우리 한국 팀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숙소로 돌아왔다.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과 유스그룹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었던 시간들과 땀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손으로 도미니카 밧데이 사람들을 섬긴 순간순간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그 곳에서 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우리 선교팀이 뿌리고 온 씨가 열매를 맺게 되길 계속 기도 드리겠습니다.



Workcamp Testimony



John Lee

This year was the best workcamp I've been to.

I guess I should mention that this is also my second workcamp. There have been some interesting aspects of this workcamp that I didn't feel last year. One aspect that made this workcamp more interesting was my crew. The people in my crew created the strangest group for working.

Our adult leader knew all kinds of jobs so he guided everyone in their jobs. Another guy can be compared to an ox. He was a determined worker and knew how to get the job done. Two girls in my crew talked a lot but at least knew how to paint properly and got their jobs done. Another girl was very bright and helped to organize the jobs that needed to be done. Our group was fortunate to have the support of the red and purple shirts to help.

At first, our group only focused on getting the work site finished. Later during the week we had bonded together and started to have fun. We got the job done and were sent to help another crew. We made new friends and had the opportunity to help others. At the school, I didn't see my crew mates often so I didn't really talk to them. I had a lot of fun with my crew and accomplished many things together. My youth group was another fun aspect of workcamp. This workcamp brought the youth group closer together with each other. Each individual member of the youth group had a specific role in the congregation. They had shown me that life is unique and everyone's life is different. People are all different and even though you think that you are similar, you're not. The many people I've met in workcamp proved this to me as they had prayed about their lives. Some people had little to pray for so they would either pray for their friends or go out and hang out with their friends. Others, however, had lives filled with hardships

and problems and they had prayed for extensive periods of time. I remember that I had prayed and cried for a long time on one night. At that moment, I believe that it was the first time that I had truly come in contact with God. I remember hearing a faint voice as if someone was yelling for me in the distance. I tried to make out what words were being spoken but I just couldn't hear because of all the events in my life. I couldn't reach the voice so I stopped trying and let myself be overcome. Instantaneously I felt the presence of others praying for me and helping me. The hardships started to fade away so I turned towards the voice again. In the end I remember hearing the voice clearly, telling me to not give up in life and there was a purpose for me. I was truly touched at that moment in my life and I will always remember it. After that I had changed into a devoted Christian. I understood that my life had a meaning to it but I just haven't figured out what it was. I needed to stay on track in order to find out what my purpose in life was. I knew that my life was planned out by God and I had to trust in him to help lead me in the right direction.

Overall, this workcamp had helped me to see that I have a specific purpose that God wants me to do. I've met many new people that have changed the way I view people. The workcamp showed to me the various people in the world that need help physically and spiritually. I've realized that people are at different levels of faith which can lead them down different paths in life. In the end of life there are only two kinds of people, those who put their faith in Christ and those who place their faith in themselves. Many people fall away from God because they are not faithful enough and only worry about themselves. Such people are self centered and do not know the true meaning of being faithful to others and to God. From this workcamp, I learned not to be selfish and to be faithful to others.



제 3예수마을을 사랑하는 이유



한기하 장로

예일교회는 8개의 예수마을이 있고 그 안에 28개의 목장이 있다. 그중에 내가 섬기는 마을이 제 3 예수마을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3”이라는 번호를 사랑한다. 나뿐이 아니고 성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3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성경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모여 한 분 하나님이 되셨고, 교회의 가장 큰 절기도 부활절, 추수 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며, 예배의 핵심은 찬양, 기도, 말씀이다. 신앙의 색깔도 믿음, 소망, 사랑이며, 통성기도를 할 때에도 “주여” 3창하지 않는가? 예배를 끝나치고 축도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한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으니 더 할 말이 있겠는가?

우리 김종훈 담임목사님도 3자를 좋아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예일교회 창립 첫 예배를 3월 3일에 드렸으며, 교회조직은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로 구성되고, 슬하에 3남매를 출산하신 것을 보면! 나도 3남매를 두었는데 신통하게도 두 아들들이 각기 3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가정의 구성원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3대 구성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꼽으라면 “의, 식, 주” 3가지를 들 수 있다. 딸 중에서도 셋째 딸은 묻지도 않고 데려간다고 하지 않는가? 옛날에는 시집가면 3년 동안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들은 척, 알고도 모르는 척 했으며,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복을 3년 동안 입어야 했다.

여자에게는 3씨가 있는데 마음씨, 솜씨, 맵씨이고, 음식의 3미는 짠맛, 단맛, 매운맛이며, 색에도 3원색이 있으니 빨강, 노랑, 파랑이다. 사람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먹고, 자녀교육도 3살부터 시작했으니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다. 맹자 어머니는 자녀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하여 맹모삼천이란 고사성어도 있다. 화가 나는 것을 세

번 참으면 살인도 면하고, 3사람이 동행하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도 3을 사랑하는가? 조직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을 기초로 삼고, 태극기도 빨강, 파랑, 검정의 3색이며, 군대도 육군, 해군, 공군으로 분류하고 만세는 3창으로 한다. 오직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삼성인가? 우리는 경기할 때 3번 경합하여 1등을 결정한다. 등급도 1,2,3등을 기준으로 삼고, 경기의 메달도 금, 은, 동메달을 수여한다.

결론적으로 왜 나는 3예수마을을 사랑하는가? 하꿈모 목장의 이주익, 김선태 집사, 에바다 목장의 정재수, 지재홍 집사, 실로암 목장의 조태성, 최훈 집사, 제일좋은 목장의 신영필, 흥순천 집사의 면면들을 보면 충성과 봉사, 겸손과 섬김이 있다.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금년에 제3예수마을에서 2명의 피택장로가 선출되었다. 그 무엇보다도 제 3 예수마을에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모인(하꿈모) 제일좋은 목장들이 실로암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단혔던 모든 문들이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있는 제 3 예수마을이기 때문이다.

제3예수마을 아하자...

성전 꽃꽂이에 대하여

미화사역부 김영애 집사

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 도움을 주는 매체중의 하나이다. 주일예배 때 교회에 들어서면 세상 밖에서 느낄 수 없는 마음의 평온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으며, 강대상에 올려진 꽃을 바라보면서 마음 문이 열리는 것으로 말씀이 선포 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가 커져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전꽃꽂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제물이다. 성경에서는 꽃에 대한 언급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다. 시편기자는 인생의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시:103:15)는 표현을 써서 꽃은 한순간의 미를 자랑하다가 곧 그 수명을 다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생명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건하지만 때론 연약함을 보이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비취지며, 인간의 생명과 그 영화의 허무함을 표현하는데 비유하기도 한다.

또한 아가서에서 나타나는 꽃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백합화와 같은 꽃을 비유하며 노래한다. 또한 빈들에 버려지듯 피어난 한 송이 백합화조차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나타내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대하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신다.

때로 어떤 이들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꽃을 그렇게 장식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럴때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주님께로 향한 경배와 신앙의 분을 떠올리며, 제단의 꽃을 더욱 정성껏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바친다. 하나님 전의 성물을 맡은 자로서 절기에 맞추어, 주님의 전에 아름다운 꽃 장식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사명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준비자의 자세로 임하여 꽃꽂이를 한다.

일년, 12개월 동안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살펴보면, 1월 신년감사주일/ 3월 종려주일/ 4월 부활주일/5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성령강림주일, 삼위일체주일/ 7월 맥추감사주일/ 10월 종교개혁주일/ 11월 추수감사주일, 대강절1주/ 12월 대강절, 성서주일, 성탄절로 구분되는데 각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꽃을 준비하게 된다. 절기마다 나타내 주어야 하는 색상을 정하고 성경적인 숫자(1, 3, 7, 12)를 고려하여 꽃을 구입하고 꽂는다.

꽃의 색상에 대하여는 흰색은 성결을 의미하며, 빛, 기쁨, 즐거움을 표현하고 어느 색이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광대성을 가지고 있다.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며, 영원성과

신앙의 불변, 종교적인 소망을 나타낸다. 보라색은 위엄과 존엄을 나타내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부여해줌을 의미한다. 초록색은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의 성장과 소망을 상징한다.

황금색은 영원불멸을 상징한다. 지난 여름, 남편 박집사가 집 뒤뜰에서 기른 여러 가지 채소 중에 제일 늦게까지 열린 것이 호박과 가지였다. 길은 짙은 초록색을 띠고 안은 노오란 속을 자랑하던 호박이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겉옷을 단단히 입어 속살을 보호하려는 듯 카키색으로 변하며 단단한 호박으로 자라나, 부엌 식탁위에 보라색 가지와 함께 오누이처럼 있는 것이다. 문득, 앞으로 한 2달여 뒤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텐데 그때까지 저들이 상하지 않는다면 ‘애들아 내가 너희를 제단위로 올려주마... 잘 견디어라~~!’ 하는 마음으로 지냈는데 추수감사절이 올 때까지 심심했다...

추수감사주일 전 날, 다른 준비된 꽃들과 함께 조화로운 모습으로 강대상을 장식하는 호박들과 가지들을 보면서 남다른 감회가 일었다.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잘 모르셨겠지만, 집에서 손수 길러낸 열매를 바치는 감격은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이다.

우리교회에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걸로 알고 있다. 농사를 지으시면서 열매를 얻는 보람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나누고 알려 드리고 싶어 이 글을 써본다.





찬양대 총무로 섬기며



박재우 집사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왼편 찬양대석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머리 위로 성령의 불이 쏟아지고 있으며, 그 발 아래 단상으로 부터는 생명수의 샘물이 넘쳐 나와 성전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장관이었고 충만하였다. 나는 두 손을 높이 쳐들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후로도 두번 더 같은 장면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후로 웬지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고 또 찬양대가 그렇게 되도록 나는 기도했다. 성령께서 내게 네게 보여준 대로 전하라고 자꾸 권고하였다. 나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대원들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나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

처음 직분을 받고 나는 모세가 떠올랐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발뻘하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였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찬양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대가 되도록.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대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했다.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 지났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대장 장로님을 비롯해서 지휘자, 반주자 또 임원들, 대원 한 사람 한사람 모두 귀하고 고마울 뿐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비발디의 글로리아를 하나님께 올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료자료 오신 예수님” 드라마 사역부 평가회

사회 : 김준택 장로님

드라마 하면서 느끼고 은혜받은 이야기와 비하인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목사님 : 복음의 감격을 보는 것 만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감격을 표현한 드라마사역부의 수고로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되었고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드라마는 복음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드라마는 축복입니다.

사모님 :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만의 잔치에서 벗어나 좀 더 광고를 해서 아이들과 어른과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는 복음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였으면 합니다. 연극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티켓을 BOOM Service (Bring One or More) 기간에 성도가 믿지 않는 주위 분들에게 본인이 드라마에 나온다고하여 친구를 초청하면 기쁨을 나누는데 효과적이고 은혜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티켓을 만들어 강권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 내년 BOOM Service엔 초청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광고전단지를 만들어 출연진 얼굴 사진을 넣는 것입니다. 한사람당 외부사람 초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년 부활절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모든 대원이 믿음으로 연기를 하였기에 치료받기 원하는 마음의 뜨거움이 치료받은 은사가 있어서 나왔다고 봅니다. 모든 대원들이 지혜롭게 먼저 은혜 받고 연습할 때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현민수 집사 : 올해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까진 아마추어였지만 올해 숙달되어서 퍼포먼스는 중간 정도이고 배우 행동 등이 나아져서 초청장을 발행하여 초대하는것이 오는 분들을 짧잠게 오게할 수 있을 것입니다(김현주 집사 남편)

김영진 집사 : 혈루병 역할이 김현주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가정원 모두 교회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성수주일 할 것입니다. 남편이 앞에 앉았는데 다른분들의 연기보다 아내의 연기할 때는 관심있게 몸을 앞으로 움직여 보더라구요(일동 웃음)

현민수 집사 : 교회에 간다고 하여서 청소나 하러 가겠거니

하였는데 연극을 한다고 가봤더니 연기를 실감나게 잘해서 역할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밥하는 일과 청소하는 일을 바꾸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훈집사 : 감독 김영모집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김영모 집사가 연극연습을 마치고 집에 와서 “못하겠다 힘들다!” 한 적이 있었지만 연습땀 아무말 안하고 끝까지 잘 마치게 되어서 박수를 보냅니다.

김영모 집사 : 자연스럽게 맡았지만 억지 십자가였습니다. 무거워서 남편에게 안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남편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러클 오브 지저스(The Miracles of Jesus)는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위 분들과 가족들은 읽어보고 지루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감동으로 와서 치료하는 부분만 뽑아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장님역의 지팡이를 우연히 가질 수 있게 해 주심을 느끼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은혜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 처음으로 김영모집사가 안수 받기 위한 기도하고 평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현주집사 : 이전 드라마에서 나는 술집마담, 말 더듬이 농부, 군사 등을 하였는데 이번엔 청순가련형 배우를 시켜달라 하였더니 혈루증 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걱정되지만 모두가 칭찬으로 밀어주어서 시험도 없이 은혜받게 되었습니다. Q, T 모임에서 레위기를 읽으며 유출병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감정을 더 잡을 수 있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소품도 의상도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연기하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릴 정도로 열심히 하게 하셨습니다. 드라마팀이 좋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기지도로 성도들이 관심있게 도와 주었고 드라마 의상용 천이 남을 정도로 성도님들이 재료도 보충해 주셨습니다. 의상을 만들때 바느질도 잘 되었습니다. 신랑의 잔소리 없이 집에 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일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민에 집사 : 끝까지 남아서 연기연습을 못하여서 다른 분들에게 누가될까 염려하였습니다. 사라도 무대에 나가서 하는 실력이 아닌데 잘 할 수 있을까 하였지만 연습하여 잘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였습니다.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충만한 기도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경자 집사 : 일하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에 가기위하여 미리 순서를 확인을 하고 또 하나님께 일터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며 일을 하였고 오는 차안에서 연습하며 달려왔습니다. 앓은뱅이 역을 하면서 병으로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 이런상황을 극복하려면 미션이 필요해 하며 왔습니다.

김광남 집사 : 드라마 사역부는 참으로 헌신적입니다. 오늘 들으니 다음 드라마를 위한 이야기를 하는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대만 서있으라 해서 썼는데 처음부터 같이 해야 하는 마음에 미안하였습니다. 두 번의 리허설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도우며 같이 누리고 은혜를 받고 나누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홍재역 집사 : 2007년 부활절에 예수님역을 하였습니다. 방송실에 있었는데 김영모 집사님의 권유에 거절하지 않고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은 모임 첫 날의 교통사고에 다친 것 없이 응급실에 있었는데 김영모 집사님이 왔었습니다.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의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으로 치료하는 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난 것 먹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습에 빠지지 않고 은혜롭게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김영진 집사: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담으로 “예수 안시켜주면 안한다” 하였는데 “시켜줄게요” 라는 답을 듣고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여러사람으로 영역을 넓혀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 라이드를 하면서 최훈집사님이 그 역을 안하면 하려고 하였는데 계속 최훈 집사님이 함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는 교만인지 거만인지 듣지도 않고 거절하고는(울음섞인 음성)다시 김영모 집사님에게 전화하여 몸이 아파 거절하고는 후회했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많은 신경을 쓰는 상태에서 나의 부족으로 화를 내고 시기 질투를 하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서.. 다음에 역을 하나 주세요!!

김종수 집사 : 특별히 한것 없지만 2층에서 조명하며 잘 보여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잘 할 수 있을까 하였는데 잘 한것 같습니다. 팀 멤버를 보면 바쁜데도 기쁨으로 하는것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잘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희 집사 : 김영모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친절하며 웃으면서 반겨주어서 고맙습니다. 드라마 사역팀을 도울 수 있게 되면서 연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감정까지 들어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감사드립니다.

박지혜 집사 : 2년전에 봉달역으로 드라마사역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느꼈습니다. 모든 분들의 손길 속에서 되어져가는 완성도를 느낍니다. 모자이크 처럼 빈 구석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부담은 되었지만 은혜로 되어지는 모습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기뻐했습니다.

최훈집사 :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씨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느꼈습니다. 부족하지만 섬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일성전이 자라나는 새싹과(중,고등부학생들) 바디워십으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중,고등부도 같이 드라마사역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디워십을 하면서 정신적 치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방향을 바꿔 종합적인 전도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꿈을 즐겁게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서 전도사역을 돕겠습니다.

목사님 : 예수마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실어서 은혜받은 이야기를 전교인들과 공유하였으며 좋겠습니다.

사모님 : 김준택 장로님과 김미라 권사님 우리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보다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김정업 집사

201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저에게 믿음목장 목자의 직분을 맡겨 주셔서 일 하게 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다.

사실 나날이 부흥해 가던 예진 목장에서 총무로 편하게(?) 섬기다가 영어회중들을 위해 만들어진 새 목장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서떡하기만 할 신입교우들로 구성된 목원들을 섬기는 일이 녹록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했었다. 실제로 부딪혀 보니 더 당황스럽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밀려 왔었다. 게다가 쉽지 않은 성경공부 교재를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리드하는 일은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 외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고 목원의 구성 또한 영어가 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영어만 하는 사람임을 염두해 두어야만 했다.

주님은 이러한 여건 가운데에서 내가 총무로 섬기던 예진 목장 식구들 (그 당시에는 매우 피붙이 같은 분들이었음 ... 지금도 그렇지만)에게 먼저 기도를 시키시며 매년 우리 모임이 있기 전날 중보하게 하셨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중보기도의 힘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시었고 그것이 내겐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기도의 도움이 있지만 여전히 혼자서 고아가 된 것 같은 적막감 가운데 목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목회자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 할 수 있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처음 시작된 모임 직후 자신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한 목원의 말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몇 주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므로 이제는 그 목원이 우리 목장식구들을 잘 먹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 내시는 중요한 코어멤버가 되셨다는 사실이 놀랍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은 목장의 갖추어야 할 코어멤버들과 목원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하다. 돌이켜 보면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마땅히 돌보아야 했을

부분에 소홀이 했던 것들이 있어서 무척 안타깝다.

글을 쓰다보면 때로 자량이 없는 글을 쓰기가 너무 힘든걸 알기에 목장소개 글 써주길 부탁 (강요였던 것으로 기억됨)받고는 미루고 미루던 중 며칠 전 접하게 된 어느 기도문을 보면서 펜을 잡게 되었다. 그 기도문 가운데 “나는 사람들에게 열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언정 주님이 나를 그분의 뜻이 아닌 것에 열심 있는 사람으로 보길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통해 난 믿음목장을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열심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기 위한 몸부림인지 비록 그렇지 못해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 했는지 돌이켜 볼 수 있다면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유익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생각해 보건데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기도 했지만 목장현황표의 숫자에 전혀 무관심 하지는 않았음을 시인 할 수밖에 없고, 때로 조금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일에(비록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시간을 쏟았던 것 같다. 어느 정도 모이는 숫자에 신경을 쓰지 않을 만큼 되면서는 조금 소홀해지고 전화를 드는 것도 다른 말은 일들을 핑계로 아내에게 맡기곤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이라는 영어 단어 ‘enthusiasm’의 원어적 의미를 풀어서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난다. 이 단어의 어미와 접미사를 제외한 중심 되는 루트인 ‘thu’가 ‘theo’ 즉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열심이란 단어는 원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전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그렇다 우린 때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일을 하곤 한다. “내 목장” 만을 위해 열심을 내고 목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열심으로 목적을 삼키게 만드는 셈이다.

올 한 해 동안 내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열심이란 뛰어 다녔다면



이제 다가오는 한 해와 앞으로 남은 신앙의 삶은 도무지 열정만으리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열심인 자가 되길 원한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무지몽매한 자에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시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을 주위에 붙여 주셔서 비록 새로 시작된 목장이지만 어느덧 모양을 잡아가고 지속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열심을 목격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기만 하다.

더욱이 가장 힘든 일은 대부분이 신입교우들인 목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인데 목원들 스스로 섬길 곳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기만 하다.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한눈을 파는 동안에 총무님의 열심으로 또 몇몇 적극적인 목원들이 알아서 호스트로 텔리캐어로 섬기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 또한 감사하다. 이번 해에는 몇 가지의 책임을 덜게 되어 목장을 더 돌아볼 수 있고 새 목원들을 돌아보는 일에도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어 더 감사가 넘치는 목장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찬양대의 기도



조성식 집사

찬양대의 역사

찬양대 기원의 역사는 교회음악의 역사인 동시에 찬송의 역사이기도 하다.

성경에 나타난 조직적인 찬양대의 모습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서

규례를 따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였고, 이때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찬양대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다윗이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겼고(대상 6:3), 찬양대의 구성 대상은 30세 이상의 레위인 가운데 4천명을 세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으며(대상23: 5)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고 그 직무대로 자손들 가운데 배워 익숙한 자 288인의 찬양대원을 세웠다. (대상25: 1-7)

종교개혁 이후 루터(1483-1546)에 의한 단선율은 회중 찬송의 보급으로 평신도 중심의 찬양대가 구성되었고 18세기에 이르러 4성부의 혼성합창이 성립되었다. 그 형태가 오늘날까지 존속되어 혼성 찬양대가 생겨 나게 된 것이다.

17세기 후반 미국에서 최초로 찬양대가 조직된 곳은 뉴욕에 있는 삼위일체 영국교회였다. 이 교회는 1693년 찬양대원과 오르간 반주자를 영국에서 초청하여 만들었다. 미국에서 제일 처음 설립된 혼성 찬양대는 1774년 매사추세츠주의 스타우톤시의 윌리엄 빌링스(William Billings)에 의해 설립된 찬양학교이며 전체 찬양대원 48명 중 31명이 여자였다. 1800년대 이후 각 교회에 보급되었다. 새단원 한국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한 기독교 전파로 음악대학과 교회의 찬양대가 보급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찬양대가 처음 조직된 곳은 1910년 평양숭실학교 교사로 있던 모우리 선교사에 의해 조직된 평양의 장대현 교회 찬양대이다.

찬양대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주만을 찬양하는데 있다. 그리고 찬양대는 그 경배와 찬양하는 일을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다. 성 어거스틴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받은 것 이외로는 주님께 합당한 것으로 노래 할 수 없다.” 라고 했다.

찬양대는 오직 예배를 위해서만 존재하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찬양대원은 예배위원으로 회중이 바른 찬송을 부르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찬양대의 음악적인 힘이 모든 교회 예배의 공적인 찬양을 이끌어 나가며, 기도와 설교로 더불어 예배의 필수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찬양대는 음악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찬양 대원들은 물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고백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영적인 세계로 가까이 이끌어 주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찬양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의 특권이며 세상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찬양대는 여러 사람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곳이지 혼자 찬양을 부르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함께 조화와 균형, 배려가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찬양대는 음악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음악적인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는 영적인 것이 음악적인 것의 위에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찬양대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찬양대원은 음악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동원하여 흠 없는 최고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찬양대는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찬양대의 찬양은 오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음악이어야 한다.

찬양대의 명칭

성가대란 성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표현 될 수 있는데 이에 반하여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반영된 용어라 생각된다.

성경에 한번도 언급이 되지도 않던 성가대라는 용어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전담하는 “찬양대”를 “성가대”로 부르고 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한결같이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말이다.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가” 또는 “성가대”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설교자의 바른 말 사용을 주창하고 있는 오소운(“설교자를 위한 우리 말 바른 말” 월간목회에 1997년부터 연재 중)은 한국교회가 해방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찬양대’로 불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한 출판사가 흑인영가와 복음송가를 합하여 출판하면서 [성가곡집]이라고

부른 것이 “성가대”라는 이름이 시작된 동기라고 한다. 또한 일본의 “세이까다이—성가대(聖歌隊)”라는 말이 직역되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동안 불렀던 찬양대라는 이름이 성가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가대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전의 국어사전에는 찬양대라는 항목은 있었으나 성가대라는 항목은 없었다. 성가대라는 용어는 1994년 민중서관의 국어사전이 처음 이 말을 소개하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찬양대]를 “남녀 기독교 신도로 조직된 합창대”라고 풀이해 놓았다. [성가대]를 “성가를 부르기 위하여 조직된 합창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가] 또는 [성가대]라는 용어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성가](聖歌)라는 말은 단순히 성스러운 노래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를 성가라고 부른다. 그렇기에 불교도 자신들의 노래를 구분하여 부르고 싶어서 “찬불가”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노래를 “성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





성가대”로 부르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일반적인 성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이는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것을 가리켜 “찬양”(개역성경에 213회), 또는 “찬송”(98회) 또는 “찬미”(14회)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고 했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성가를 받기 원하신다는 표현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는 “성가” 또는 “성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기로 유명한 일본 사람들이 귀신들을 섬기며 노래할 때 쓰는 단어인 “세이까다이”, 즉 “성가대”라고 부르는 용어를 찬양대로 바꾸어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는 2000년 85회 총회에서 기독교의 혼잡한 용어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기독교 용어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연구토록 하였다. 그중에 예배부분의 성가대와 관련된 용어가 있어서 글을 올려본다.

『9. 성가대 → 찬양대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전담한 찬양대를 최근에 ‘성가대’로 많이 부르고 있다. 이 말은 출판사들이 흑인영가와 복음송을 합하여 출판하면서 [성가곡집]이라 부르는 데서 보편화되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찬양대라는 이름이 통용되었고 성가대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세이카다이—성가대(聖歌隊)’가 그대로 직수입되면서 성경에도 없는 ‘성가대’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성가라는 말은 불교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에서 부르는 노래이며, 우리의 ‘찬양’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가대’라는 용어는 성경의 정신과 우리의 고유한 이름인 ‘찬양대’로 바꾸어 부름이 타당하다.』 장로교 총회¹⁾에서는 모든 교회가 정정해서 부르기를 가결하였다.

찬양대의 자세

찬양대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는 대원과 안 하는 대원은 영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 찬양 할 때 표정이 다르고 항상 기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찬양한다. 기도하는 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잡음 없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한다.

찬양대는 음악적으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준비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겠다. 찬양대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대 일의 관계라는 것이다. 많은 연습과 시간을 드려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찬양은 받으시고 누구의 찬양은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가인과 아벨 처럼 말이다.

오랜 세월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도 영적인 변화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 또한 스스로에게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 43:21)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한다.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여도 능히 승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끔 찬양대원 중에 자기의 음악적 재능을 자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은혜로운 찬양대원은 자신의 낮아짐을 고백함으로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찬양대의 세워진 목적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찬양대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기도는 찬양대의 호흡과도 같다. 찬양대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패배자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의 군사라 할 수 있겠는가?

뉴욕예일장로교회는 첫 만남부터 나에게서 은혜가 되었다. 지금의 많은 한국 교회가 찬양대보다는 성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예일교회는 찬양대, 찬양팀의 용어와 성가보다는 찬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교회의 모든 관심은 오직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동안 보이왔던 여느 교회보다 찬양이 풍성한 교회,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임이 분명하다. 나의 지나온 신앙의 세월이 부끄러울 정도로 예일 성도들의 신앙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 주고 있었다.

찬양대를 지휘하다 보면 찬양대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들은 평소에 신앙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예일교회 찬양대원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은혜의 모습은 잘 훈련된 주의 군사와도 같다. 찬양대는 하나님을 위한 군대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

예일교회의 찬양대를 보면 많은 찬양대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 예일의 찬양대는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찬양대를 지휘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찬양대와 함께 있는 것 만으로도 은혜가 되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찬양대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하며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세우신 목적을 잘 깨달아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찬양대가 되어야 한다. 예일의 모든 찬양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임 받는 찬양대가 되어 주님 만나는 그 날 천국에서 충성된 종으로 칭찬 받고 주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찬양대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봉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버클럽회원 전병준

먼저 예일장로교회 실버클럽 가을학기 종강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채워주시는 김종훈 담임목사님, 노래 배우기 순서에서 수준급의 창과 노련한 피아노 반주로 수고들 하시는 박성하 전도사님과 전인숙 집사님을 빼놓을 수 없지요. 발랄한 스포츠댄스 음악에 맞추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이인숙 집사님, 또한 우리들의 식탁을 책임지시는 최정희 권사님 외 여러 사람들 우리들의 서투른 영어를 해소시키시는 정미자, 윤종구 영어선생, 스타벅스 보다 더좋은 모닝커피를 제공하시는 노영실 권사님, 목요일 새벽 495 EXP를 힘차게 달리시는 장관우 집사님 (예일버스티잡) 그리고 또한 오늘의 순서지를 빈틈없이 책임지시는 우리 김미향 집사님을 빼놓을 수 없지요.

제가 여기 까지 이 글을 올리고 나니 잠간 펜을 놓고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이렇게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런 큰일들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요. 이렇게 봉사자님들께서 협력하며 선을 이룰 때, 실천 목표인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서로 축복하는 신앙 성숙을 이룰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섬김을 받는 자로서 실제로 보고 느낀 바를 그대로 몇 마디 글로서 적어봅니다. 우리들의 식사도중에 옆에 앉아계시던 회원께서 (처음 나오신 회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정결하고 깔끔하고

맛있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하며 놀라운 표정을 하시더군요. (구수한 국물, 길절이, 꼬다리 냄새 전혀 없는 고등어찜) 잠시 후에 제가 농담 삼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회원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노래가사에 있듯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봉사는 아무나 하나’ 하하하” 그래서 회원님들 모두가 한바탕 폭소가 터져 나왔지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예일장로교회에 오셔서 직접 섬김을 어떻게 하나, 봉사를 어떻게 하나 세미나를 통해서 한 수 배우시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

이제 2010년 가을학기 종강을 맞이하여 일 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사랑해주시고 보살펴주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봉사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 까지 믿음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봉사하는 ‘삶’

실버클럽회원 홍덕원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눈물을 요구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협력하여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원봉사(Volunteer)는 멋지고 아름다운 노년생활을 책임지게 만들어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손에서 일을 놓게 되면,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이며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사회적인 역할을 회복시켜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존재라는 증명을 해줍니다. 또한 스스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존심을 유지하게 도와주며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자유로운 선택이기에 자기성장에 더욱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데도 많이 기여하게 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자원봉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인간은 노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 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렇지 아닐 때 후회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생의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회중 하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술, 경험, 지식, 나이에 상관없이 시간을 만들어 봉사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무궁무진하게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단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회단체,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 청소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방지 프로그램, 노인복지 프로그램, 공공기관과 병원 등등... 수백 수천 개의 기관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중의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봉사)주는 것이며, 또한 직접적인 기술을 얻게 되고, 지식을 터득하여 지도력 향상의 기회와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 등 노년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행복추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 줌으로서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여러 모든 사회단체들은 자원봉사자를 토대로 일을 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오늘이라도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자신의 주위에 봉사자로서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Jonathan Haidt가 쓴 ‘행복의 가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남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가 자기 스스로의 행복만족을 위하여 행동을 하였을 때보다 만족도가 더 강하고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 할 수 있는 비결은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가져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 어찌 보면 내 자신을 돕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인간의 건강유지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육체적 건강, 둘째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의 건강은 영적인 건강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노년에 평안과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플레인뷰의 노쇼 대학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지도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많은 병상을 다니면서 아픔과 고통 속에 하루라도 더 살기를 갈망하는 환자들을 도와줄 때 마다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본연에 슬픔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노년에 미국에 이민자로서 모든 기관과 단체를 찾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작으나마 한국인의 힘을 미국 주류사회에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민 2세, 3세를 위하는 길이고, 이민 1세가 주는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일교회 실버클럽 회원님 기죽지 말고 파이팅 ~ ~ ~ 브라보 ~ ~ ~ “God with us”



존경하는 김종훈 목사님

실버클럽회원 정재영

저는 실버클럽의 자비반 리더의 정재영 권사입니다. 목사님께 제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을 갖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수업시간으로 틈이 없고 바쁘실 것 같고 해서 망설이다가 글을 드립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방송되는 목사님 설교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교회모습, 선교활동소식, 목사님 가정 이야기 등 얼마나 은혜롭던지 한눈에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찬양대 연습하러 가는 직전 시간이라 다 듣고 간담니다.

예일교회 실버클럽에 우리교회 권사님들이 여러분 나오셔서 저더러 이 근처로 이사 왔으니 한번 꼭 나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실제로 실버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에 고개 숙여지고, TV화면에서 보던 강단과 목사님 모습을 직접 보니 정답고 낯설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우리 실버에게 맞는 머리에 꼭 들어가는 귀한 말씀으로 항상 기대가 되며,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어집니다. 멀리까지라도 교회차로 회원들을 태워오시며, 한결같은 솜씨의 정성어린 손맛의 반찬은 입맛이 없다가도 한 그릇 푹푹 해치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섬김에 보답하는 길은 “기도” 밖에 없다 생각하고 아침저녁으로 예일 장로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봉사자를 위해, 회원들을 위해, 그리고 자비반을 위해 기도하며 “목사님 건강을 위해 두 다리에 힘주시고 항상 오른팔로 꼭 잡아주세요” 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대표기도 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북받쳐서 울컥 눈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강단의 꽃꽂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 후에 꽂은 꽃인지 아주 특별한 솜씨입니다. 봉사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장관우 총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자비반에서 예배드릴 때 1주일 동안 기도하자고, 찬양드릴 때 두세 명 밖에 나오지 않아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 하셔서, 앞 줄 두 줄에 이름표를 목에

걸고 앉았다가 모두 나와서 찬양 드리자고 했더니 자비반 전원이 나왔습니다. 찬양할 때 책의 높이와 왼 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눈의 높이를 맞추는 등의 연습을 했더니 너무 잘했다고 총무님께서 자비반에 오셔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모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좋아라고 함성을 올리고, “리더를 잘 만나 그렇다고 국민은 대통령을 잘 만나야 한다” 고 해서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따라 와주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지요.

그리고 예일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복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노인을 잘 섬기면 복 받게 되어있다고 성경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받는 부흥하고 소문난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요일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Yale Academy

Christine Kim



It is safe to say that junior year is one of the busiest and most stressful years that a high school student must endure. However, coming to church every Thursday night for almost two hours isn't a waste of time. Mrs. Kang had

come up with this program about two years ago and ever since I have been willing to devote my time and help the young children that attend Yale Academy. This program has taught me many things about myself and I owe it to Mrs. Kang who made this all possible.

As a freshman, I started off as a homework helper for just a couple of kids. Although I didn't expect it to be such a difficult task, there were aspects of tutoring that were far more complicated than I had imagined. Teaching a child that is only 5 or 6 years old requires a lot of patience. I became more understanding person through this experience and I acquired a willingness to serve these children. Along the way, Mrs. Kang supported me and the other teachers as well. The group of teachers that served every week was very cooperative and hardworking.

Going from homework help to teaching an actual kindergarten class was a big adjustment to make. This year as a junior, I was given the responsibility to teach a class of about 7 to 8 children each week. With the help of my TA's, I made it through the 10 weeks without a problem. Teaching my kindergarteners was a blissful experience because it was so nice to see their bright and smiling faces after a long day at school. They always welcomed me with a happy face and it was nice to know they were excited to come and learn with me every week.

In addition to focusing on academics, Mrs. Kang

always included prayers and a sermon before the sessions began. Even if the children did not get anything out of the classes this year, I truly hope that they will remember God's word and the lessons that the staff taught them, as well as the memories they made at Yale Academy. I am looking forward to the upcoming years and the continuous success of this program as this year's session comes to an end.



힉스빌 신문에 실린 예일교회 커뮤니티 봉사에 대하여

Sept 2, 2010

Dear Mrs. Kim

Former members of Redeemer Lutheran Church want to let you know how joyful we are to read in the Hicksville Illustrated News about your Yale Christian Academy and your out reach to the community.

You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kindness endures forever. *continue*

1 Chronicles 16:34

to "beautify" the church in many ways

Thank you to the staff and the volunteers of the Yale Christian Academy.

Your thoughtfulness and generous heart will always be remembered.

God bless all that you do.

Rita Sharkey

Dear Kim
Sept. 2 2010

Former members of Redeemer Lutheran Church want to let you know how joyful we are to read in The Hicksville Illustrated News about your Yale Christian Academy and your outreach to the community.

You continue to "beautify" the church in many ways.

Thank you to the staff and the

volunteers of the Yale Christian Academy.

God bless all that you do.

Rita Sharkey

루터란 교회의 전 교인들은 힉스빌 신문에 기재된 예일교회의 커뮤니티를 향한 뻔침과 예일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대해서 읽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계속 아름답게 하십니다. 예일 크리스찬 아카데미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위에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리타 샤키



고혈압(Hypertension)에 대하여



오연섭 장로

고혈압은 미국인 중 5천만 명이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10억 명이 갖고 있는 질병입니다.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고 있는 55세인 경우에도 남은 여생동안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90%입니다. 그러므로 고혈압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누구에게나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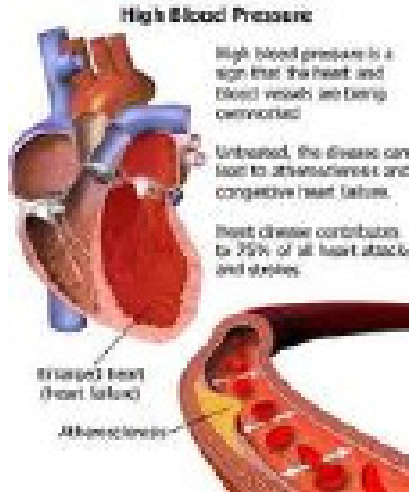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심장이 뛰고 쉴 때 혈압의 압력을 측정합니다. 심장이 뛸 때 나타나는 것을 혈압수축수치(Systolic Blood Pressure)라고 하고 심장이 쉴 때 나타나는 것을 혈압확장수치(Diastolic Blood Pressure)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표기할 때 심장확장에 대한 심장수축이 얼마라고 적습니다. 예를 들면 138/93 이라고 씁니다. 50세 이상인 환자들은 심장수축혈압이 심장확장혈압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수축혈압은 직접적으로 심장병의 위험에 연관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심장수축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심장확장혈압이 90이상이라면 여러분의 의사는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혈압을 낮추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준다면 중풍, 심장질환, 심장마비, 신장병 또는 사망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혈압 진단을 받고 또한 당뇨나 신장질환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혈압은 130/80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혈압 진단을 받고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혈압을 140/90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권고 사항

혈압을 낮추기 위한 목표에 달성하기 위하여 혈압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혈압계를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 혈압계는 하루 중 아무 때나 집에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의사를 찾아가갈 때마다 혈압계와 그동안의 혈압기록을 가지고 가지길 바랍니다.

정확한 혈압측정을 하려면 최소한 5분정도 조용히 발을 꼬지 않고 팔을 여러분 심장의 높이에 두시고 앉아계십시오. 혈압장비로 팔을 최소한 80%정도 적당하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너무 심하거나 너무 느슨하게 감싸주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혈압계들은 손가락이나 팔목에서 혈압을 측정한다고 하지만 팔의 윗부분을 측정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가 혈압계를 고르실 때 약사에게 각각 차이점을 문의하십시오. 만일 숫자크기가 너무 작아서 읽기가 힘들다면 숫자크기가 큰 것을 보여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어떤 혈압계들은 혈압을 측정하고 프린트까지 해주는데 그러면 그것을 의사한테 가지고 가십시오.



생활형태의 변화

몇 가지 건강한 생활형태가 고혈압이 되기 전에 환자의 혈압을 좋게 해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식사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 플랜은 환자들에게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드시고 지방이 적은 유제품을 드시도록 유도하는 플랜입니다.

음식은 또한 섬유질과 칼륨이 많은 것을 권하고, 고기는 빨간색의 육류보다는 생선이나 가금류를 드시도록 권합니다. 또한 그 플랜에서 강조하는 것은 포화되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되도록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혈압



의료

환자는 나트륨을 하루에 2.4g 이내로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요리하실 때는 소금을 넣지 말고 식탁에서 모든 소금을 치우시도록 권합니다.

에어로빅 같은 운동을 하루에 최소한 30분씩 거의 매일 하시도록 권하는데 그렇게 하면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운동은 걷기, 수영, 뛰기, 달리기 그리고 자전거 타기가 포함됩니다. 건강한 체중감소는 1년에 7%내지 10%가 좋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하루에 음식을 500 칼로리로 제한해서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1 주에 1-2파운드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은 건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감소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남성은 술을 하루에 2잔까지만 마시는 것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2온스 맥주 2잔이나 10 온스 와인을 말합니다.) 여성은 술을 하루에 한잔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끝으로 고혈압

의약을 복용하실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혈압에 대한 충고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고혈압 조절에 있어서 최상의 약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사는 어떤 약이 또는 어떤 조제약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지를 제시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혈압조절은 중풍, 심장질환, 심장마비 그리고 신장질환의 위험을 줄여 줍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자가 측정 혈압계를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환자들은 건강한 생활형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기와 꼭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도록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환자는 금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심장병의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치료

생활형태의 변화에 추가로 의약품은 혈압을 낮추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데 여러 가지의 강도가 높고 낮은 의약이 있습니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을 낮추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활습성의 변화에 더불어 두 가지 이상의



응급의학에 대하여



이중서 집사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한국분들은 응급실은 많이 찾아가시지만, 응급의학과와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40 년전에 생겼으며, 한국에서는 이제 20 번째의 생일을 맞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비교적 젊은 과입니다. 응급의학은 베트남 전쟁을 통해 발전된 과로서,

모든과의 응급적인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는 과입니다. 감기치료에서부터 교통사고, 총격사건등, 다양한 환자를 다루는 학과입니다. 이렇듯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모든과의 많은 응급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의대생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는 우수한 의대생들이 선호하는 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열려있습니다. 소아 부터 노인분들께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일과 사고들이 쏟아져 들어와, 매일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이나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을 돌보는 공중보건학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의학을 이 사회에 안전망(safety net)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들과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병들의 다양성과 귀천에 관계없이 치료하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서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전형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응급실은 제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곳입니다. 조금까지도 나와 이야기를 잘하던 사람이, 금방 죽음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보고, 또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사람이 눈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매 순간 보게 됩니다. 미처 수술실까지 갈 수도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빠른시간에 매우 위험한 시술까지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는 17세 청소년이 가슴에 칼이 찔려 응급실에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심장까지 칼로 잘려진 상태였으므로, 가슴을 여는 개흉을 실시하고 심장을 가슴에서 꺼내었습니다. 조심히 피를 지혈하면서 심장의 찢어진 부위를 꿰매니, vital sign 이 살아나고 맥박이 정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생명이 그 자리에서 소생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저를 쓰셨다는 것 또한 놀랍고 감사드렸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은 병원에 가시는 것을 두려워 하시며, 시간을 많이 지체하시므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응급조치는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므로 가능한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보험이 없으시더라도, 응급실에서는 먼저 치료를 받고, social worke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응급시 지체치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사로서 생활하다보니 가까운 교인분들의 병을 우연히 발견할 때도 있었고, 너무 늦게 발견 하여 손을 쓸수 없는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귀한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아끼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신 우리 모든 예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참고로 아래의 표는 응급상황시 관련된 증상과 관련 부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까운 응급실로 가시길 바랍니다.

1. 응급의학이란

언제 어디서든 발생 가능한 급성 불안정 상태의 환자를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의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응급실 및 응급실 관련 공간에서 수행되는 의학이 바로 응급의학입니다. 응급의학은 급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신체의 이상에 대한 응급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 상태를 최단시간 내에 정상 내지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나 수술, 재활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이에 관련되는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응급의학의 특성을 든다면 현대 의학의 추세가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되는데 비해 여러 임상분야에 걸쳐 넓은 진료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응급의학은 모든 임상과 진료과 시작되는 출발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외래와 입원진료를 병행하는 다른 과에 비해 입원진료를 하지 않고 오직 응급실에서의 응급진료만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1년 365일, 1일 24



의료

시간 항상 응급실에서 완벽한 진료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래나 입원진료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내 응급진료 이외에도 병원 전단계 응급처치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통해 병원 밖까지 의료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즉, 응급의료체계라는 국민보건의 사회안전망 구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응급의학과가 필요한 이유

예전에도 질환별 또는 장기별로 세분화된 전문과목 분야별로 상응하는 응급처치를 해왔으나 해당 전문의들이 응급실이나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를 동시에 침범하는 복합 질환이나 다발성 외상 환자의 경우에 기존의 세분화된 현대 의학으로는 효율적인 응급처치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능률적인 양질의 초기 진료가 환자의 예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계속되는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분야의 질환 및 손상인지를 불문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응급의학인 것입니다. 도입 당시에는 응급의학과와 활동 영역이 광범위해질수록 기존 임상과와 응급치료나 진단 방법에 다소간의 견해 차이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하였으나 응급의학 본연의 분야는 어디까지나 응급환자가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초기 안정화를 담당하는 학문이며 기존의 임상과와 환자와의 유연한 연결을 목표로 하므로 우려하는 환자의 분산이나 치료의 중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중독 및 대사장애	박동이상 및 쇼크 심한 탈수 약물 ·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 신부전 · 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경우에 한함)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 장폐색증 ·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 ·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정신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에덴의 동산에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피
그 피가 생명이 되어
씨앗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섬김
멸시와 굴욕
그 인내가 거름이 되어
싹을 틔웠습니다

주님의 복종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이 보살핌이 되어
자라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때론 폭풍이 몰아칩니다
어둡고
때론 차가운 밤도 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핀 꽃들
어린 새싹들
그리고
아름드리 우거진 나무들...

이곳엔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향기나는 꽃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총성
온유
절제....

이곳에서
또 다른 씨앗을 맺어
나누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 인내의 사랑
내 발을 닦아주신 겸손의 섬김의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기부인의 사랑
그 참사랑을...

이곳,
에덴의 동산에서



최지선 집사



화관 쓴 신부에게



김수옥 집사

신부의 화관을 쓰며 신랑 되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아들 모습에 이 엄마는 눈물이 났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오직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한 평생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다오. 혹시라도 훗날 이 사랑이 식어갈때면 오늘 스스로한 네 입술의 고백과 이 화관을 기억해 다오. 정말이지

순결한 신부의 고백을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신단다. 주님은 네 고백을 사랑하신단다. (요일 1:9, 막 8:29)

1993년 11월 3일 새벽녘 가진통이라며 두 번씩이나 나를 집으로 돌려보냈던 하품하던 숙직실 간호사,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항상 다니던 길이 아닌 강남대로로 방향을 잡으신 할아버지, 우연히 병원의 십자가를 발견하신 할머니, 아무런 기록도 없는 엄마의 손을 옹기 있게 잡아 수술실로 들어선 Dr 박을 엄마는 ‘생명의 은인’이라 부른다. 온몸에 태를 감은 너의 위급함을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주셨다. 아늑한 개인병원에서 수술 장비가 있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오늘의 너라는 존재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은인을 보내주셨다. 너의 피와 살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쌓여 갈 때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이 있었음을 의심하면 안 된다.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어라. 싫어하는 사람이면 더 잘해주어라. 그 사람이 미워지면 무조건 잘해주어라. 그 사람은 너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품은 사랑의 결정체요, 너의 동역자요, 또 다른 누군가의 예비된 은인이기 때문이다. (요 15:12, 벰전 1:22)

오늘 축복해 주시는 김종훈 목사님과 너의 가족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눈 예일 공동체의 눈빛들을 기억해다오. 너의 순결함을 유혹하는 사단의 실체는 분명 있고 그 거짓된 영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귀한 아들이며 교회라는 공동체의 소중한 성도란다. 이 공동체 안에 거해라.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로 깨어있거라.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을 기도의 등불로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거라. (벰전 5:7~9, 마18:19~20) 축하한다.



사랑은 내가 먼저



김준택 장로

지금 홍수가 잦습니다.
 온천지가 물난리입니다.
 집안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집 밖에도 물 천지입니다.
 마침 목이 마릅니다. 물이 마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이 물 천지인데 마실 물이 없다니요?

이율배반적인 말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사랑이 홍수진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랑 사랑입니다.

책마다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TV 를 켜 보고, 라디오를 틀어도, 노래를 들어봐도,

그림 하나를 봐도 사랑의 테마뿐입니다.

사랑의 노래, 사랑의 시나리오, 사랑의 드라마, 사랑의
 열기는 범람한데

진정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사랑을 먹고 삽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 낙원이요, 사랑이 있어 살맛이 납니다.

작은 사랑이 열기를 식어 줍니다.

작은 사랑이 갈증을 막아 줍니다.

탐욕스런 태양이 작열하는 사막에서 목말라 쓰러진 한
 나그네에게

한잔의 냉수를 준다면 그것이 어찌 적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한잔의 냉수를 마시운다는 것이 어찌
 적다하겠습니까?

톨스토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늙은 구두 수선공의 한 가지 소원은 살아생전에 예수님
 한번 만나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너의 가게에 가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서 날이 세기도 전에
 가게에 나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10시가 되어도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길가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여 군인들이 눈을 치는데

늙은 군인 하나가 떨어진 구두를 신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은 구두 수선공이 가게에 있는 신을 가지고
 가서 바꾸어 신겨 줍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웬일일까? 하고 내다보니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부인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모양인데 추워서 달달 떨고 있지
웁니까?

그래서 그 부인을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추위를
녹여 줬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내다보니 어느 소년이
남의 가게에서

사과 한 개를 훔쳐 먹다가 들켜 매를 맞고 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 달려 나가 사과 값을 대신 지불하고
아이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이젠 예수님 오시기는 글렀다면 실의에 차서 집에
들어와 누웠더니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의 가게에 갔었노라 합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내가 늙은 군인으로, 가난한 여인으로, 어린 소년으로
갔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늙은 수선공처럼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는 것이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 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내손으로, 나의 희생으로 베풀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의 찬 사람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고,

갈급한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고,

좌절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내가 먼저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때입니다.

예수님 제일로 섬기는 예일교회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본 받아

“사랑을 내가 먼저” 라는 정신으로 오늘도 생활하며

우리 교회와 주변을 미화시키는 일에 앞장 서 주시어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등산의 위력

예일등산동호회 섬김이 성태섭 장로

제가 2008년 5월에 미국에 와서 미국의 지리도 어둡고 동서남북도 미처 가리지도 못하던 때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살핀 분야는 ‘주말에 어디 등산을 할 수 있는 산이 가까이 있는가’ 였습니다. 저의 현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요체가 바로 ‘등산’ 이 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인과 결혼하여서 먼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던 큰딸은 사는데 골몰한 나머지 여타 일에는 관심을 쏟을만한 여유가 없었던지 등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었고, 승용차를 타고 몇 시간을 나가야 산다운 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 정도 였습니다. 유학차 미국에 먼저 와 있던 아들도 그동안 공부를 하느라고 다른 일에는 관심을 들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교회주보 소식 난에 ‘예일등산동호회’ 가 발족해서 매주 토요일 등산을 한다고 하여서 ‘웬 떡인가’ 싶을 정도로 들던 소식중 반가운 소식이 였습니다. 이 소식은 나이 들어서 미국에 와서 동서남북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언어 소통도 잘 안되고, 미국 땅에 아직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고국의 산야가 매일 같이 그립고, 한국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라서

저에게는 큰 위안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정현아 권사와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동호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 정도 계속되다가 등산동호회가 더 계속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컸으나, 저는 이때에 산행을 하면서 저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롱아일랜드’ 의 등산로와 뉴욕시 근교의 산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상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일교회에서 불과 10여분 거리에 비록 낮은 산이긴 하지만 걷기운동’ 의 진수(眞髓)라고도 할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등산’ 을 할 수 있는 롱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등산로가 예일교회 가까이 있다는 것은 여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협산준령을 정복하고 주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박수갈채를 받는 고도의 산행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 산악인도 아닙니다. 저는 젊어서는 아내와 함께 마을 ‘조기 테니스회’, ‘테니스 동호회’ 등에서 20여 년간 테니스도 쳐보고 이것저것 몇 가지 운동을 해 보았지만 생활체육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지키는데는 ‘등산’ 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대 후반 결혼을 하기전 독신으로 있을 때 였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서울 시내에서 건물 2층 세 칸을 세를 내어서 입시지도를 할 때 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11시까지 교재를 직접 만들고, 등사(프린트) 도 직접하고, 학생들을 시간별로 직접 가르칠 때 이었는데, 너무 과로를 한 나머지 밤 11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면 인사불성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잘 살아보기는 고사하고 ‘내 인생이 건강문제로 20대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서점에 가서 건강 서적을 이것저것 사다가 읽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때 제가 터득한 건강에 대한



상식은 ① 건강한 먹거리, ② 잠을 포함하는 충분한 휴식, ③ 한 가지 운동을 밥을 먹듯 생활화 하는 것이 건강의 3대요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생활화’ 되고 ‘습관화’ 되어야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④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안정이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한다고 반드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이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것도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건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성경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생활전반에 걸쳐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말씀으로써 건강문제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학창시절의 친구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 중에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으로 가정이 하루아침에 고난의 나락으로 내몰린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별한 사고사도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젊은 나이에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것은 대부분 생활습관의 잘못에 기인하였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① 건강한 먹거리를 생활화 하는 것을 멀리하고, 먹거리에 대한 절제심을 잃음으로서 얻어지는 질병은 우리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② 또한 잠을 포함하는 충분한 휴식에 문제가 생길 때도 생체리듬이 균형을 잃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됩니다. ③ 한 가지 운동을 생활화 하지 않으면 각종 노폐물이 신체에 쌓이게 되어서 노화가 빨리 진행 됩니다

④ 위 세자지를 생활화 한다고 하여도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안정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만사가 허사가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족 중 자식이 비명횡사(非命橫死) 하거나, 부부중 어느 한쪽이 비명횡사하게 되면 그 부모나 부부중 한쪽이 화병이 아니면, 그리움을

잊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가서 그만 유명을 달리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를 이따금 목격하게 됩니다. 잠언말씀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잠17:22)라고 하였고, ”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잠18:14)라고 하였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라는 말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알았다더라면, 이런 정신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고 성도로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에 전도의 사명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안정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만사가 허사가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마음에 다져진 분들은 이 세상살이에서도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안정과 영적 평안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산(山)과의 인연은 소년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시절 경남의 큰 산 바로 밑 동네에서 농업을 가업으로 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른 봄철이 되면 동네 아낙네들이 연례행사처럼 적게는 10~15명씩 무리를 지어서 도시락을 싸들고 일주일 내지 10여일씩 심산유곡을 헤매며 막 움이 트기 시작하는 부드러운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러 다녔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나기 전 이었는데, 심산유곡에 들어가면 지천에 깔린 것이 산나물이요, 약초도 밭에 밟힐 정도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군침이 절로 흘러나오는 두릅, 도라지, 더덕 등 각종 산나물과 당귀 등 각종 약재를 어렵지 않게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학교에 안 가는 날이면 어머니를 따라서 진귀한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해서 한 짐씩 짊어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산나물을 채취해 오는 날은 집집마다 마치 잔치가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금방 채취해온 각종 산나물을 삶고, 초장을 만들고, 농주까지 곁들여서 실컷 먹고는, 그날 먹고



남은 산나물은 삶아서 명석에 말려서 겨울철에 야채가 귀할 때 반찬으로 대용하였습니다. 각종 약초는 말려서 가정상비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번은 심산유곡에서 일식(日蝕)을 만나서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산나물을 채취도 못하고 하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농사일도 많이 거들었고, 소도 먹이고, 소의 꼴(마소에게 먹이는 풀)도 심산에서 한 짐씩 베어오고, 퇴비용 풀도 베어오고, 겨울에는 땀감도 많이 해다 날랐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는 공부를 한답시고 가족을 떠나서 부산으로 가게 되었고, 고등학교시절은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차츰 산과는 거리가 멀어져 갔으나, 산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서 30대 초반에는 이따금씩 상업 산악회를 따라서 전국의 명산산행을 해보기도 하다가 사업에 골몰한 나머지 등산은 뒀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등산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몇 분의 사례를 나눠 볼까 합니다.

(1) 제 자신의 얘기

제가 본격적으로 등산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9년입니다.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이 쌓였습니다. 학원사업을 10여년 경영하다가 1978부터 젊은 나이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한 때는 사업이 잘

되어서 해마다 규모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1985년에 한국에서 100대 기업인에 속해보겠다는 야심찬 각오로 사업을 너무 크게 넓힌 것이 화근이 되어서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너무 상심한 나머지 온몸에서 기력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 같더니 양 무릎관절에 통증이왔습니다. 육교나 지하도를 건너 다니기가 힘들어지게 되어서 육교나 지하도를 만나면 빙빙 둘러서 길을 건너다니게 되었는데, 3년이란 긴 기간 동안 앓았습니다. 이때 건강문제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을 절실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추석연휴 때 우연히 신문을 펼쳐보니 상업 산악회에서 추석연휴 기간에 1박2일 일정으로 설악산 오색에서 설악산 정상 대청봉을 거쳐서 설악동으로 하산하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아픈 다리를 끌고 ‘산에서 벗어나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 자신의 한계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악산 등산길에 나선다고 하니 아내가 놀라서 따라 나서게 되었고, 그때 자식들이 중학생, 초등학생 이었는데 온 가족이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함께 등산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후 늦게 산악회 버스로 서울을 출발해서 설악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오색 숙소에서 3~4시간 눈을 붙이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서둘러 지어먹고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서 손전등을 들고 캄캄한 새벽 미명에 당일로 설악산 정상을 넘는 산행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상을 지나서 하산 길에 도착지점을 2~3킬로미터 앞두고 그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신을 벗고 양말만 신고 다리를 끌다시피 하면서 목적지까지 13시간이나 걸려서 저녁 6시가 넘어서야 겨우 도착하게 되었고, 어린 자식들은 발꿈치가 까져서 피가 흐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등산 후 집으로 돌아와서 입술이 부르토고





약 15일 동안을 앓아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등산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산을 등산하면 낭패가 생기는 경우를 직접 목격한 셈입니다.

걷거나 등산을 하다가 ‘다리가 풀리는’ 체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등산을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무리하게 오랜 시간 걸으면 ‘다리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가 풀리면’ 다리가 감각기능을 잃고 ‘고무다리’ 처럼 되어 버립니다. 걸어도 발바닥이 어디에 닿는지도 감각이 없고, 남의 등에 업혀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때를 ‘다리가 풀렸다’ 고 말합니다.

사업을 했을 당시 연휴를 이용하여 등산을 희망하는 직원 30여명과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지리산 등산길에 나서게 되었는데, 지리산 북쪽 뱀사골 숙소에서 1박하고 새벽에 출발하여 남쪽 피아골로 하산 하는 코스였습니다. 하산 길에 여직원 한명이 ‘다리가 풀려서’ 들것을 만들어서 남자직원들이 운반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교회 장로님 한분과 당일 등산 중 동행하시던 장로님이 ‘다리가 풀려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악산 등산을 끝내고 돌아와서 받은 교훈은 다리가 풀리고, 가족이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제 자신은 ‘그동안 무릎관절 때문에 이 약 저 약을 찾고, 옹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는 등 몸을 너무 사리고 아낀 것이 아닌가 이제 설악산을 죽을 각오로 넘는 것도 가능했으니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 무릎관절이 아프다는 관념을 통째로 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거의 매일 같이 아픈 다리를 끌고 힘 달는 데까지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1~2개월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차츰 완화되어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밥을 하루 4끼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 끼는 등산이라는 생각으로 거의 매일 일과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짬 나는 대로 산행 길에 나섰고 수개월이 지나자 무릎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 아내 정현아 권사의 얘기

저의 아내가 2003년에 인고(忍苦)로 인한 것인지, 무릎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무릎관절이 고무풍선처럼 퐁퐁 붓고, 잘 걸지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해 8월에 아들 결혼식 때는 남의 부축을 받아야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

되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이 끝난 후 매주 1회씩 약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무릎에 가득찬 물을 큰 주사기 대롱으로 빼고 나면 또 물이 차고, 무릎에 찬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치료를 받는데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연후에 소염제 등 약 처방과 주사처방으로 통증이 가라앉았는데도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무릎관절에 통증이 거의 멈추자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권유하셨으나 저는 수술의 부작용 등을 우려해서 수술을 극력 말리고 산행 길에 동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내는 아픈 다리를 끌고 평지를 걷는데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등산을 할 수 있겠느냐고 못 마땅하게 생각하였으나 저의 생각은 마누라가 다리에 힘을 잃고 구들막을 떠나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면 본인과 가족이 얼마나 서글프겠는가! 아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의 강제하다시피 해서 등산길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몇 발자국 만이라도 걸을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걸어야 한다. 걷기를 게을리 하면 다리가 힘을 잃게 되어서 구들을 지키는 신세가 된다” 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사업 길에 아버지처럼 섬기며 존경하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자녀들도 많으시고 일본에 무역을 하셔서 가정이 부유하신 분 이셨습니다. 부인되시는 분이 무릎관절을 앓으실 때 전혀 걷지는 않으시고, 한발자국만 움직이셔도 자동차로 이동하시고, 전국 각지의 옹하다는 의원과 일본 각지에서 옹하다는 의원들만 찾아다니시다가 그만 무릎과 다리에 힘을 잃으시고 집안에서 엉덩이로 밀고 다니시며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실 적에는 가족이나 가정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셨습니다. 저의 아내가 저렇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 되어서 우선 힘 달는 데까지 걸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 주말마다 산행 길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산행 길에 나설 때는 큼직한 방석과 두툼한 담요, 따뜻한 옷들, 독서용 책들, 도시락을 준비한 후, 처음에는 등산로 입구에서 걸을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양지 바른 설만한 장소나, 그늘 진 설만한 장소를 골라서 자리를 깔아주고, 제가 약 3~4시간 동안 산행을 하고 내려올 때까지 독서도 하고, 졸리면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산 저 산을 옮겨 등산하면서 조금씩 거리를 넓혀서 2킬로미터까지 걷게 하는데 약 6개월이 소요 되었습니다. 차츰차츰 다리와 무릎에 힘을 얻어서 통증도 사라지게 되었고 1박2일



일정으로 지리산 정산부근 산장에서 자고 천왕봉도 등산하게 되었고, 그 후 덕유산도 같은 방법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종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등산에 더 열심입니다

(3) 같은 교회를 섬기던 김종원 장로님의 얘기

저는 2008년 5월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서울시 광장동과 망우리 경계에 위치한 구리시에 있는 김진홍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두레교회를 섬겼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김종원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중증 중풍’으로 입도 완전히 돌아가시고, 안면마비, 청각, 언어마저 마비되고,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진성적 혈구증가증’이란 ‘백혈병’ 외 몇가지 불치의 병을 더 안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시던 분이십니다.

하루는 자살을 하려고 천호대교에 갔었는데 자살을 감행하려던 순간 갑자기 심장에 큰 통증이 엄습해 와서 다리 난간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살을 할수 도 없게 된 것이지요. ‘자살은 마귀에게 순교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사명이 있기에 자살을 막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병원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최후의 배수진으로 ‘죽기금식훈련’에 돌입하신 분입니다. ‘죽기금식훈련’ 이라면 기도원 같은 곳을 연상할 수 있으나, 장로님은 ‘아차산’을 등산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병마와 정면 승부’ 하는 것이었습니다.

*** 아차산 : 서울 한강변 광장동, 면목동, 망우동, 구리시에 걸쳐 있는 산으로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자웅을 겨루던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해발 250미터 정도의 낮은 명산**

부인 권사님과 가족이 그런 몸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무슨 등산이나고 울며 말리셨고, 장로님도 ‘죽기금식훈련’에 돌입한 후, 너무 힘들어서 골백번 그만 두고 싶었지만, 내 잔여 수명이 3개월 밖에 안 남았으므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번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3개월 ‘죽기금식훈련’으로 정한 시한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망가진 몸으로 금식으로 물만 마시면서 견고 또 견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뒹굴다가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나무에 몸을 기대고 기도하다가 또 견고, 웅달샘을 만나면 엎어져서 미친 사람처럼 물을 마시고, 하루에 3시간 2만보를

등산으로 걸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기력이 소진한 몸으로 금식을 하면서 산행을 하게 되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때로 기력이 너무 소진되어서 ‘다리가 풀려서’ 산에서 구르기도 했습니다. 죽을 직전으로 내몰린 몰골이 이상한 사람이 매일 같이 같은 장소, 같은 산을 등산하는 모습이 등산객들에게 화제가 되곤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등산길에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차산 등산동호회 회원들이 너무 불쌍해서, 쓰러져서 혼절했을 때는 엠브란스를 불러도 주시고, 한편으로는 편히 쉬시다가 돌아가실 것이지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석양 무렵에 기진맥진한 몸으로 나무에 몸을 기대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영혼을 듣고 기적적인 환상을 본 후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그후 3개월 정한 기간 동안 등산을 계속하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지금은 간증으로 전도사역에 마지막 열정을 쏟아 붓고 계십니다.

시한부 3개월 사망선고를 받으시고 체력이 땅에 떨어진 장로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여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독한 약을 복용하면서, 독한 주사를 맞으며, 방사성 치료를 받으셨으면 건강을 회복하셨을까요? 제가 아는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독한 약을 복용하고 방사성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던 분들은 대부분 시한부 인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시고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4) 부자 집 며느님의 얘기

제가 여의도에 살때였는데 바로 옆 동 아파트에 선대로부터 목재소를 경영하여서 부유한 환경을 지니신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테니스를 치시는 분이셔서 저의 가정과 교분이 있었습니다. 내외분이 저의 나이 또래였는데, 그 부인은 너무 귀하게 자라셔서 몸이 가냘프고 약골이셨습니다. 자주 졸도를 해서 엠블런스가 며칠이 멀다고 달려오는 집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들이 부인 건강문제로 공기 좋은 서울 근교 우면산 남쪽 기슭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한번 놀러 오라는 기별이 여러번 있었으나 수년이 흘러서야 우연한 기회에 그 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생기가 넘치시고 너무 건강해 보여서 그 연유를 물어본즉,



이사 온 후 동네 아낙네들을 따라서 매일 힘 닿는 데까지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생겨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5) 백반장사 아주머니의 얘기

여의도에서 살다가 1997년 시흥동 관악산 텃밭 아파트로 이사가서 살 때 였습니다. 저는 등산이 습관화되고 생활화 되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하고 아침 7시경에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 등산을 못할 적에는 오후 늦게라도 꼭 등산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관악산을 오후 늦게 등산을 하고 땅거미(해가 막 떨어져 어둡스레한 때)가 드리워 질 때 혼자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있어 뒤돌아보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저를 놓칠세라 빠른 걸음으로 뒤쫓아 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저가 잠시 멈춰서 휴식을 취하자 그분도 따라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신데 여성분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서 산행을 하시느냐고 물어본즉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신데 땅거미가 드리워지던 차에 앞에 어떤 분이 가시기에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 붙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같이 하산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의 인생

드라마가 참으로 감명 깊었습니다. 40 나이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딸, 아들을 먹여 살리고 교육을 시키려고 구로동 공단에서 10평 정도의 가게를 얻어서 1,000원 짜리 백반 식당을 시작해서 딸은 이화여대를 졸업해서 반듯한 직장에 다니고, 아들은 건대 졸업반인데 행정고시에 붙어서 연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1,000원 짜리 백반장사를 하면서도 알뜰히 저축을 해서 지금의 아파트도 마련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인께서는 몸이 망가져서 만신창이가 되셨는데 고혈압, 당뇨 등 열 가지가 넘는 병의 치료시기를 놓치셔서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셔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너무 고생하시면서 누나와 저를 키우셨는데 이제 식당일은 그만 두시고 등산이 몸에 좋다고 하니 매일 같이 등산을 해보시라고 권하여서, 1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을 문을 닫을 수도 없어서 오전만 나가고 오후는 일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산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후 만4개월이 되었을 때 병원을 찾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고혈압, 당뇨수치가 정상으로 돌아 왔다고 병원에서 손쓸 수 없게 된 병을 어떻게 고치셨느냐고 너무 놀라워하시더군요. 그 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등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6) 택시회사 사장님의 얘기

저가 여의도에 살적에 서울시 주변에 있는 명산은 각기 수백 번씩 산행을 하였습니다. 청와대 뒤흘 북한산 기슭에 ‘평창동’이라는 동네 근처를 산행할 때였습니다. 어떤 택시회사 사장님이 사업을 하는 도중 몸이 망가져서 백방으로 옹하라는 의사를 찾고, 좋다는 약을 구해 복용하여도 효과가 없고 병원에서 손을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동마저 어렵게 되어서 집에 누워서





시한부 인생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께서 지혜를 내셔서 기왕 돌아가실 분 바람이나 좀 쏘어드리지는 마음으로, 따뜻한 봄날 부인과 기사님이 부축을 하고 평창동 등산기점(출발점)에서 자리를 깔고 쉬기를 거듭하다가, 아내와 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듯 한 발짝, 두 발짝 옮기다가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지리산을 종주하기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택시회사 사장 그까짓 것 다 아무 소용없다’고 회장으로 물러나시고 산행으로 건강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7) 시인 ‘한하운; 이야기

강원도 인제를 분수령으로 북으로는 ‘설악산’, 남으로는 ‘방태산’이라는 험준한 산이 있습니다. 방태산 심심산골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 말기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면 지어놓은 움막에 기거토록 하면서 ‘길을 힘이 없는 불치병 환자들’을 무조건 험준한 ‘방태산’으로 내몰아 ‘걸음마’부터 시작하여 수개월씩 산행(등산)을 시키면서 약을 병행해서 처방해 주고 수 많은 불치병 환자를 살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한때는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제3권까지 출간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건강 서적에 관심이 많은 터여서 색다른 제목의 건강 서적이 나오면 어김없이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저의 평소의 소신과 너무 비슷해서 이분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고 아내와 같이 좁고 추운 겨울날 눈길 빙판길을 헤치고 강원도 산간벽촌 방태산까지 그분을 만나보려고 찾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 책 제3권에 보면 시인 한하운은 어느 날 한센병(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센병은 전신암 못지않게 무서운 병 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한하운은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탄식하고 자살을 수없이 생각하다가 정신이 변쩍 들었다고 합니다. 한하운은 걷다가 죽자는 마음으로 썩어가는 손과 발로 하루 종일, 일 년 내내 국토를 걷고 또 걸었다고 합니다. 문둥병자가 지나간다고 채수 없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돌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는 증오심으로 눈에 핏발이 섰지만 그냥 묵묵히 걸었다고 합니다. 걷다보면 발가락이 문드러져서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고 또 걸었다고 합니다. 몇 년이고 걸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 한센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시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 있는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죽을병에 걸려도 죽을 각오로 걷다보면 절반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복원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끈질긴 것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한 발자국만이라도 걸을 힘이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걸어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걸으면 내속에 내재해 있으면서 깊숙이 잠들어서 퇴화직전까지 내몰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치유력이 원상회복 됩니다. 불치병에 내몰렸던 시한부 인생도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운동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운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걷기운동’입니다. ‘걷기운동의 진수(眞髓)는 ’ 등산 ‘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 산에서 각자의 체력에 맞춰서 변화무쌍한 사시사철의 대자연의 기운을 몸으로 받으면서, 내 몸을 대자연에 맡기는 마음으로 ‘등산’을 생활화하면 건강한 삶을 누리시게 됩니다.

등산을 습관화, 생활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 속에 심어 놓으신 “자연치유력”이 왕성한 활동을 하여서 감기 등 잔병치레와 거리가 멀어지고, 생활습관병(성인병), 불치의 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한 몸 속에 심어 놓으신 “자연치유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약사나 의사가 처방해준 약의 효력도 세포 구석구석까지 운반되는 힘을 잃게 되고, 몸에 난 상처나, 의사의 집도로 수술한 상처부위도 쉬 아물지 못하게 됩니다.

등산을 생활화하면 감기 등 잔병치레와 거리가 멀어짐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 (1) 심폐기능이 강화되어서 심장이 힘을 얻게 되고 ‘폐의 기능이 강화되어서 호흡기 질환이 개선 됩니다
- (2) 근력(筋力), 근육이 단련되고 강화되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오장육부가 힘을 얻고 소화기능이 개선됩니다.
- (3) 지구력(持久力)과 인내력(忍耐力)이 강화되어서 무슨 일을 하여도 쉬 지치지 않게 됩니다



(4)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항상 맑은 머리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변화무쌍한 대자연 산길에서 등산을 하면 ‘맑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외 등산의 효과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나 지면 관계로 몇가지만 열거 하였습니다.

포장된 길 위를 걷는 것을 생활화 하는 것도 건강관리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된 길은 지력(地力)이 단절되고, 자동차 소음과 매연 등 주위에 신경을 거슬리는 일들이 많고, 대 우주의 기운을 몸으로 느끼기에는 대자연 산길을 등산하는 효과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좋은계기’ (동기)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좋은 계기’가 우리들의 인생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런 ‘좋은 계기’는 여러가지 경우를 통하여 만나지게 되나 언제나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는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세월동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요 축복의 땅’ 이라고 하지만 이민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눈물을 뺨뭍 듯 하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겨우 자리를 잡는가 했더니 인생이 황혼에 가깝고 건강마저 망가져 버렸다면 나머지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미주 한국일보 2011년 1월 첫날 1면을 보면 교민들에게 새해 소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설문지를 보면 새해의 제일 큰 소망은 ‘경제회복이나 장사가 잘 되는 것’ 이 아니라 <건강>이 첫째라고 답하였습니다.

한국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금년에 칠순(七旬, 古稀)을 맞이하셨는데, 기자가 새해 제일 큰 바램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자 <건강>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먹고사는 기초적인 문제는 이제 대강 해결되었으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여전히 ‘건강한 삶’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뒷받침이 안되면 어떤 일도 해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일의 성도님들은 한가지 운동을 꼭 생활화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도 만사가 허사가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번에 예일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좋은 계기’, ‘좋은 동기’를 주셨다고 생각 됩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좋은 계기’, ‘좋은 동기’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 합니다.

지금까지 한가지 운동을 생활화 못하신 성도님들은 ‘예일등산동호회’에 오셔서 “등산”이 ‘습관화’, ‘생활화’, ‘체질화’ 되실때까지 꾸준히 참여 하셔서 나그네 인생길에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문의

섬김이 (정)성태섭장로 (c)631-697-9879
(부)정현아권사 (c)631-327-0232

도우미

총무담당 (정)강호정집사 (c)646-247-8007
(부)임미라집사 (c)646-823-8646

도우미

친교담당 (정)이학용집사 (c)347-205-4555



추수 감사절 감사찬양제



김주상 권사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제는 우리 교인을 하나로 뭉치고 함께 찬양 올리는 열정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 열정은 어디서 온 것일까 생각해봅니다. 목양칼럼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통해 열정적으로 살기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민살이에 지치고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 무감각으로 일상을 겨우 꾸려가고 있으니 무엇에 열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모두는 무엇에 사로잡힌 것일까요? 하나님께?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와 보살핌에서일까요? 폭발적인 열정, 뿔어져 나오는 사랑, 툭툭튀는 아이디어 등 이런 모든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교회당을 단위에서 보면서 그때 나는 푹푹히 보았습니다. 하나된 예일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5년째 다섯번의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예년엔 더 화려하고, 활력에 찬 찬양제 였습니다. 금년, 그런 모든 소도구, 걸치장 등은 다 사라지고 검소하고, 최소한의 소도구와 세련된 합창, 다양한 음악에, 깔끔한 동작, 단연 일품인 찬양제 (정말 1.2 등을 못매길 만큼) 였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선교회면, 흰 상의와 검은 상의의 두 목장은 열심히 울동으로 응원해주셨겠습니까? 목사님의 앵콜로 얼마나 애교로운 모습이었을까요? 노권사님 수고로 어린 학생들에게 과자봉지 나눠주게 하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금년, 특히 감사할 일로 가득합니다. 2월 부터 3개월간의 아들 병치레, 그 시련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신 감사! 성경말씀 그림전으로 약소하나마 선교헌금하게 해주신 감사! 1개월간의

한국 일주여행 감사! 8월부터 3개월간 준비로 탈북자 돕기 시화전 한 감사! 감사 감사 감사뿐입니다.

산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이란 앞이 캄캄하고 숨쉴 수 없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의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목사님이 뿌린 씨가 든든한 열매로 자랐고, 또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 찬양제 모습을 목사님도 보시고 흐뭇하셨지요. 또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편지에 화답으로 올립니다

2010. 11. 23 밤에

“팔팔” (26/26)



이근만 집사

1958년도 개띠 해에 태어났으니 올해로 내 나이가 52세가 되었다. 52년을 살았으니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나 돌이켜보게 되었다. 긴 세월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며 과연 제대로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없이 젊고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20

대와 30대를 보내고 40대를 지나 52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나이 50이 지나면서 신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생겼다. 여러 달 전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목관절이 접히면서 오랫동안 걷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고생한 적이 있었다. 평소에 아침 일찍 동네를 한 바퀴씩 달리기도 하였고, 교회 사람들과 어울려 축구를 할 때도 잘 달렸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길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발목이 나아져갈 무렵부터는 무릎이 불편하기 시작하였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듯하여 통증을 느낄 때가 있었다. 또한 시력이 약해짐을 느낀다. 찬양시간에 멀리 있는 자막의 가사내용이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메뉴판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 당황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 주변에서 “이 집사, 그게 다 노화현상이야” 라고 대꾸한다. 하긴 100세까지 장수하겠다는 나의 개인적이고, 야무지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발표하지 않은 계획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미 반 이상을 살아왔다. 삶을 돌이켜보며 무엇인가 의미를 찾고 싶었다.

84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니 이민생활이 26년이다. 내 인생의 절반 26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나머지 절반 26년을 미국에서 산 셈이다. 서울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였고, 미국에 와서는 다시 대학을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26이라는 숫자를 보며 나의 숫자에 대한 분석과정이

시작되었다. 2 더하기 6은 8, 한국에서 26년 그리고 미국에서 26년의 생활을 88이라는 숫자로 집약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88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88년도 서울올림픽이 될 것이다. 지구촌의 가장 큰 스포츠 행사로서 한국인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주었던 귀중한 일이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6.25전쟁을 떠올리는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바꾸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88올림픽이 진행될 때에 나는 설계사무실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North Korea에서 왔느냐, South Korea에서 왔느냐고 묻던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직장 동료들에게 올림픽 경기와 함께 보이던 서울의 모습은 놀라움과 감탄이었다. 가난하고 험벗은 나라가 아니고 현대화 되어있는 아름다운 문화를 TV를 통해 보았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 덕에 나는 직장에서의 위상이 높아졌고, 88올림픽의 덕을 단단히 보게 되었다.

내가 아는 분의 전자메일 주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in him im 88’ 즉 주 안에서 나는 팔팔하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에서 나는 팔팔하게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듯이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팔로 이끌어주는 삶을 살 때에, 나는 시들지 않고 팔팔(88)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는다.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노화현상과 바쁘고 힘든 이민생활에서 오는 피로감과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의 우울함,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팔팔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나의 새로운 결심



한상근 집사

우리 집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까지 I-95 도로를 이용하는데 왕복 98마일 거리이다. 새벽 5시30분에 운전하기 시작하여 일터까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 걸리며, 퇴근길은 이보다 더 걸린다. 한 번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지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3시간 30분이 걸렸다. 허리가 약한 나에게는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

이런 일이 나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와, 어느 날 목사님께 일이 힘들어 수요일예배와 2부 예배, 찬양예배를 드릴 수 없고, 3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쉬면서 다음 주의 일을 준비 해야 하므로 지난 16년 동안 맡아 왔던 방송부 일을 내년부터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목사님의 얼굴에는 염려의 빛이 역력함을 보았다.

이 일이 있던 지 2-3일 후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내가 일하는 가게를 살피고 매상을 물어보았다. 누구냐고 물으니 이 가게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곧 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언뜻 하나님께서 ‘네가 피곤해서 내 일을 못한다니 아예 편히 쉬게 해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앞섰다. 부양해야 할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이 직업을 잃고 집에서 놀고 있다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한 노릇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라며 떼를 썼다.

그 낯선 사람이 다시 와서 계약되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이 가게가 마음에 꼭 들고, 주인은 이 가게를 팔아 새 가게를 들여놓고 새 가게를 꾸밀 생각이었다. 나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선심이나 쓰자고 가게를 사려고 온 사람에게 이 가게의 나쁜 점들보다 좋은 점들을 말해 주었다. 그 때 목사님께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래도 힘이 닿는 대로 하던 봉사를 계속하시라는 것이었다. 나는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순종하겠다고 기쁘게 대답했다. 실제로 그동안 너무 좋아 봉사하던 사역부인데 그만 둔다니 마음 한 쪽에서는 섭섭한 감이 많았었다. 게다가 이제 직장도 잃고 할 일도 없다하니 뭔가 쓸쓸한 감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쁨을 주었는지 몰랐다.

다음 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가게를 그렇게 좋다고 하며 살려고 계약했던 사람이 갑자기 커피를 사들고 와서 그간 마음 고생 많았다고 이 가게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 가게는 I. R. S.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아무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목사님의 전화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에게 말하니 가족들의 얼굴에서 밝고 행복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뭔가 이상해서 왜들 그러냐고 물었더니, 가족들은 아빠가 그동안 즐겨 봉사하시던 것에서 손을 놓고 3부 예배만 드리겠다는 소리를 듣고 아빠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여 합심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셔서 기뻐서 웃는다는 것이었다.

내 한 몸 힘들다고 우리 가정이 그 동안 어렵고 힘들 때 마다 사랑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못한다고 하니, 그 동안 주신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좋은 기회였다.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만의 이득을 취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자리에 기쁨으로 다시 앉는다.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옥경 사모

더 이상 밀려 갈 곳 없이 막다른 내 삶에 찾아 오신 주님 쓸모 없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감춰 두고 싶었던 지나간 삶에 그때에도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더기 같은 나의 삶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달전 어느 밤에 평소와 다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엔 주님과 같이 정말 깊은 둘 만의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서든 과거가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사모’ 라는 위치로 드러나야 될 내 모습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 하필 집안도 학벌도 능력도 외모도 어느 것 하나 손에 들고 내 놓을 수 없는 이런 약한 사람을 괴롭게 하시나요? 내 삶은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그 질문부터 주님께 하면서 기억해 낼 수 있는 가장 어릴 때 부터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대대로 농사짓던 우리 집안의 뿌리는 불교, 유교, 미신 등 다양한 것이었습니다.

4대가 한 집안에 살며 집안 전용의 절과 조상을 모셔두는 사당과 할머니가 집 안 감나무 아래 마다 모셔놓은 신주단지 등이 있었습니다. 일 년 내내 끊이지 않는 제사와 동네 큰 굿판을 벌이는 집이었습니다. 엄마의 표현에 의하면 솔로 망한 집안이라고 할 정도로 먹고 마시는 일에 힘썼던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저는 7남매중 여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제대 후 우리가족만 데리고 분가하셨습니다. 1년뒤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고 장남은 어릴 때 죽고 엄마 혼자 6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 결핵에 걸렸습니다. 장남인 아버지에게 있던 유산은 삼촌들로부터 모두 빼앗기게 되고 엄마와 우리앞엔 참혹한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뼈뜰게 나가 불량배가 되었고 언니 들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어찌면 이렇게 된 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그저 그림자처럼 집안 어디엔가 있으면 되었습니다. 몇 년 앓은 결핵으로 보건소와 병원을 오가며 학교는 잘 다니질 못했습니다. 엄마도 계속 아프시면서 무당이 되는 곳(내림곳)도 받으셨습니다. 다락방에 무당집처럼 차려놓은 것들이 나를 조여 왔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것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형제, 친구와의 관계도 거의 없었습니다.

중, 고등학교 때 좀 철이 들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을때 난 더 움츠러 들었습니다. 푹푹하고, 반듯하고, 활기 있고 자신 있게 웃고 서로 잘 사귀어 노는 아이들, 부모님이 계신 아이들 난 그 부류에 끼일 수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래도 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공부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고3때 급성 신장염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야했습니다. 밖에서 사고치고 다니는 오빠의 뒤통수, 수시로 찾아오는 빗쟁이들 가난은 참 지겨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적공사에 사무직 공채1기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을 굶지 않게 하였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로 죽고 싶을 만큼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킨 곳 이었고 나를 재 조율할 수 있었던 곳 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나를 인정해야 했고 고졸출신인 네가 어떻게 감당 하나 하는 시선을 떨쳐야 했습니다. 결국 승진도 해보고 내무부 장관상까지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형편은 빛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난 지쳐갔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될 줄 알았던 내 마음은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그 무렵 절대자란 과연 있는 것일까란 의문이 들었었을 때입니다. 이런 저런 책을 보았지만 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 생각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절대자인가 알아보자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대고 아기를 출산하고 바로 교회로 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했던 약속이니까 안 지켜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알 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나를 움직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내 영혼은 바짝 마른 낙엽처럼 부스러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약속을 지켜 교회에 발을 디딘 순간 찬양대의 노래는 천사소리 같았고 내 모습은 가시밭길과 마구잡이로 힘들게 살다가 이제 안주할 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그렇게 눈물 콧물 범벅이 되게 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는 자신이 이해 할수 없어서 내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아버지’, ‘주님’ 이라 부르는 것을 나는 할 수가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내겐 의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었다가 산 것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9개월후 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 밖으로 나올때 밤이지만 나무는 살아서 일렁이고 있었고 회색 하늘은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자이면서 절대자이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내 아이 만큼은 나 같은 삶을 주지 마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 믿는 아이입니다. 그것이 제겐 엄마로서 가장 큰 복이고 기쁨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나와 지금까지 27년 동안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며 저주에서 축복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가정을 천국처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나의 아버지는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 위해 낮고 천한 나를 구원해주셔서 그이름을 선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인 주님의 택하신 모든 분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우리 중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만나 주셨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는데 어떤 힘이 무릎꿇은 나를 온전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힘은 포근했고, 강했고, 부드럽고, 사랑이고, 다 이해하고, 능력이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의문은 더 이상 문제되지



추천하고 싶은 영화 [미션]을 보고



조태성 집사

영화 ‘미션’ 이 나온 때는 내가 미국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욕망의 끈을 잡고 달려가던 때였다. 이 영화가 제작된 1986년에 나는 뉴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열심히 이민 생활의 기초를 다지던 때였다. 이런 영화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서 힘든 초기의 이민생활을 시작하던 때였다.

습관적으로라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웠다. 모든 삶에 그야말로 열심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교회에도 열심히 다녔고 돈도 잘 벌었다. 사촌 처남과 함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꽃 피운 청춘이 있어서 좋았다. 그 사이에 두 아들이 더 생겼다. 아내와 네 자녀를 양육해야 할 생활의 책임감이 나를 엄습할 즈음에 나는 어느덧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 있었다. 40대에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제대로 만났다. 영화 미션의 주제곡을 들으면서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다.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맡아 영화와 함께 멋진 분위기를 연출했다. 주제 음악인 ‘On Earth As It Is Heaven’ 은 경건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넘치는 곡으로 영화 전편에서 감동을 주고 있다. 나는 음악의 저변에 깔린 깊은 고독을 만났다. 가브리엘과 로드리고의 고뇌하는 모습들이 주제 음악과 함께 중간 중간 영상이 되어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폭포 위, 천연의 요새지인 정글 속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삶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남아메리카의 과라니 부족들과 소명 받은 예수회 신부들의 사랑과 헌신, 고뇌와 갈등의 이야기를 이 영화는 그리고 있다.

영화는 한 명의 사제가 십자가에 묶여서 과라니족에

의해 폭포로 떨어지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계속되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다시 찾는 신부들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과라니족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가브리엘과 로드리고는 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간다. 그러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땅 따먹기 식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원주민과 함께 세상을 떠나간다.

오랜만에 나를 돌아보는, 생각하게 하는 영화를 만나서 좋았다. 로버트 드니로가 맡은 ‘로드리고 멘도사’ 는 용병이며 노예상인이었다. 사랑하던 여인을 동생에게 빼앗기자 동생을 죽이는 무자비한 사나이였다. 살인자로 자포자기하며 감옥에서 지내던 중 가브리엘 신부가 찾아온다. 가브리엘의 설득으로 마침내 노예 사냥꾼 ‘멘도사’ 에서 사랑의 사도인 ‘로드리고 신부’ 로 탈바꿈한다. 사람의 인생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생은 나를 그냥두지 않는다. 살아가는 인생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예수회 신부들의 참회의 방법이 특이하다. 가브리엘 신부는 로드리고가 노예사냥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을 모아서 꾸러미를 만든다. 이 꾸러미에 긴 끈을 메달아 어깨에 걸고 폭포를 오르고 산을 오르면서 로드리고가 핍박한 인디언의 길을 참회의 길로 선택하였다. 로드리고가 핍박한 인디언들은 이러한 그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의 삶을 시작한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많은 죄와 죄책들을 모은다면 ‘나도 로드리고가 지고 간 꾸러미와 같이 한 묶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 부끄러웠다. 더군다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심죄(心罪)는 어찌하랴?

원주민에게 헌신하면서 신부의 길을 택한 로드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지냈다. 그의 지나간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을 신부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은 참 좋았다. 이렇게 영화가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영화는, 추기경의 정치적인 압박에 못 이겨 과라니족의 지역을 스페인이 아니라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결정하게 되면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간다.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는 신부들의 설득에도 과라니족은 불응하고 끝내는 포르투갈의 군대와 싸워 전멸한다. 로드리고는 칼을 들고 군대와 맞서 싸우다 죽었고, 가브리엘은 과라니 원주민과 함께 찬송하며 평화행진을 하면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다. 로드리고의 참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과라니족이 로드리고에게 베푼 용서는 더욱 의미가 크다. 가브리엘과 로드리고는 서로 다른 길을 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두 사람의 길은 사랑의 길이였다. 로드리고가 잡은 총과 칼이 사랑이었다. 가브리엘은 과라니족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러 오는 군인들까지도 사랑했다. 그리고 살아남은 과라니족 원주민 아이들은 땅바닥에 있는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더 깊은 정글로, 정글로 들어가면서 영화는 끝을 맺는다.

나는 어떤가?

나는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가브리엘은 손에 십자가를 들고 순교를 했다.
로드리고는 손에 총과 칼을 들고 순교를 했다.
가브리엘의 손에 든 십자가와 로드리고의 목에 건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황무지 같고 헤쳐 쉬지 않으면



김태수 집사

금년 추수감사 축제 찬양 준비로 많이 부른 찬송가입니다. 매년 이맘때 즈이면 많이 찾고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지만 금년처럼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고 정말 가슴 깊이 감사함이 넘치기는 처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찾기로는 수십 년이 되었지만,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똑같은 사물도 누가 언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양각색이고, 성경도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르나 봅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로 인 것 같습니다. 메마른 황무지, 우리 이민의 삶 그 자체입니다.

언어와 생활 습관이 다른 그야말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아 얼마나 열심히 쉬지 않고 노력하기에 따라 결과는 제각각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추위와 메마른 땅에서 이리저리 쫓기고 헤매며 고생하다가 그나마 광야 1세대(약60 만 명)는 다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랐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지요. 다급하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여 달라하며,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이 감사 조건보다 더 많은 우리의 삶.

가까이 있는 여리고 성(Jericho Turnpike)을 보지 못하고, 넘지 못하고 그 멀리 있는 포코노를 들락하던 시절이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 같았습니다. 자연이 좋아서 주말이면 집을 빠져 식구를 데리고 왕복 300 마일의 먼 길을 마다않고 거의 7년 동안 헤매던 시절이 있었고, 잘 나갈 때 여기저기 투자하여 날리고 고생하던 때,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 왔지만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런 생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아이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처럼 아내와

나 우리 둘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집 관리를 전혀 하지않은 상태라 손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들은 오랜 세월을 ‘황무지 같고 헤쳐 쉬지 않으며’ 수리하고 Renovate 하여 지금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계절마다 자연이 주는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변화와 경치, 맑고 깨끗한 공기, 운동 삼아 움직이는 적당한 일거리와 텃밭 가꾸기는 매일 우리부부를 행복하고 건강하게하며 또한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 자랑하며 즐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홍철리 집사

내 아내 김애란집사와 나는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한국에서 나는 주로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미국에 살던 김애란 집사는 미국에서 나올때마다 나의 클라이언트 미용실에 들르는 단골 손님이었다. 우리 또래 미용실 원장이 우리를 소개했다. 국민학교

동창이었던 우리는 3개월 연애 그리고 6개월만에 김 애란 집사가 손해본 결혼을 했다. 결혼 6년만인 1999년 12월 14일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

다행이 나는 아무도 공항 마중을 나오지 않은 탓인지 전공을 찾아 맨해탄에서 호텔 레노베이션을 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2001년부터는 주로 교회를 짓는 건축 회사로 옮겼다.

회사를 옮긴 후 처음 내가 맡은 공사는 브루클린에 20,000sf 흑인 교회를 짓는 일이었다. 기존의 작은 교회를 Demolition하던 어느날, 길 건너 아파트에서 흑인 네 다섯 명이 현장에 들어와 자기들을 일꾼으로 고용하라고 강요했다. 결국 1명을 고용했지만 사소한 시비로 복면을 하고 권총을 내게 겨누는 죽을뻔한 고비를 넘겼다. 그 후로도 그 흑인은 길가에서 나를 만나면 지팡이로 내게 겨누고 총을 쏘는 시늉을 하곤 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꼭 해야 하나? 아님 그때 차라리 총을 뺏어 버리고 꼼짝 못하게 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를 하곤 했다. 결국 동네의 흑인 BOSS를 고용하고, 그 친구와 함께 커피도 마시고 일도 시키고 친하게 지냈다. 그 친구는 날위해 다른 흑인과 싸워 주기도 한 고마운 친구였다. 공사를 끝마치는 동안 그 친구는 교도소를 두 번이나 갔고, 두 번째 간 후로는 공사가 끝날때 까지 오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나 혼자만 그 험악한 브루클린에 내보내 놓고 사장도 겁이 나서인지 잘 와보지도 않았다. 매일 아침 7시경 현장 앞에 스트리트 파킹을 할 때면 뒤통수가 간질간질했다. 누가 내 뒤통수에 총을 겨누지 않을까 해서 였다. 그들은 대부분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로

박을 다녔기 때문이었다.

그 험한 동네 험한 공사를 하는 동안 흑인 목사 (PASTOR KEATON)는 이 부지에 큰 성전이 생긴다는 기쁨으로 검은 비닐 봉투에 콜라나 커피를 사들고 매일같이 내게 와서 CHARLIE, CHARLIE 하고 좋아 하곤 했다. 가끔씩 고무줄에 묶인 돈을 꺼내 주일에 \$400 정도 받는 돈 자기는 필요 없다고 내게 \$100 씩 \$200 씩 주기도 했다. 지금은 젊은 나이로 고인이 되었지만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한 후에도 REFERENCE를 위해 전화해주고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던 너무나 고맙고 많은 역할을 해준 흑인 목사였다.

1층 바닥공사가 끝나니 교인들이 하나 둘 씩 오기 시작했고, 어떤 교인은 너무나 좋아 등실 등실 춤을 추기도 했다. 마약으로 눈동자는 다 풀리고 총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그 흑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모든 교인이 PASTOR KEATON 이 나를 대하듯 깍듯이 대우해주고 가족으로 대해 주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종교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약 1년간의 공사가 끝나갈 무렵 하늘을 쳐다보며 SCAFFOLDING의 숫자를 세다 WATER MAIN 연결을 위해 파놓은 구멍이에 빠져 오른손 새끼 손가락 신경이 끊어지고 32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예정된 입당 예배가 늦어져 전신마취 수술 후에도 다음날 현장에 나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저멀리서 키튼 목사님이 나를 박수로 맞아 주었다. 그리고 뜨거운 포옹을 했다. 드디어 입당예배, 최신 시설의 SOUND SYSTEM, 조명시설, 그리고 말로만 들던 가끔 TV 에서만 보던 어우러진 흑인들의 찬양을 보고 들으며 정말 놀라고 가슴 벅찼다. 이렇게 미국에서 나와 교회의 인연은 시작 되었다. 그 후로 두 번의 콘도 공사 견적이 맡겨졌으나 다른 소장이 하게 되었고, 얼마후 중부 뉴저지 SOMERSET에 찬양교회 BIDDING 을 하게 되어 두꺼운 한권의 SPEC. BOOK 과 한 달 이상을 씨름한 결과 건축업자로 선정되었다. 사장님이 물었다 “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 하자” 고. 승용차로 1시간 반 왕복 최소한 3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거리였다. 그래도 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시작된 공사는 8 ACRE의 야산을 깎아 20,000 SF 빌딩과 220 대를 PARKING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일이었다. 뉴욕에서는 콩그리쉬가 대중 통했는데 뉴저지로 가니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래도 TOWNSHIP, ENGINEER, ARCHITECT OFFICE를 부지런히 찾아 다녔고. LOCAL 하청업자들 현지에서 찾아 계약하고, 까다로운 INSPECTION을 수십번을 받고, COMPOUND가 얼을까봐 밤새도록 불을 피기도 하고, 인종 차별을 받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면 졸음 운전이 차가 비틀거리고, 반대편 차선으로 달리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2주에 한번 하는 JOB MEETING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추운 현장 다락방에서 숙식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곳에서 건축위원 장로님들과 2주에 한번씩 JOB MEETING 을 하며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체 성전이 없던터라 가끔씩 목사님이 오셔서 비전의집이라 부르던 내가 쓰던 교회집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 하시는 모습도 보았다. 그리고 가끔씩 사랑방 이라는 것을 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두 곳의 교회를 짓고 나니 4년이 흘렀다. 결국 나는 4년 동안 매일같이 교회를 다닌 셈이다.

어느 날 직장 동료 여직원이 자기의 생일 선물로 자기 교회에 나와 달라 하였고, 그 후로 나는 한 번이 아닌 약 7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과 여동생 일이 생각난다. MT를 갈 때면 회비도 내지 않으면서 꼭 따라오던 정말 알뜰기 짝이 없었던 그 아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 형과 내가 여기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그 아이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했다, 그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에 있었던 두 사람을 통해 내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고, 교회로

인도 하셨고, 두 곳의 교회를 맡아 짓게 하는 영광을 통해 미래의 나의 교회 생활을 미리 보여 주셨다.

정말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진 어느 날, 예일교회에 와 보고 평화로운 교회 전경에 먼저 반했고 정말 포근한 교인들의 친절에 여기가 천국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해도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했지만, 우리 예일교회 에서는 자진해서 세례공부, 새 신자 교육, 101 제자 훈련, 201을 거쳐 성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처음 목장을 같이했던 신영필 집사님, 이근만 집사님, 신동근 집사님 가정의 따뜻한 배려 덕분이었다. 이 글을 통해 깊이 감사 드리는 바 이다.) 비즈니스 관계로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간 단짝 친구 성진이는 예전처럼 술 마시기를 기대했지만, 두나미스 중창연습, 목자 총무 위로의 밤 등 온통 교회 일로 바쁜 나를 보고 “ 네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했다.

하루도 현장을 비우지 못했던 나는 1선교 어머니들과 효도관광 운전 봉사도 하고, 정말 안 어울리던 찬송가를 박수와 함께 몸을 흔들며 부르기도 한다. 내게도 성경책이 든 가방이 있다. 나도 정말 예수쟁이가 되어 가는 듯하다. 아니 예수쟁이다. 하지만 군대 제대 후 사회에 적응 하느라 한참을 고생했고, 노가다(공사현장 근로자)들과 기싸움, 몸싸움도 통하지 않는 미국 생활, 이제는 육은커녕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하니 정말 나하고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요즘 아주 많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슬플 때가 많다. 하지만 나는 참는다. 어금니를 짹 깨물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니까. 가짜 말고 진짜 말이다. 그래서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변화 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도미니카 선교로 인해 후보에 흥 찰리라는 이름이 알려지면서 여러 사람이 찰리, 찰리, 하고 나의 이름을 재미있게 불러 주었다. 그동안 나의 의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 하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독불장군으로, 무식한 싸움꾼으로 얼굴에 카리스마를 심으려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부르는 찰리는 사랑스런 재미있는 찰리였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강하



지 않아도 되고 똑똑하지 않아도 되는 찰리. 순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친근감 있는 찰리로 다시 태어나기로 다짐했다. 흥 찰리 정말 친근감 있는 재미있는 이름 찰리로 말이다.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우리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다. 어느 날 성가대에 앉아 천정을 두리번 거리니, 교회 구석구석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교회 공사를 맡겨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어 헌신 하게 하시니,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님이라. 그래서 토요일에는 자주 교회에 와서 푹푹거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에 찾아와 무언가 고치고 만진다. 웬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듯하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상을 내려 주실 듯이 가슴이 벅차다.

나는 요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꼭 지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술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멘



예정된 일'



이진배 집사

2010년 1월 31일 주일 아침 식구들은 교회 가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나는 너무 어지러워 일어 날 수가 없었다. 몇 주째 물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다리가 너무 저려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었다. 강집사에게 교회 다녀오라하고 난 무거운 몸을

침대에 눕혀 잠깐 잠이 들었다. 한 시간 후 목마름에 부엌으로 가서 찬물로 목을 축이고 돌아서는데 정신이 가물가물 꺼지듯 킁킁한 동굴로 떨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부엌 바닥에서 일어나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2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일어나려고 해도 몸은 더욱 더 가라 앉고 무엇에 의해 짓눌리는 기분에 그냥 화장실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다가 또 한 번의 기절. 깨어나 보니 또 2시간 정도가 훌쩍 흘러갔다.

방으로 간신히 몸을 끌고와 침대로 올라가는데 진땀으로 온몸을 젖었고 또 깊은 잠으로 빠져 들었다. 시간은 훌쩍 흘러 정신이 들어보니 4시가 넘었는데 진짜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다 소진되어 있어 겁이 덜컥 밀려왔다. 강집사에게 전화를 하니 소리만 몇 번 울리다 끊기고 해서 아마 아직 성가대 연습이 계속 되나 보다 생각하고 흥재역 집사에게 전화를 하니 찬양 예배가 끝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쉬다가 다시 긴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지난 몇 년 간의 일들이 머릿속으로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 정말 내가 다니는 회사는 beauty supply 쪽에서는 전자제품을 거의 뉴욕 뉴저지에 독점으로 팔 만큼 큰 회사였다. 그 회사사장이 인도 사람이라 일하는 사람들을 안 믿고 해서 내가 일을 시작할 때는 두 명만 한국 사람이 일했는데 나중엔 salesman 5명에 Delivery 하시는 분까지 6명이 일하는 회사가 되었다. 그 회사에서 정말 5년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른다. 전에 혼자 하던 사업이 망해서 빚진 것도 많고 외국인 밑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도 싶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 만이 내 편은 아니었다. 원래 당이 있어서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나가면 다 사먹는 음식들이고 병원에 가면 흰 음식(쌀, 설탕, 소금, 밀가루……)은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서 sale을 다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망설이다 한집 더 가서 sale 하고 먹지 하고는 또 시간을 보내다 아 이젠 집에 가서 먹지 하곤 시장한 배를 달래다 집에 오면 어떤 날은 폭식 후에 잠이 들고 어떤 날은 시장 끼도 못 느껴 더 많이 먹지도 못하고는 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위산이 많이 나와 속이 쓰리면 젠탁이나 위산제로 속을 달래고는 했다. 아마 이런 것이 오래되면서 위에 궤양이 생겼나 보다.

2007. 9. 17일

그날은 정말 아침부터 바쁜 날이었다. 그때 부쩍 사장님이 수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재촉을 해서 하루에 짝 찬 일정으로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왼쪽 눈 안에 아주 작은 검은 점이 생겨서 눈동자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여 갑갑했다. 강집사에게 거울보고 좀 그 점을 빼내라고 하니 없는 점을 어떻게 빼냐고 되묻는다. 난 점이 눈 안에 돌아다녀 거북한데. 그날은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 이젠 눈 안에 거미줄이 생겨서 막 거미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라 급하게 안과에 appointment를 잡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이다 당 합병증으로 눈 안에 혈관이 터졌으니 빨리 Manhattan에 있는 안과 전문병원으로 시간을 다투어 가야지 잘못되면 실명한다는 말에 낙심하며 그 병원에 찾아갔다. 병원에서 급성으로 눈 속에 생긴 핏줄이 터져 빨리 피를 뽑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5시간의 수술 후에 겨우 실명의 위기는 넘겼지만 눈 검사할 때 안경 쓰고 제일 큰 글자만 보이는 정도의 시력이 되었다. 그 후에도 많은 횡수의 레이저로 핏줄을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

겨우 한쪽 눈으로 대리운전을 시키며 sales를 계속 다녔다. 대리운전을 시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수입이 있었으니까. 눈 병원은 거의 2주에 한번 플로



다니면서... 그러던 어느 날 Bronx의 어느 가게에서 sale 중 오른쪽 눈에서 검은 점이 보이기 시작해 얼른 차로 나왔다. 그날은 대리운전 해 주시던 분이 불일이 있어서 직접 보이는 한눈으로 운전을 하며 다녔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으니 무조건 집으로 빨리 돌아오려고 87번을 얼른 타고 오는 도중에 드디어 생각하던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 눈에 거미줄이 생기면서 안보이기 시작하는 거였다.

가장 바깥쪽으로 시속 20 마일 정도로 내려오니 뒤따라오던 차들이 난리가 났다. 정말 그 시간은 나에겐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또 눈 병원에 가니 안압이 20까지가 정상인데 지금 40에 가깝다고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안을 봐야 하겠는데 잘못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고 할 말을 잃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7시간의 수술 끝에 담당의사는 ‘눈의 혈압이 오래 높은 상태로 있어서 망막이 30%정도 떨어져 있고 눈물구멍이 막혀서 인공으로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지금부터 더 눈 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나중에 백내장 수술 한 후에 눈이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알게 된다고 불편해도 그때까지는 고생을 해야 한다는 말에 몇 년을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걱정이 되었다. 여름에 한창 밝은 태양 밑에서도 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이 어둡고 눈이 잘 안보이니 언제나 모든 일에 자신이 없게 되고 또 사람을 똑바로 안 보게 되는 버릇도 생기게 되었다.

가장 큰 일은 안 보이게 되니 자신감의 상실이 아닌가 한다. 정말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의 고충을 반이라도 알게 되었으며 나에게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가 솟구쳐 올랐다. 아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감사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운전을 직접 못하니 직장도 잃게 되고 집에서 몇 달을 쉬게 되었다. 처음엔 미국 와서 정말 오랜만에 쉬니 얼마나 편한지 늦잠도 자보고 이것저것을 하면서 몇 달을 보냈다. 그러니 생활의 어려움도 몰려오고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기력감으로 젖어갔다. 이런 생활 속에서 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원망으로 바뀌어갔다.

다시 용기를 내어 직장을 구하려 여러군데 이력서도

내보고 아는 분들에게 부탁도 해보았지만, 역시 차 운전을 직접 못하고 잘 안 보이는 것, 또 경력을 인정하면 많은 주급을 줘야 하는 것 등이 걸림돌이 되어 직장을 못 구하고 반년 이상이 흘러가고 말았다. 나의 생활은 점점 무기력해 가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점점 없어지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던 중에 아는 후배가 차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니 자기 좀 도와 달라며 연락이 와 맨발로 달려갔다.

그 일은 Credit Card Merchant Service로서 가게를 직접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 하는 일이었다. 워낙 사람들을 만나는걸 좋아하는지라 승낙을 하고 진짜 열심히 뉴욕을 돌아 다녔다. 버스 지하철 또 버스 내가 다시 할 일이 생겼다는 그 기쁨에 가끔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해가며 구두가 다 떨어지도록 돌아다니며 많은 한국 분들을 만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듣고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좋았다. 하지만 현실도 무시 할 수 없었다. 하는 일이 어렵고 수입이 너무 적어 힘들어 하던 차에 매일 추운 겨울날 돌아다니다 자주 만나는 한국 분이 있었다. 어느 날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어차피 이렇게 많이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른 일을 해 보고 싶지 않냐 는 거였다.

자기가 돌아다니다 한국 마켓에서 어느 목사님의 CD 를 1년 정도 계속 듣고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느 눈 많이 온 주일날 CD가 없어 그 목사님에게 부탁하니 직접 만나서 주시겠다는 말에 그 목사님과 만났다고 한다.

이런 저런 얘기 중에 그 교회 청년부장이 재정 설계와 보증을 아주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신앙심도 깊은 청년이 있는데 오랜 기도 중에 자기가 NJ에 사무실을 OPEN하고 NY에도 하려고 하는데 NY에는 이제 보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니 만나보라고 권면하셨다고 한다. 만나보니 이제 32살의 이민 2세로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다. 그 사장님이 License라는 비용도 다 대준다고 하며 License를 가진 직업이 더 대우받고 좋지 않겠냐고 나에게 권했다. 집에 돌아와 기도하며 며칠을 고민 하던 중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마 내가 그 일을 하게 인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며 몇 십 년 만에 영어로 학원에서



Life Insurance를 강의 듣고 집에 돌아와 밤늦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다. 눈이 침침해 오래 집중도 못하고 또 다시 시작한 영어 공부가 시간 만 잡아먹었지 진도가 나가지 않아 시간을 많이 필요했다. 이런 준비 중에 그 젊은 사장님을 만나보니 아주 신앙심도 깊고 아침 새벽기도회 시작하기 전엔 부부간에도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첫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런 사람과 일을 같이 하면 내 신앙심에도 많이 좋은 영향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저런 얘기 중에 그 교회 목사님에 관해 얘기하던 중 가만히 들으니 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선교 후원했던 목사님이였다.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던 송 목사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 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너무 놀랐다. 또 그 사장님 말씀이 오랜 기도 끝에 NY에서 만나는 아직 License도 없는 무경험자들과 시작해보라는 기도의 답을 듣고 시작했다니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그런 일이 아닌가 한다.

어렵게 시험을 통과해서 License을 받았다. 100 문제를 120분 안에 70점을 받아야 합격이었다. 사장님이 NY에 멋있는 사무실도 장만해주시고 다시 또 나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닌다.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처음에 사람들을 만나면 쑥스럽기도 하고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서 보험얘기를 꺼내나 고민 많이 했다고 하며 “집사님 만나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만나시는 분, 그 사업체, 그 직장, 그 가족, 어려운 일, 신분문제.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적어 넣고 기회 있을 때마다 중보 기도하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 해주는 것이 나중에 다 내게 축복이 되어 돌아와요” 그 말의 뜻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을 만나 뵈게 되었다. 많은 만남안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었다.

그러던 중에 전에 비해 자주 속이 아프고 자주 소화가 안 되어 고생을 했고 너무나 소화가 안 돼 물도 마시면 소화가 되지 않아 고생을 했다. 4년 전부터 저녁식사 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아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에 1시간 에서 1시간 반을 속보로 걷는 운동을 해왔는데 요즘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10분 15분만 걸어도 서서 쉬어야 했다. 그러던 중에 집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 이다.

딸과 아들이 막 흔들어서 눈을 떠보니 식구들이 교회에서 돌아와 보니 내 얼굴이 하얗게 변색되어 있어 나를 흔들어서 깨웠다. 식구들이 상황이 긴박한 것 같아 병원에 갈 것을 권유 했다. 내가 Long Island에 살 때 Medicaid를 신청했지만 두 번이나 떨어져 이곳 Bayside로 이사 와서 겨우 2월1일부터 보험이 시작된다는 편지를 받았던 차라 하루 참고 가려고 뜨거운 물로 목을 축이고 따뜻한 물로 얼굴을 닦고 하는데 정신은 더욱 더 혼미해 져갔다. 날짜를 2월1일 오전에 마쳐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 도착 후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에게 대충 이런 설명을 하고 피검사를 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여러 명의 간호사들과 인턴들이 달려오더니 정상적인 남자의 헤모글로빈이 14인데 이 환자는 지금 3도 안 되는 수치라고 응급수혈을 하지 않으면 사망한다. 팔뚝에 수혈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지 목에 직접 바늘을 꽂아 피를 급하게 수혈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물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한다. 목이 다 타 들어갈 정도로 탈수현상이 일어나서 호소하니 얼음을 가지고 와 면봉에다 얼음을 문질러 겨우 입술만 적시곤 했다. 이러기를 몇 시간이 지났는지 자다 깨고 자다 깨고 하는 와중에 목사님이 소식을 들으시고 오셔서 간곡하게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다. 정말 비몽사몽간에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니 안심이 되었지만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러던 중에 속이 많이 좋지 않아서 간호사에게 얘기 했더니 큰 세숫대야 같은 것을 갖다 주며 이상하면 토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번 비위가 상한 속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많은 피를 토했다 간호사 얘기로는 우유병 2 리터짜리로 하나 이상을 토했다고 한다. 그 후에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내가 많이 위독하다고 하는 말이 들려왔다. 급히 수술시간을 정하고 위 내시경으로 검사하고 나니 위 밑에 큰 구멍이 2개나 있어 거기도 많은 피가 새고 있다고 했다.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독해진다고 수술을 빨리 잡았다. 조금 후에 목사님께서 신영필 집사의 안내로 응급실에 오셔서 기도를 해 주시고 가셨다.

가물가물 정신이 혼미해 오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드문드문 들려왔다. 말씀을 잡으려고 애를 썼으나



아득히 의식은 사라져갔다. 후에 회사 사장 Michael Lee 와 Rob이 왔다 갔다. 정신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를 반복하는데 너무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가슴은 불안감이 엄습해서 눈을 감았다. 그때 온통 붉은색 속에 2명의 남자가 누워 있는 나를 보면 애처롭게 쳐다 보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는데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도움을 청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 주리라” 그런 소리가 들리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절 10장이 머리에 떠오르며 난 소리쳐 “도와주세요” 하니 “이젠 너는 폭 쉬거라. 내가 너를 고치느니라” 그 말씀에 나는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어느 의사가 다가오면서 “Everything is good. You’re done” 하면서 엄지를 치켜들었다.



아 내가 다시 살았나 보다 하며 두리번거리니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4시간이 넘는 수술의 경과는 아주 좋다고 했다. 위 밑에 커다란 구멍이 두 개가 마치 눈사람 모양으로 혈어서 위의 2/3을 잘라 냈다고 한다. 앞으로는 먹는걸 아주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워서 가만히 수술한 자리를 만져보니 이상하게 만져지는 것이 있는데 stapler 가 약 1 cm 간격으로 30개 정도가 쪽 박혀 있었다. 이것이 처음의 수술이었다. 그리고 통증을 없애려고 모르핀을 많이 놓아서 4-5일간은 정말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온통 노란색의 세상이 오렌지의 세상으로 바뀌기도 하고 간호사가 나를 데리고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고 정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 후 10일이 지난 후에 이젠 퇴원하여 집에서 휴식하라고 퇴원을 권했다. 응급실로 병원을 간지 12 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한 발 두 발 뿔 정도의 힘박엔 없었다. 그러던 중 수술한 자리에서 진물이 나와서 병원 응급실로 다시

들어갔다. 가서 확인해보니 배수술 부위는 보통 3 번 꿰매는데 안쪽은 아니고 2번째쯤에서 고름이 생겼다고 한다. 두 번째 수술을 하기 위해 Stapler 30여 개를 다 빼내고 배의 겉살을 열었다. 그 상처 부위에 기계를 붙여 고름을 빨아들이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해서 기계를 상처에 붙이고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하는데 그 기계가 잘 작동이 안 되어 병원에서 1주일 정도 있었고 보험관계로 집으로 돌아와 방문 간호사가 하루에 한번 집으로 와서 상처 부위를 소독해주고 그 기계에 빨려 들어간 고름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기계를 장치해 주고 갔다. 또 일주일에 두 번 수술해 준 중국 의사를 만나 수술 부위를 보고 안쪽의 수술할 때 꿰맨 실을 제거 했다.

그 중국의사는 만날때 마다 “넌 내가 살렸다 넌 지금 제2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네가 “나에게 빚졌다고 하면 너는 지금부터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된다” 고 웃으며 말해 줬다. 그리고 2주 정도 흘렀는데 갑자기 배가 자주 아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픈 간격이 여자들이 해산할 때 같이 좁혀져 왔다. 그냥 견디어 보려고 하다가 겁이 나서 응급실로 달려갔다. 다시 피검사를 하고 강 집사는 집으로 보내고 누워 있는데 의사가 오더니 위가 아물 때 장이 붙어서 뒤틀리면서 고통이 오는 것 인데 5 시간 안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장이 꼬인 부분이 썩는다고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며 새벽 5 시반 에 수술 시간을 잡았다. 아니 한 번쨌 배를 3번씩이나



째고 수술을 한다니깐 정말 난감했다. 동양 사람들이 유난히 장이 짧아 10명중에 1명꼴로 수술을 다시 한다고 한다. 5시쯤 내 침대를 7층 수술실 밖에 놓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쪽에선 마취준비하고 한쪽에선 수술 도구들을 만지는데 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공포감을 일으켜 정말 정신이 바짝 들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추워지기 시작했다. 아 이때가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이구나 생각이 들어 자꾸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3시간의 수술은 잘 되었다. 장을 좀 잘라 내고 꼬인 장을 꺼내어 풀어서 다시 넣고 꿰맸다 한다. 다시 10여 일간의 입원 기간 하지만 3번째 수술 후가 제일 아팠던 것 같다. 50년 간 자리 잡았던 장을 자르고 그걸 꺼냈다 다시 집어 넣었으니 장이 다시 배속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그렇게 아팠다. 하지만 예일교회 성도님 들의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참을 수 있었다. 100여분의 병문안과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이것이 나를 밀고 당겨준 큰 힘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 절로 감사 기도가 나온다. 또 기적 같은 일은 6월, 9월 양쪽 눈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이 다시 회복하여 잘 보이게 되었다. 아직도 가까운 거리에 책은 잘 안보이지만 그것은 돋보기로 조절하면 되니깐 큰 문제는 아니다. 정말 눈이 잘 안 보이는 건 힘든 일이다. 안보이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니... 이 시력의 회복도 아마 이 죄인에게도 다른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진다. 눈이 잘 안보여 버스와 전철, 도보로 많아 다니다 보니 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 전철 타는 지하계단이나 모든 계단에는 처음 시작하는 계단이나, 마지막 계단에는 꼭 노란색으로 칠해 시력이 약 한자 들 에게 도움을 주게 했고, 버스, 전철, 약간의 도보를 하게 되면 뉴욕 웬만한 곳을 다 다닐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로 3번의 수술과 수술 후의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일할 수 있게 힘을 받은 것 같다. 내가 여러 가지 일 중에 보험 일을 하게 되어서 많은 곳,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된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젠 그런 만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만난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그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그분의 생년월일, 간단한 가족 구성원 등을 적어 넣고 기회가

될 때 마다 특히 저녁에 운동 중에 자주 기도한다. “ 김 XX, 1973년생 부인 아들 5세, 딸 3세 이 분들은 자녀의 학자금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XX 1976. 6. 14 노총각입니다.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 드리게 된다. 참 이렇게 많은 만남을 갖다 보니 왜 이리 노총각들이 많은지 중매를 해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고 싶다.

예일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이 된 일입니다.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과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주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문제, 신분문제, 가족문제, 왜 혼자만 어렵다고 생각 하십니까? 또 왜 나만 그래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왜 해결이 안 된다고만 생각 하십니까? 내 건강은 나중이고 가족문제에 더 힘쓰는 가장이 계십니까? 꼭 아뢰세요. 하나님께 다 아뢰고 시인하고 간구하면 나에게 도움이 꼭 옵니다. 그 도움이 직접이건 간접이건 아님 타인을 통해서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중보 기도는 엄청나게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 보다 남들을 위해 먼저 중보기도 해 드립니다. 그 기도가 모이고 모여 기도가 이루어 질 때 나에게도 닥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 입니다.



어머니의 구원



박지혜 집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2010년 11월 첫 주 금요일 월삭기도회 후 웬지 철야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에게 다가왔다. 무언가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철야를 마치고 돌아온 토요일 아침 한국에 있는 큰

언니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께서 폐암과 골수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석 달 전 8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카 결혼식에 식욕이 없으셔서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외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가신 어머니께서 암이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게는 그 병명을 말하는 것조차도 아픔과 고통이었다. 아주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말기 단계에 이르러서도 암 세포가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 경우여서 몇 해 전 대상포진에 걸렸던 자리가 결려와 그것을 검사하러 병원에 가서서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우선은 통증이 없으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어머니였기에 나는 조급함이 더해갔다.

25년 전 처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기도제목은 어머니의 영혼 구원이었다. 그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였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다. 자식 다섯 중 예수를 믿는 세 자녀는 어머니의 암 진단 소식에 서로 간에 조급함과 안타까움을 나누며 더욱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밖에 없었다. 장남인 오빠는 어머니의 소식에 한국에 들어가 얼마간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 왔고, 85세이신 어머니는 항암치료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다른 치료방법을 택하여 치료받기를 시작하셨다.

나는 이곳에서 매일 어머니께 전화로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새벽기도로 철야기도로 기도예 매달렸다. 한국에서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큰 언니는 매주 수요일에 담당부서의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고 어머니를 방문했다. 불교신자이신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기에

전도사님이 오시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다. 무신론자인 작은 언니와 남동생도 굳이 막지는 않았다. 그런데 12월 중순이 넘어서며 어머니께서 갑자기 쇠약해지시기 시작하셨다. 내가 전화를 통한 음성으로 곧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믿는 가족들의 마음은 가슴이 타 들어가듯 조급해졌다. 오빠와 큰 올케는 12월 23일자로 한국에 들어갔고 나는 1월 7일자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다.

한국에 도착한 오빠와 큰 올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 (나는 거의 매일 큰언니와 오빠네와 통화하며 어머니의 영적인 변화를 물었고 믿지 않는 작은 언니와 남동생과는 통화하며 어머니의 건강상태를 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와 올케언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어머니께서 기도 중 아멘 아멘 하며 함께 기도하셨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신 것이다. 그날이 화요일이었다. 그래서 오빠네 는 다음날인 수요일에 전도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찾아오신 전도사님을 앞에 대고 어머니께서는 전과 달리 이 사람이 싫다고 오지 못하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이다.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이게 시작되었다. 그래도 주의 종인 전도사님께서는 물리치는 어머니 앞에서 끝까지 기도를 다 마치시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전도사님 기도 중에 어머니가 미워하던 사람에 대한 회개기도가 나왔다고 한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이틀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 무서워서 잘 수가 없다고 하시며 꼭 누가 옆에 있기를 원하셨고 어떤 나쁜 것이 본인을 몹시 괴롭힌다고 말씀하셨단다. 이틀을 못 주무시고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호흡장애를 일으켜 응급실로 가시게 되었고 검사 한 결과 생명이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진단하고 일반 암 병동으로 옮겨지셨다.

오빠네 는 어머니가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사의 말에 미국에 있는 사업도 돌아보아야 하기에 1월 2일자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1월 3일에 한국으로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몇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받았다. 몸이 떨려왔고 얼마 전부터 어머니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기도를 드리게 되던 나에게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다. 다행이 그날 밤 떠나는 비행기에 좌석이 남아있어서 출국 날짜를 이틀 앞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시 한국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주 위험한 상태는 넘기셨다는 것이다. 나는 그날로 출국했고 오빠는 하루 뒤 큰 울케는 오빠의 연락을 받고 출국할 계획으로 움직였다.

내가 어머니가 계신 아산 병원 입원실에 도착한 것은 1월 5일 새벽 6시이다. 그런데 바로 하루 전 어머니께서 갑자기 참지 못할 통증으로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모르핀 주사를 놓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께 갔을 때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실 수가 없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흘린 눈물, 남동생의 차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길에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던 눈물,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샘은 마르지도 않나보다. 또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어머니께 우는 소리를 안내려고 억지로 밝은 소리로 귓가에 셋째 딸 지혜가 왔다고 말씀드렸다. 감고 있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얘기했다. 닦아드린 눈가에 눈물이 또 흘렸다. 어머니의 볼에 내 볼을 대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그때부터 어머니 곁에서 귀에 대고 계속 말씀(요 1:12, 요 3:16)을 말해드리고 찬송가 204장과 470장을 계속 불러드렸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드렸다. 남동생은 직장에 출근했고, 11시경 작은 언니가 왔다. 그런데 누워계신 어머니를 쳐다보던 언니가 오늘 어머니의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언니의 그 말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오후 3시경 남동생과 작은 울케가 왔고 나는 어머니 곁을 계속 지키며 어머니 귀에 말씀과 찬송과 이야기를 해드렸다. 오늘 밤에는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담당 간호사의 얘기에 남동생과 작은 언니는 9시경 집으로 돌아가고 나와 작은 울케 만이 병실을 지키게 되었다. 그리고 한 50여분 지났을까. 산소 측정기 경보가 울리며 어머니의 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맥박측정기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들으실 수 있으므로 하고 싶으신 얘기를 다 하라고 하며 와야 할 가족들에게 빨리 알려라는 것이다. 나는 맥박측정기를 계속 쳐다보며 어머니의 귀에 대고 외치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 밤은 어머니만 계신 독방이었다)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한 말을 꼭 기억해야해. 내 말을 꼭 붙잡아.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엄마, 하루 동안 너무 너무 아팠지. 거기 가면 아프지도 않아. 나는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 내 말을 꼭 붙잡아. 꼭 붙잡아야 해”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대로 하라고 해도 그때와 같이 하지

못할 것 같다. 옛날의 작은 기억까지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어머니께 얘기하게 하셨다. 그렇게 외쳐대기를 20여분 지났을까 작은 언니 내외, 남동생, 큰 언니 내외가 도착했다.

그때까지도 맥박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이 얘기하도록 자리를 비켜준 나는 내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곧 맥박이 일직선을 긋자 간호사들이 모든 전원을 뽑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 곁에 가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있는 것을 보았다. 후지로는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다는 확신이 가슴에 벅차게 믿음으로 다가왔다. 간호사가 산소마스크를 얼굴에서 벗겼다. 그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그때 오빠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큰 울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상태였다. 남동생이 경황이 없어서 한 15분이 지나서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을 큰 울케에게 전화로 알렸다. 어머니는 내가 도착한 그날 밤 10시 반에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생명을 건어 가지기 전 나를 16시간 반 동안 함께 있게 하셨다. 오빠는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고, 큰 울케와 조카는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다.

1월 7일 아침에 병원에 도착한 큰 울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새벽기도를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순간적으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다. 어떤 강한 손이 누워 계신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며 그 손을 잡고 일어나셨고 그 기쁨이 울케언니에게까지 생생하게 느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15분 쯤 후에 남동생으로부터 어머니가 돌아 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너무 기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정확한 그 시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울케언니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천국으로 인도된 어머니를 확인시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짜 맞추듯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온전히 찬양할 뿐이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2-3) 2010년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다. 이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었으리라....



여호수아 리서십 이야기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김은희 집사

의거하여 누구라도 알기 쉽게 다음과 같이 잘 분류해 주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파워는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뿌리내린 용기 있는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된 리더로 리더에게 주신 약속과 리더를 향한 당부를 들어야 한다. 리더십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데서 시작한다. 잘 이끌려면 먼저 잘 따르는 법을 배우라. 팔로워십에서 시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리듬에 춤추는 리더가 되고, 리더가 지녀야 할 팔로워십과 비전에 헌신하는 팔로워가 되라. 철저히 준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나 기회가 오면 지체 없이 액션을 취하라. 한 걸음씩 내딛으라. 액션을 취하기전에 할 일을 하고 영적리더의 사명과 위기에 강한 리더십을 가지라. 당신이 겪은 성공과 실패를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라. 거룩한 패기로 새 역사를 창조하고 열정을 전염시키고 끝없는 열정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가지라.

영적리더십의 파워는 하나님께 지휘권을 내어드리는데서 나온다. 영적리더십을 견고히 세워 영적 숨고르기로 고난을 기억하는 은혜 가운데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단 한 바퀴만 덜 돌았어도 여리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믿음의 리더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공격전술로 승리의 고지를 향한 여정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가 있다. 용기 있는 리더는 자기 안에 있는 패배의식을 물리치고 비전을 향해 달려간다. 패배를 패배시키라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와 하나님의 해결방법에 따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라.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영혼이 재충전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하프타임이다. 의미 있는 하프타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하프타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실패하기에 가장 쉬운 순간은 성공 바로 그 이후다. 자만과 방심은 성공의 가장 큰 적이다. 성공을 경영하라 그리고 성공을 틔우는 실수의 함정을 줄이고, 성공을 경영하는 법과 실수를 줄이는 비결을 익혀라.

최고의 열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리더의 가슴에서 폭발한다. 열정적으로 현장에 뛰어들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뛰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레이스를 정하고 넘어야 할 성공의 고비를 잘 넘기라. 리더로서 진정한 성공은 차세대 리더를 탁월하게 길러 낼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사람을 키우라 그리고 리더십 위임을 준비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분배원칙을 세우고 마지막까지 모범이 되는 리더가 되라.

리더가 가진 비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전을 보여주며 성취를 위한 결단과 창조적인 리더십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라. 리더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팔로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계발시켜주는 것이다. 칭찬하고 격려하며 축복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라. 리더의 아름다운 피날레는 후계자 리더에게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위임하는 것이다.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고 공동체에 영적유산을 물려주라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리더십에 맡기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애굽땅에서 노예로 태어나 고난을 겪게 하시고 모세의 리더십 밑에서 40년을 충실하게 섬긴 것과 무지한 동족들과 40년이란 세월을 인내하며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일을 맡기시기 전에 그를 준비시키셨다. 여호수아의 핵심 리더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사자의 심장을 가진 용기 있는 지도자였다. 여호수아는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독불장군처럼 독단적인 리더는 아니었다. 총지도자가 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전사들로 구성된 세 지파의 도움을 청했고, 그들의 헌신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묘한 팀워크를 만들어 낼 줄 아는 훌륭한 리더였다.

리더들을 위한 메시지는 첫 번째로 겸손 하라는 권면으로 시작되었다. 여호수아 23장 3-5절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사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상기시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철저히 다시금 인식하고, “교만하거나 방자해지지 말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6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명령했다. 세 번째 부탁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다.

팔로워들을 위한 메시지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과 험한 광야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역사의식 안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이 모든 것이 생겼다. 하나님 때문에!” 하고 거듭 강조한다.

저자는 당신이 부모라면 당신은 한가정의 리더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우리는 이런 저런

모습으로 리더 자리에 서있거나, 앞으로 리더가 될 것이다. 시시각각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기가 솔직히 두렵지 않는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좇아 한 걸음씩 나아가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다.





변장된 축복



최형석 집사

안녕하세요, 부족한 저를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의 흔적이나 하나님의 손길이란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었던 저의 집안에 친히 찾아 오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섬세한 손길로 이루어 가시는

좋은 하나님을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생 자신 만을 믿고 살아오셨던 17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님, 여장부 같으신 어머니, 그리고 세 분의 누님들, 두 명의 남동생 이렇게 저희 6남매는, 한국의 많은 여느 평범한 가정과 같이, 때가 되면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30년 이상 절에서 보살로 섬기신 어머니의 정성어린 불공과 참선 그리고 옹하다는 점쟁이들이 주는 점괘와 부적으로 울고 웃으며 그런 대로 행복한 가정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갖고 자랐습니다.

최고의 대학만 가면 인생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 목표는 좌절되었고, 그 열등감과 자괴감을 술로 풀었던 대학 시절…….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의 면전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난도질을 해뒀었는지요……. 마치 스테반을 돌로 치고 있었던 의기양양하던 사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셨는지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이후 제 영어 이름을 스테반으로 부르게 하신 것도 평생 그 부끄러웠던 모습을 참회하도록 하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사정부의 가혹한 탄압을 피해 원치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던 유학생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들려온 청천병력 같은 소식은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텍싱턴 Ave. 86가의 야채가게에서 밤일을 하고 낮에는 수업을 들어야 했던 참으로 고통스런 시간들 그리고 암울한 미래가 죽고 싶다는 충동으로 저를 자주 몰아갔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다는 저의 상식, 의지 그리고 자존심이 이와 같이 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고,

진퇴양난의 처지 속에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군대 입영을 3일 앞두고 술에 만취가 되어 자고 일어난 저에게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던 제 친구의 어머님께서 기도해 주시며 하신 말씀이 훈련소 생활 내내 제 뇌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길ियो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과 같았던 사단 직할 신병 훈련소의 첫 일주일을 마치고 잠시 내무반을 떠날 수 있는 종교 활동을 허락받았을 때, 주저 없이 절이 아니고 교회를 택한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르간 건반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찬송을 귀로 흘리며, 코흘리개 시절 공짜 과자 얻어먹는 재미에 이따금씩 기웃거리던 동네 교회의 주일 학교 선생님들의 따스한 미소가 왜 그 때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미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즐고, 울고, 즐고, 울었습니다…….

제대 후 아직도 재정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저희 집안을 뒤로 하고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뉴욕으로 오게 된 날, 3시간만 늦게 학교에 도착했어도 학교 등록은 불가능 했었을 것입니다. 다시 대학 생활에 적응하자 외로움과 적막감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예배란 것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교회 옆에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채 되지 않아 우드사이드 교회에서 한 블록 떨어진 아담한 하숙으로 이사를 하게 해주셨고, 이사한 다음 날 드린 제대 후 첫 주일 예배에서 현재 저의 믿음의 아내를 만나도록 예비도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질긴 담배, 술을 끊고 살아갈 것이며, 등록금은 또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 그 해 1990년 11월 12일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감격으로, 눈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왜 그리 눈물이 그치지 않고 쏟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운 삶 속에 아내를 주시고 비록 핏줄은 나누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교회의 형제, 자매를 주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덧 술, 담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자리를 잃고 제 삶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당시 저는 왜 저의 대학등록금이 반환됐는지 영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등록금을 내줬다고 몇 번을 찾아간 제게 저의 신분이 영주권자로 바뀌어 등록금을 낼 필요 없게 됐으며, 또 다시 찾아오면 학교에서 내쫓아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대학교 사무처장의 어처구니없는 대답에 대학을 공짜로 졸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웬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의 아내가 이렇듯 믿음의 불모지인 저희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결혼식 날, 두만강을 멋들어지게 부르셨던 아버님, 어머님은 결혼식 후 바로 위층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미국을 다녀간 막내 동생은 4개월간을 날마다 잠자면서 가위에 눌리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예수를 믿고 한국으로 귀국해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사인 바로 밑 남동생은 결혼 후 어머님의 명령으로 교회에 출석했으나, 아내가 임신을 못해 초조해 하던 차에 기도 하며 아기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자 훈련에도 열심인 간 이식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이대 문리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자존심이 유달리 강했던 큰 누님. 자신의 인생에 만족이 없었고, 점을 보며 굿 하는 것이 생활의 일부였던 큰 누나는 그 뒤

많은 돈을 사기당해 중국으로 가 있던 중,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오직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가면 너무나 귀찮게 한다면, 한사코 성당에 나가던 셋째 누님. 저희 집에 유학 와 있던 딸의 기도와 사업에 실패 한 매형 덕에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은혜로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저희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든 식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기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믿게하셨고 그 분을 통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대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는 가정, 미움, 질시, 탐욕대신 용서, 사랑, 절제가 넘치는 가정 그리고 욕망과 물질에 대한 동경과 추구 대신 죽어가는 생명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 가정들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 소망, 믿음 세 아들과 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일장로교회 같은 축복된 교회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심을 그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을 만나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서없이 전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까?



황희진 성도

‘아멘.’

2010년 7월21일 남편의 학업을 위해 미국에 오게 되었고 정확히 4개월만인 2010년 11월 21일 저와 남편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과 존경스러운 장로님들 앞에서 세례문답을 받고

사랑이 가득한 예일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신앙고백을 한 것은 다시 생각해도 감격스럽습니다.

제게 지난 4개월은 회사입사, 결혼, 아이들의 출산과 견주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제게는 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다녔던 기억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린이법회의 회장을 맡아 주말 대부분의 시간을 절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도 ‘대학생 불교연합회’에서 선후배, 동기들과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졸업 후 바쁜 직장생활과 결혼 이후 육아에 신경 쓰느라 이전처럼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 인생에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도 또 알고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교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고 있을 무렵 남편이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이곳 뉴욕에 있는 학교로 결정을 하고 지역정보 수집을 위해 웹 서핑을 하던 중 한 사이트에서 김영애 집사님과 우연히 메일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에 이끌린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일말의 의심도 없이 집사님을 믿고 Syosset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또 누군가 정해 놓은 길을 가듯 자연스럽게 이곳 예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34년을 살면서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는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등록 마지막 날에야 겨우 신청해서 가게 된 여름수련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님 들과 함께 찬양을 하며 항상 제 맘속에 있던 허전한 무엇인가가 채워지는 기분이 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른 종교에 대해 알고도 하지 않았고 궁금해 하지도 않았던, 어설픔게라도 교회라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저의 그분에 관한 백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만나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짧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미국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전학 온 아들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들 틈에서 영어가 서툰 아이가 어떻게 적응을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학교에서 반 배정이 된 것을 보니 우리 교회 유년부에 있는 같은 학교 여자 친구 두 명과 한국 남자아이 한 명이 같은 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한국 남자아이가 한 명이라도 같은 반이 되기를 기도했었고 저희 아들은 저희 아들대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기를 기도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첫 기도응답입니다. 지금 큰 아이는 주말에도 학교에 가고 싶어 할 정도로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두 여자 친구의 어머니 되는 좋은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낯선 미국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곳 뉴욕에 오게 된것도, 예일교회에 온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은 2009년에 시카고에 있는 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경제위기로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남편의 공부 일정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다행히 경제위기가 1년 만에 진정되었고 남편은 그 기간 동안 다른 학교에도 지원을 하여 입학통보를 받았던 터라 시카고와 뉴욕을 두고 마지막까지 갈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식구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김영애집사님을 만나 교회 근처에서 살게 된 것도, 같은 동네에 믿음 좋은 집사님들을 이웃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저희 가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제 마음가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계획했던 일이 어긋나거나 잘 진행이 안 되면 짜증을 내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한 일이실거야.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번에 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서 더욱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소셜 넘버가 없는 저는 느리고 답답한 미국 행정시스템 덕분에 DMV방문 다섯 번째 만에 또

소셜오피스 방문 두 번째 만에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람들이 길게 줄서 있는 DMV와 소셜오피스를 오고 가는 게 어찌나 힘이 들던지 남편에게 ‘왜 날 미국으로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라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보고 나서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특히 여자들은 바로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실기시험을 커트라인 점수이긴 하지만 한 번에 합격한 것입니다. 사실 실기시험 감독관들이 통명스럽고 거친 태도를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시험 전에 무척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작 무렵 운전면허 학원 원장님이 저를 테스트하러 오는 감독관을 보며 본인과 친분이 제법 있는 사람이니 그리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잘되었다고 넌지시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친분이 있다고 다 합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시험 볼 수 있었고 나중에 테스트 점수를 보니 한 두 가지 실수에 대해 너그럽게 평가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지만 제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날 그 시간에 그 시험관과 만나게 해주시려고 DMV와 소셜오피스에 수 차례 방문하게 하셨고 세례식 전날 합격하게 하시어 저에게 미국생활에서 꼭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세례선물로 주신 것 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은혜라 생각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행복해지니 아이들까지 더불어 행복해 지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가짐이 바뀌니 예전 같으면 아이들에게 화낼 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 는 말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편과의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한국에서 바쁜 회사 생활과 술자리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던 터라 이곳에 와서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되리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생활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지 늦게까지 수업준비며 숙제를 하느라 일찍 집에 오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공부하다가 밤 늦게 집에 와도 꼭 자고 있는 아이들 옆에 가서 기도해주는 아빠가 되었고 바쁜 중에도 하루에 조금씩이나마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서로 티격태격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고 설사 의견충돌이 생겨도 남편이나 저나 금방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박성우, 김영애 집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남편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바쁘게 살다 보니 같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주일에 가족이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가니 좋은 곳에 나들이 가는 것만큼이나 행복합니다. 전에는 남편과의 대화 주제가 대부분 아이들, 가족 그리고 가끔씩 같이 보는 영화 정도였는데 이제는 목사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교회에 있었던 일을 밤늦게 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섯번째로 제가 감사하며 행복해 하니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또 남편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니 저의 가정에 작지만 의미 있는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에서는 교회에서 배운 찬양이 흘러나오고 저 또한 운전할 때나 집에서 음악을 들을 땐 예전처럼 가요나 팝송을 듣기보다는 찬양곡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지 얼마 안되었고 지내다 보면 이곳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힘든 고비가 있을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는 지혜를 저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번 목사님께서 예수마을 원고를 모집한다고 하시며 글은 영원히 남는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교회에 온지 얼마 안 된 제가 보잘 것 없는 글을 기고하는 이유는 5년 후 또는 10년 후 이 글을 보며 제가 하나님께 다가갔던 또 하나님께서 제게 다가와 주셨던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좋아 교회에 오기도 하겠지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임을 맘 깊이 새겨두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면을 빌어 저희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신앙생활의 본보기를 보여 주시는





교만과 거만을 모두 버리고 겸손한 삶 살기를



김영진 집사

저는 주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행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저희 가정을 이곳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제게 보여주시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온 후 처음 하게 된 일은 원단가게의 배달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의류 매장의 판매사원으로 일 하고, 그 당시에는 딸 수정이만 있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등교한 수정이는 언어의 어려움과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 때문에 학교가기를 무서워하며 울며 등교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출근해야 하기에 우는 수정이를 밀다시피해서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열심히 저축을 하며 지내온 세월이었습니다.

우연히 수정이의 낙서장을 보며 우리 세 식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내용은 적응이 안 되는 학교생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집에서 혼자 있게 되는 외로움 그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수정이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한참 뛰어놀고 엄마한테도 응석을 부리며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 나이에,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부모의 사랑 못 받고 한쪽 방에 잠이든 수정이를 보며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딸의 일기장에는 혼자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동생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의 수정이의 기도에 아들 병준이를 저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병준이의 영어 이름은 Matthew, 주님이 주신 선물,

저희 부부는 열심히 생활한 결과 조그마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를 잘 타서 반응이 아주 좋아서 풍족한 생활을 하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투자제의를 하고, 저는 우리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던 그 동업자에게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가르쳐드렸는데 6개월 후에 그 사람은 저의 체류신분을 문제 삼아 겁을 주며 회사는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담배에 의존하며 방탕의 시절을 보내고 있던 중 병준이가 커가는 모습에 다시 직장을 얻고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는 어린 병준이와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한 분의 소개로 예일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빨리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하여 같이 가자고 해서 저도 흔쾌히 참석한 모임은 새가족 종강파티였습니다.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저의 소개를 하게 되었고 그 후로 예일의 한 식구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의미한 교인으로 밥 먹고 집에 가기에 바빴습니다.

전 교우 체육대회가 있던 날 운동을 좋아하던 저는 모든 종목 축구, 족구, 킬레이에 참가하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운전하여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부축으로 간신히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더 심해진 통증에 누워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교회에도 못가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으시고 방문하신 집사님 부부는 저를 보시고 기도로 아픔을 같이 나누자고 하시면서 내일 다시 오시겠다는 말을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다음날 저녁 11시 20분경 저를 위하여 허리를 풀어주는 머신을 설치해주는 집사님을 보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101 제자 훈련 중에 배운 기도로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교만, 거만 이 두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때야 저는 반성을 하며 기도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거만을 모두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에 성경책을 보고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글도 남기곤 하며 많은 누우침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집사님께서 전화하셔서 내일 주일에 꼭 예배에 참석하라는 호통의 목소리에 저는 겁이 나서 운전이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많이 힘들면 아침에 라이드 해주신다는 말씀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후러싱까지 오신다는 말씀에 저는 힘을 내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말씀을 듣는 중에 허리의 통증이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예배 중간에 나가려고 했지만 눈물을 삼키며 말씀을 듣던 중에 허리 중앙에서 배구공만한 열이 나며 쓰러질 정도로 고통이 심해지다가 서서히 오른쪽 다리 뒤로 흘러내려 3-5분 정도에 걸쳐 발바닥으로 무엇인가 속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주님 감사합니다하며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한분 손을 잡으며 악수하시는 목사님과 인사하며 손에 전해지는 따스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101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고, 교육을 받는 중에도 많은 시험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러 가는 날 말다툼을 하던지, 문제없던 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하지만 아내는 이유를 막론하고 훈련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다그치고, 그런 한 주가 제게는 시험이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앙케이트 (예일교회)

작성자 : 김준택 집사 / 2남선교회

예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만 모이는 예일교회야
말로/ 교회 중의 참 교회요/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공동체이다.

작성자 : 이수정 권사 / 2여선교회

예수믿고 변화된 나의 삶 /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함을 깨닫고 /
교만의 옷을 벗지 못했던 과거의 나를 / 회개로 고백하고 나니
이렇게 홀가분 하고 행복할 수 없네

작성자 : 정정숙 집사 / 4여선교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 속에/ 일찍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교회로 발길을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마음과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작성자 : 박지혜 집사 / 4여선교회

예비된 축복의 그 길을 걸어가는 예일의 성도들이여
일일이 다 열거 할 수 없는 많은 감사 속에서
교우들과 나누었던 한 해의 웃음과 기쁨이
회고해 보면 잊혀질수 없는 추억이 된다네

작성자 : 정소영 집사 / 3여선교회

예수님은/ 일일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써/ 교훈을
주셨으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작성자 : 박성우 집사 / 5남선교회

예수님의/ 일꾼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회심의 현장

작성자 : 심재만 집사 / 3남선교회

예수님이 제일인 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교만한 삶의
시간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일찍 왔을텐데!

작성자 : 심도현 집사 / 6남선교회

예수님이 좋은걸 어떡합니까? / 일생동안 주님만 생각하며 살기
원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던 이 죄인 /
회개하고 변화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래요.

작성자 : 최 훈 집사/ 5남선교회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교회/ 일심으로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 교만하지 않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교회/ 회개하며 나아가는 교회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교회 우리 예일교회.

작성자 : 김영진 집사/ 6남선교회

예일교회의 식구들/ 일대일 제자훈련을 받으며/ 교만과 거만을/
회개합니다.

작성자 : 김용숙 집사 / 5여선교회

예수는 나의 구원자 우주만물의 창조자/ 일생을 다 드려도
그 은혜 갚을 길 없네/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
회개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찬미와 화답으로 승리의 길
가려네

작성자 : 김지현 집사 / 5여선교회

예수님의 / 일꾼은 / 교만하지 않고 / 회개의 심령이
있는자입니다

작성자 : 황희진 성도 / 7여선교회

예전엔 미처 몰랐지요/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들요/
교도문이 뭔지도 모르던 제가 이번에 7여선교회에서/ 회개를
말게 되었답니다. 경험이 부족하니 많이많이 도와주세요

작성자 : 박인주 / E.M

예수님은/ 일일이 우리에게 다가와 만져주시고/ 교회 예배
중에도 만나주시는/ 회중의 친구랍니다.

작성자 : 무 명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보며 기뻐하노라/ 일생동안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있나니/ 교제를 통하여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회개하고 나와서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으렴.

작성자 : 김연신 집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은일 / 일일히 간섭하여 돌보아 주시며
/ 교만한 마음 내려 놓게 하시어 /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네

작성자 : 김희숙 집사

예수님은 / 일평생 하나님 뜻 위해 사셨지. 주의 영광의 깊은
/ 교제와 통렬한 / 회개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뜻
안에 들어가기를....

작성자 : 박지혜 집사

예비된 축복의 그 길을 걸어가는 예일의 성도들이여 / 일일이
다 열거 할 수 없는 많은 감사속에서 / 교우들과 나누었던
한해의 웃음과 기쁨이 / 회고해 보면 잊혀질 수 없는 추억이
된다네.

양케이트 (예수마음)

작성자 : 김미라 권사 / 2여선교회

예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성경이야기중에 수 많은 말씀과
기록 중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은혜시에 무덤으로 찾아가서 애통하는
마리아의 마음씨처럼 아름다울 수 있으랴.

작성자 : 김영애 집사 / 5여선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 가운데 매이셨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료의 빛을 비추어주시네요.

작성자 : 김용숙 집사 / 5여선교회

예수 탄생으로 온 세상 이기네 수지 맞았네 마음속 깊이
찬양하리라 은혜사년이 아닌 신묘년에 더욱더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리 아기 예수님 오심을 경배 드리며.

작성자 : 김경애 집사 / 6여선교회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수려한 외관이나 형식 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중심을 하나님께 드러야
합니다.

작성자 : 마승범 성도 / 7남선교회

예찬목장에 가면 신심 깊은 목자님과 목원분들께서
수고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늘 따뜻하게 저희 가족을 맞이해
주신답니다 마동준 마동현 두 아이들을 은혜애나 이빠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예찬목장 파이팅!

작성자 : 김진수 집사

예수님은 수 많은 병자와 죄인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시며
빛을 주셨지 마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은혜년 스러운
우리네 삶 속에 오셔서 환한 빛으로 비춰주시네

작성자 : 조춘자 권사 / 2여선교회

예일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좋다는 소문이 나 있어 수 많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와 마음의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있지만 은혜년 스러운 이 추운 겨울에 얼음처럼 얼어버린
차가운 마음이 있다면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려
따뜻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줍시다.

편집후기

예수마을이 벌써 열 세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매 해마다 예수마을을 만들어가면서
예수마을은
세상의 그 어떤 책들과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귀중한 이야기를 담아가기에
화려함보다, 세련됨 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 받을 수 있는 책이어야 함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래서 구별된 책,
예수마을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울 한해도 자신의 삶속에서 힘들고 아팠던 모습,
감추고 싶었던 모습까지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정으로 수고하신
많은 분들과
김준택 위원장님, 박성우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마을 통권 13호

발행인 김종훈 담임목사

발행일 2010년 12월 31일

발행처 뉴욕예일장로교회 출판부

위원장 김준택 장로

부 장 박성우 집사

총 무 강호경 집사

사 진 경재도 집사

홍재익 집사

교 경 김희경 집사

강철순 집사

양명옥 집사

박지혜 집사

김영애 집사

황희진 성도

편 집 임미라 집사



방송설교 안내

기독교 방송(KCBN) 본방 목요일 오전 9시(라디오)
 재방 목요일 오후 9시
 TV(TKC)예일의 시간 본방 주 일 오전 9:00~9:30
 DIRECT TV(Ch.2087) 본방 주 일 오후 7:30~8:00
 재방 월요일 오전 8:30~9:00
 인터넷방송 <http://ny.cts.tv>

조유경 사모 신앙에세이

DIRECT TV(Ch.2087) 본방 화요일 오후 7:55~8:00
 재방 수요일 오전 8:55~9:00



담임목사 김 종 훈

Rev. Jong Hoon Kim, Pastor



미주 한인 장로회
뉴욕 예일 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교회(516)938-0383/ Fax:(516)938-3824,

예배

-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 영어예배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8:30
- 월삭기도회 오후 9:00 (매월 첫째 금요일)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
- 제자훈련 화,목요일 오후 8:30
- 청년부 금요일 오후 8:30
- AWANA 주일 오후 2:00~4:00
- 주일학교 영아부 (3세미만) 오전 11:30
 - 유치부 (3~5세) 오전 11:30
 - 유년부 (1~5학년) 오전 11:30
- 중고등부 오전 11:30, 토요일 오후 2:30
- 실버클럽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 MOMMY&ME 금요일 오전 10:00~11:30
-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오후 12:30
- 뉴욕크리스찬아카데미 목요일 오후 6:30~8:00



■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43, 첫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 롱아일랜드 East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43, 첫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예수 마음으로

2010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